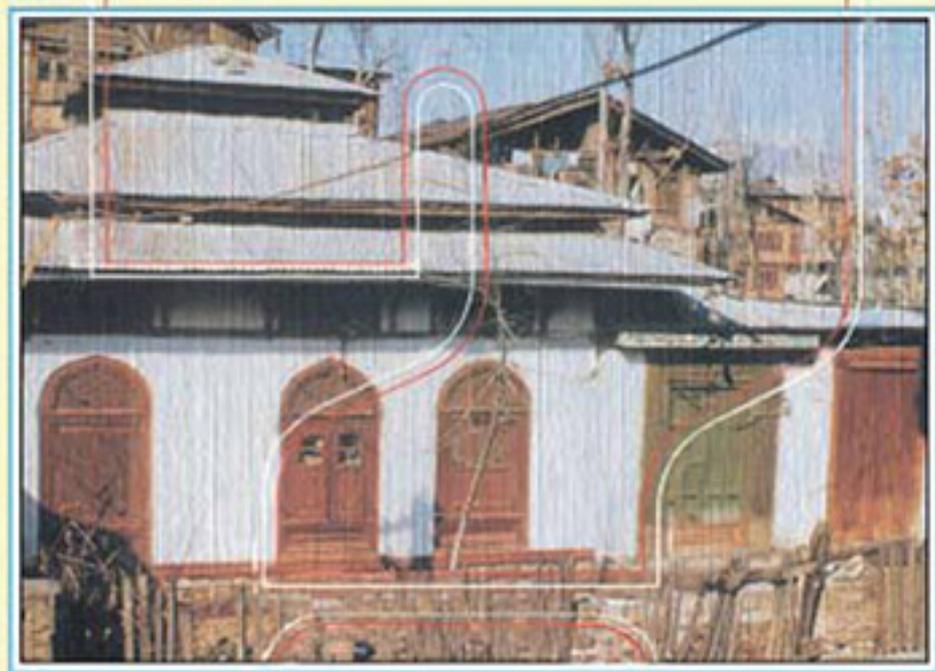


예수는 어디서 죽었는가?

제이 디 샴즈 옹



이슬람 인터네셔널 출판사

—o:~::~~::~~::~~::o—
예수는 어디서 죽었는가?
—o:~::~~::~~::~~::o—

예수는 어디서 죽었는가?



마리아의 아들인 메시아는 사도에 불과했다. 그 이전의 모든 사도들이 사망했다. 그의 어머니는 올바른 여인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음식을 먹었다. 우리는 그들이 보여준 선의 징표를 설명한다. 그것들이 어떻게 거부되었는지 보라.

(코란 5:76)

저자: 제이 디 샴즈 옹
런던 모스크의 이맘, 1936-1946

© Islam International Publications Ltd.

© 이슬람 인터네셔널 출판사

예수는 어디서 죽었는가?
저자: 제이 디 샴즈 옹
런던 모스크의 이맘, 1936-1946

초판 1945년 영국

8판 1989년 영국

9판 1996년 영국

10판 2004년 영국

11판 2014년 영국

12판 2017년 인도

© Islam International Publications Ltd.

© 이슬람 인터네셔널 출판사

출판: Nashro Isha'at Qadian-143516 District Gurdaspur (Punjab), India

인쇄: Fazl-e-Umar Printing Press Qadian - 143516 (Punjab)

더 자세한 내용은 www.alislam.org에서 확인하세요.

목 차

저자에 관하여 · 9

초판 서문 · 13

재판 서문 · 17

머리말 · 19

서문 · 33

1장 복음서의 내용 · 37

2장 판결 · 49

3장 부활에 관한 올바른 설명 · 67

4장 초기의 문서 상의 증거 · 77

5장 최근에 발견된 예수의 수의 · 95

6장 현대의 의학적인 의견 · 101

7장 예수는 승천하였는가? · 109

8장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 승천하였다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 119

9장 이교사상과 바울 · 137

10장 구원과 속죄 · 149

11장 예수, 인도로 가다 · 167

12장 알려지지 않은 예수의 인생 · 199

13장 유스 아사프와 예수 · 213

14장 최고의 예언 · 227

제6판 부록 · 239

제7판 부록 · 245

제12판 부록 · 253

참고 문헌 · 259

편집자 노트 ·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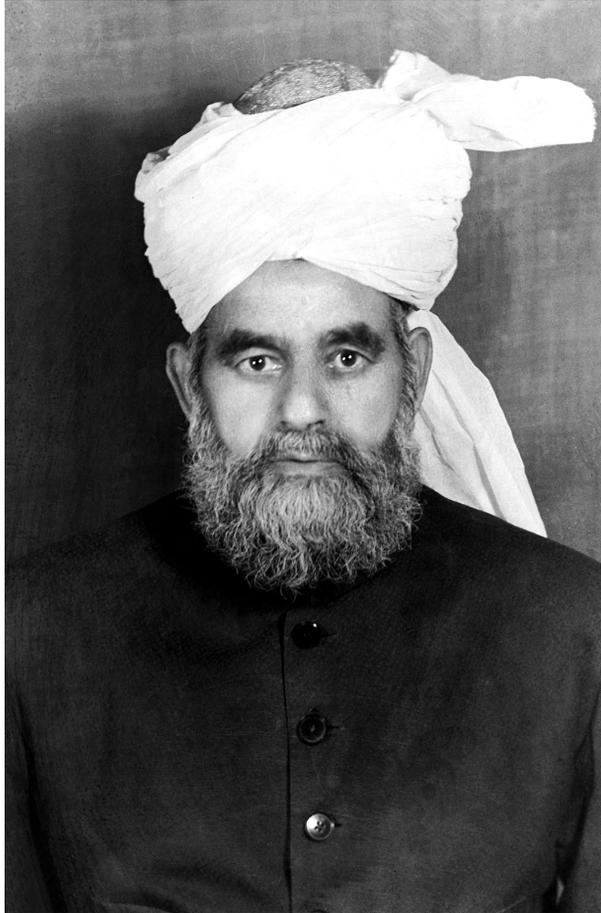


예수의 무덤
카슈미르, 스리나가, 카냐르 스트리트

스리나가의 유명한 사람들의 구정 혹은 서면의 증거에 따르면 위의 무덤의 주인은 왕자로도 불린 예언자 유스 아사프이며, 1900년 전 카슈미르에 정착한 사람이다. 200년 전에 쓰여진 카슈미르의 역사서인 타리크-이-아자미는 이 무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샤이드 나스르-우드-딘의 무덤 옆의 무덤은 일반적으로 카슈미르의 주민들에게 보내진 예언자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장소는 예언자의 무덤이다. 그는 올바른과 헌신으로 여기로 온 왕자였으며 그는 신에 의하여 예언자가 되었고 카슈미르에서 설교를 하였다. 그의 이름은 유스 아사프이다. (P82)

히브리어로 유스 아사프는 예수란 의미이며 사람을 모으는 자란 뜻이다.



하즈라 마우라나 자랄-우드-딘 삼즈

저자에 관하여

하즈라 마우라나 자랄-우드-딘 샤프는 1901년에 태어났으며 약속된 메시아인 카디안의 하즈라 미즈라 굴람 아마드의 동반자였다. 그의 아버지 미안 이맘-우드-딘 세콰니, 작은 아버지 미안 자말-우드-딘 세콰니와 미안 카이르-우드-딘 세콰니, 그리고 조부인 무하메드 시디케 세콰니 또한 약속된 메시아의 동반자들이었으며, 모두가 축복을 받아 각각의 가족들과 더불어 313명의 동반자에 속했다.

자말-우드-딘, 카이르-우드-딘, 이맘-우드-딘은 세콰니 브라다란 혹은 세콰니 형제로 '아마디아트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북서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세콰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 가족은 약속된 메시아의 아버지가 지은 사원에서 기도를 하곤 했으며, 당시 어린아이였던 미르자 굴람 아마드와 잘 알고 지냈다. 아마드가 마디와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형제들과 그 가족들은 그의 진실되고 고결한 인품을 알고 있었으므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자말-우드-딘 샴즈는 영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아마디아의 대의에 헌신하였고 하즈라 미르자 바시르-우드-딘 마무드 아마드, 하즈라 하피즈 라우산 알리 등 약속된 메시아의 여러 동반자들로부터 선교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 1925년, 마우라나 샴즈는 중동으로 파견되었다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아마디아 무슬림 공동체를 설립했다. 그러나 칼을 휘두르는 치한의 공격을 받아 선혈이 낭자한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맞았다. 다행히 이웃에게 발견되어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의사들의 진단은 비관적이었고 그는 등에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상처로 곧 사망할 것으로 보였다. 결국 콰디안에 있던 두 번째 칼리프인 하즈라 미르자 바시르-우드-딘 마무드 아마드에게 이 상황을 담은 전보가 전송되었다. 그는 공동체에 마스지드 아크사에 함께 모여 샴즈와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자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전했다. 샴즈는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회복을 하자 프랑스 당국은 신변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떠나줄 것을 요청했다.

마우라나 샴즈는 두 번째 칼리프의 인도와 지시를 받고 팔레스타인으로 갔다. 그곳에서 여러 무슬림 센터에서 아마디아트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배웠다. 그는 하이파(지금의 이스라엘)의 카바비르에 아마디아 무슬림 공동체를 설립하였고 마무드 사원의 건립을 시작했다. 카바비르에 있는 한 거리의 이름에 그의 이름이 붙기도 했다. 그가 카이로의 유명한 다르-울-히크마에서 강연을 마치자 아랍의 학자들 중 한 사람이 일어나 어디서 그런 지식을 얻었는지 물었다. 샴즈는 그것은 마디의 가르침이라고 대답했다. 놀란 학자는 관중을 향해 돌아서서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시대의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1931년, 마우라나 샴즈는 인도로 돌아왔다. 그는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두 번째 칼리프가 의장으로 선출되고 무하메드 이크발이 회원으로 있던 전인도 카시미르 위원회의 서기로 임명되었다. 그러다 1936년에 영국에 파견되어 런던 사원의 이맘으로 활동했다. 그는 영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영국인에게 아랍어를 가르쳐주고 영어를 배웠다. 이런 초기의 언어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약 60명의 영국인이 아마디아트를 받아들였다. 그는 런던에 있는 동안 이 책을 썼고 인도에 있는 예수의 무덤에 관한 내용이 담긴 소책자를 10만부 인쇄하여 훈련 차 런던에 와 있던 다른 선교자들의 도움을 받아 영국에 배부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독일이 영국에 대한 폭격을 시작하자 샴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 결과, 약 20가족이 파즐 사원 바로 옆에 있는 아마디아 선교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사원 인근을 둘러싼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었지만 파즐 사원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폭탄 2개가 사원의 마당에 떨어졌지만 불발했고 나중에 영국군이 수거해 갔다.

아내와 두 아이들과 헤어진 지 10년이 지난 1946년—유럽에 이슬람 아마디아를 전파하기 위해 기꺼이 받아들인 희생이었다—, 마우라나 샴즈는 콰디안의 아마디아 본부로부터 호출을 받고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1947년에 인도 아대륙이 분할되면서 그는 마지막 아마디아 순례단의 수장으로 임명되어 콰디안을 떠나 파키스탄으로 갔다. 그는 콰디안의 변두리에 이르자 행렬을 중단시키고 콰디안 쪽을 돌아보고는 성스러운 예언자가 메카의 도시 변두리를 떠나

면서 읊조렸던 것과 똑같은 구절을 노래했다. 마우라나 샴즈는 파키스탄으로 옮긴 아마디아 교단의 새로운 본부에 ‘라브와’라는 이름을 제안했는데, 이를 하즈라 칼리파툴-마시 2세가 승인했다. 그는 명예로운 칼리드-이-아미다야트 지위를 받은 세 명 중 한 사람으로, ‘알라의 검’이라고도 불리며, 전쟁에서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로 변절자, 로마인, 페르시아인과의 전투에서 셀 수 없는 결투에도 불구하고 순교하지 않았던 무슬림의 위대한 장군 하즈라 칼리드 빈 왈리드를 연상시킨다. 게다가 두 번째 칼리파는 ‘후에 태양이 서쪽에서 뜰 것이다’라는 성스러운 예언자의 예언에 대한 해석 중 한 부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온 샴즈라는 사람(‘shams’는 아랍어로 ‘태양’을 의미한다)에 의해 실현되었다고 말했다.

마우라나 샴즈는 나지르 이스라호-이르샤드(파키스탄 선교 활동)에 전념하다가 1966년 10월 13일에 사망했다. 그때까지 바히시티 마크 바라 사무국장, 알-시르카트-울-이슬라미야의 이사, 마즈리스 이프타의 사무국장, 마즈리스 카르 파르다즈의 의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그리고 아내와 7명의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았다.

그는 우르두어, 아랍어, 영어로 쓰인 약 70권의 저서를 남겼다.

초판 서문

마울비 샵즈가 자신의 흥미롭고 계몽적인 논문의 서문을 부탁했고 나는 영광스러운 요청을 기꺼이 수락했다.

종교는, 영적인 삶에서 자연스럽고 적절한 입지를 갖추려면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사실에 대한 탐색과 동화는 이슬람교의 목표 중 하나이다. 마울비 샵즈는 분명히 그런 탐색에 전력을 기울였고 최고의 변호사가 부러워할 만큼의 능력으로 그런 결과를 발휘했다. 비록 그의 명쾌한 설명이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무엇’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런 결과는 매우 분명하고 정확하다. 그는 수많은 잘못된 가정의 근거를 냉정하게 제시했고, 실제로 조롱하지 않고 제거했다. 기독교에서는 가끔 자기들이 최종적인 위치에 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종교가 세워진 원리 혹은 이른바 사실이 불안한 것으로 입증되 있다면 그런 주장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예수는 신이 보낸 예언자로서 진리를 알리기 위해 이

스라엘의 길 잃은 집의 양들에게 보내졌다. 그 진리는 오늘날에도 이 세상 구석 구석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기독교 정신으로써 설파 되는 신념과 원리의 프레임워크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의 기독교 정신이 예수에 의하여 창안된 가르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기독교 정신은 그 근거로부터 떨어져 나와 그것이 궁극에 도달한 소명의 근거는 무엇이 되는가?

이 책은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위대한 업적이며 비록 독자들이 2장에서 보는 예수의 부활과 승천 특히 뒷부분에 관심을 집중하겠지만 모든 장들이 중요하다. 마을비 삼즈는 명백히 이 논쟁적인 문제에 많은 실마리를 보여주었으며, 그가 제시한 새로운 증거는 정황 증거 이상에 속한다. 우리는 이 새로운 증거를 잘 연구하고 검증해야 하며 성급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편견이 담긴 생각으로 감정에 기울지 말아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예수 승천과 관련하여, 정통적 입장의 약점은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회피하는 기독교 옹호자들이 태도로 증명이 된다. 카르 헤이즐릿은, '문제는, 실제로 승천을 지지하고 상세한 내용을 전파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옹호자뿐만 아니라 비스카운트 엠벌리와 카셀 같은 비판가들도 그에 대한 의문을 회피하고 있다. 모즐리 박사는 증거를 찾겠다는 노력도 없이 승천은 '역사상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R. J. 캠프벨 박사 역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이야기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사실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부활이나 승천과 관련

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F. C. 코니베어는, 현대 사람들은 승천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는 옹호자와 비판자를 막론하고 고어 주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듯하지만 마울비 샴즈가 완전하고 명쾌한 답을 찾은 문제이다.

그것은 문헌과 연구 속에서 살아온 많은 이들에 의해서도 밝혀졌다. 코니베어의 말을 다시 인용해보겠다. ‘전설을 전설일 뿐이라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도 없다. 사람들은 품 안의 어린아이가 아니다. 한 종교의 성직자나 선교자에게는 그런 사실을 많은 강의실에서 들을 수 있고 흔히 연구 중에도 은밀히 알게 된다는 점을 강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

더들리 라이트

(철학박사)

재판 서문

신께서 성자이며 예언자인 무하메드에게 계시한 말씀-코란-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선포한다. 코란에 담긴 이런 명확한 계시에서 약속된 메시아인 하즈라 미즈라 쿨람 아마드(성하)는 예수가 인도에서 죽었다는 놀라운 이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은 메시아의 출현과 관련된 유대-기독교적 관점의 뿌리에 도전장을 내민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신명기 18장 20~22절과 21장 22~23절에 있는 기준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그가 거짓 예언자가 아니거나, 바울의 갈라티아 서한 3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는 유대교로 하여금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현신으로서의 예수를 다시 평가하게 하며, 구원에 관한 기독교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예수는 어디서 죽었을까?>에서 마우라나 샴즈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이후의 사건들에 관한 가장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설명은 예언자 무하메드와 약속된 메시아 아마드가 제시했다고 말한다. 그들의 설명에는 가공의 기적도 신화도 필요하지 않다. 있는 사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에서 벗어나 구약의 기준과

달리 평가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예언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다. .

이 책은 <예수는 어디서 죽었을까>의 제12판이다. 우리는 이번 개정판에 1945년에 발견된 낙하마디 장서에 있는 새로운 증거를 실었다. 이 장서는 50개 이상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다수가 이 놀라운 발견에 앞서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롭게도, 이 문서들 중 몇 종-약 1,500년 전에 묻혔던-은 <예수는 어디서 죽었을까>에 등장하는 이슬람적인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이 추가된 증거를 제12판에 부록으로 실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과 각주를 다시 구성하여 KJV의 모든 내용을 증명했다. 이전에는 없던 곳에 새로운 참조가 덧붙여지기도 했다.

참조문헌을 입증하고 문서를 검토하고 내용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나세르-우드-딘 샴즈, 사이드 사지드, 하산 파예즈 칸, 스예드 파라즈 후사인, 압둘 와하브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전능하신 알라께서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 책의 출판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기여한 노고에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빈다.

은총 가득한 알라신이지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는 불명예에서 구출하고, 이 책의 독자들이 메시아의 영광과 이슬람의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사실들을 앞으로도 계속 밝혀주소서. 아멘.

무니르-우드-딘 샴즈

추가 Walilut-Tasneef

2017년 1월, 런던

머리말

내가 이 책에서 토론하고 싶은 주제는 세 가지의 종교, 유대교,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믿음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가 보편적으로 저주 받은 죽음을 맞게 함으로써 그가 거짓 예언자였다는 의심을 없애려고 하였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실제로 저주의 죽음을 하였다는 점에서 유대인과 같은 의견을 가지나 그들은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성 바울은 갈라디아서 3:13 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라고 말하였다.

신명기 21:23을 참조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

음 이니라' 라고 되어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고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기독교 정신의 중요한 근거로 생각하고 있다. 성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의 첫 사제에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말하였다.(15:14) 이 우세한 믿음에 반하여 신은 코란에서 예수는 그의 사자들 중의 하나이며 그의 자비로부터 그의 반대자에 의하여 저주 받은 죽음에 처해진 자를 이스라엘의 집, 길 잃은 양들에게 보냈다고 쓰여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신성한 예언자처럼 자연사를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며 무의식 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 그의 임무를 완수하고 자연사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우리는 또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오늘날 기독교 정신이 예수의 저주 받은 죽음에 근거한다는 것은 과장된 말이 아니며 그것은 확실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우리의 주장의 진실의 증거로서 복음서를 참조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할 수 있다.

토마스 패인^(a)에 의하면 니세아와 라오디세아의 위원회는 그리스도가 살았던 시대로부터 350년 후에 개최되었다. 신약성서가 제작되고 있었는데 법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식으로 '예'

(a) 이성의 시대

‘아니오’의 투표로 진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아니오’를 제공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이런 식으로 신약성서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그들은 투표로서 책의 내용을 결정하고 신의 말이 아닌 것을 신의 말로 여겼다. 그들은 몇 가지를 거부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외경으로 여기는 것으로 의심스럽다고 거부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신의 말로 여겨지고 있는 것들이었다. 그들이 모든 사람들 즉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다른 식으로 투표를 하였다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투표권으로부터 첨가되는 내용을 그들의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의 말도 아니고 복음주의자의 말도 아닌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 형이 있는 후 수년 뒤에 쓰여졌으며 ‘작가들이 정확한 기록을 하고 신뢰하고 사실인 자료는 골고다의 처형장에서 있었던 사건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형성된 어렴풋한 느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네 개의 설명 중의 수많은 불합리와 모순은 그들의 내용이 의심스럽고 사실인지 아닌지에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들이다.

현대의 연구들은 네 개의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의 제자인 요한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서의 마지막 장의 24장은 증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마태 복음서의 유대인의 원본은 분실되었으며 현재의 번역본의 작가는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다. 다른 두 개의 복음서 마가와 누가도 예수의 사도들이 아니었다.

역사적인 작업이 역사가의 개인적 신념과 정신 세계에 의하여 지대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네 개의 복음서에 언급된 역사적인 다양한 자료, 탄생, 십자가형과 부활 등이 다른 역사적인 사실과 같이 연구되어야 한다. 증거들이 요구되어야 한다. 과거의 사건을 조사할 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로부터 믿을 수 있는 것을 분리하기 위하여 증거를 조심스럽게 추출하고 적절하고 인간의 예지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예수의 십자가나 부활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조사하는데 있어 우리는 복음서가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어떤 이유로든 모든 교파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믿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언급된 사건들이 이 믿음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들이 쉽게 사건의 기록으로부터 생략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이 주제가 가진 중요한 점으로, 나는 독자들이 이 책의 내용을 편견 없이 주의 깊게 읽고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지금 이 책은 여섯 번째로 인쇄될 예정으로, 이전의 서문에 다음을 추가 하고 싶다. 1939년 8월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나는 수십만 장의 전단을 '인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란 제목 하에 작성하였다. 그들 중의 4000권이 거의 런던 시와 시의 교외 지역에 배포되었다. 변화된 상황의 관점에서 전쟁 끝까지 배포를 연기하려고 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문명세계가 다시 자유롭게 숨을 쉬게 될 수 있을 때 5개의 이슬람교의 선교사가 카디안과 인도에서 런던으로 왔

다. 자연적으로 그들은 런던 메를로즈가의 63번지의 파즐 모스크에서 나와 만나게 되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나는 위의 전단을 배포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복사본이 유럽과 미국으로 우송되었다. 전단을 배포하는 것 외에도 나는 ‘예수는 어디서 죽었는가’ 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전단과 책은 런던과 교회 당국자를 동요하게 만들었다. 많은 런던의 신문들은 이 주제에 대하여 취재하였다. ‘윌블던 보로우 뉴스’지는 예수의 무덤 발견에 관한 300자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편집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샬즈 옹은 윌블던과 그 외 많은 지역에 널리 배포되는 수십만 장의 전단에 사실을 말하였다.’ (‘윌블던 보로우 뉴스’ 1946년 2월 22일)

이 기사는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편집자는 1946년 ‘왜 무덤을 열지 않는가?’ ‘십자가의 교훈’ ‘예수는 어디서 죽었는가’ 와 ‘예수의 무덤’이란 제목으로 3월 1일자, 8일자, 29일자 기사를 실었다. 특파원인 엠 제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않았다는 믿음은 샬즈 옹에 의하여 발표된 것으로 지난주의 논제였고 몇 명의 기독교인에 의하여 공유되는 것이다.’

제이 터너는 다음과 같이 썼다.

‘사실상 신약성서에 나온 대로 어떠한 죽음도 부활도 없다면 지금의 기독교의 전체의 근거는 없어지는 것이며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표방하는가’ (1946년 3월 13일 발간). ‘왜 무덤을 열지 않는가’에 대한 대답은 무덤이 카슈미르의 거주자들이 서구 세계의 압력과 강한 요구가 있을 때까지 열지 않고

싶은 예언자의 무덤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책 ‘예수는 어디서 죽었는가’에서 상세하게 이 문제를 다루었으며 실제의 역사적 증거와 함께 문제의 무덤은 바로 예언자인 예수의 무덤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오크 힐 대학의 수석 지도 교수인 스탠포드 라이트 목사는 ‘이슬람교의 영국의 침입’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위클리 저널에 발표하였다. ‘믿음의 생명’(런던)이 전단과 책에 대하여 1946년 3월 15일 발간되었다.

‘며칠 전에 한 학생이 인도인이 선사한 영송을 받았다. 그것은 기독교의 영송이 아니라 모슬렘의 영송이었다. 사진은 이미 런던의 신문에 나와있고 영어로 번역되어있다. 그들의 활동의 증거이다. 그 이해 많은 이 영송들이 배포되었다.’

‘이 영송은 약속된 메시아가 하크라 아마드 (1835-1908)로 화신 되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카슈미르의 스리나가에 있는 ‘예수의 무덤’이라 불리는 것의 사진도 실려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증거의 간략한 메시지와 인도를 여행하다가 죽었다는 내용이였다.’ ‘런던 모스크로 발송된 편지는 ‘어디서 예수는 죽었는가’라는 좀더 자세한 책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128 페이지로 되고 런던 모스크의 마을비 샴즈 옹에 의하여 저술되고 발간되었다. 이 선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슬람교의 이 교파는 아마디아 운동이다. 이것은 몇 달 전에 ‘믿음의 생명’으로 발간된 기사에 관한 것이고 케냐의 선교사 피트 웨이 목사의 편지에 의하면 그가 그 이슬람교 옹을 만났다는 것이다. 이 교파는 이슬람교도인에 의하여 비 정통으로 여겨짐에도 모하메드

의 믿음을 완전히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통적인 모하메드 주의와 밀접하다.’

‘이 책은 기독교 정신에 대한 공격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으며 결국 예수가 인도로 가서 거기서 죽었다는 내용으로 확대 된다. 물론 기독교의 세 가지 점이 공격 받았다. 즉 예수의 죽음,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이 허위라고 증명하였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혼절한 것에 대한 이론에 대하여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고 그의 제자를 만났고 인도로 방랑하였으며 결국 거기서 죽었다는 내용이다.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써 지속되는 부끄러움은 우리 나라가 이런 종류의 이슬람교의 침입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인의 참을 성은 그와 같음에도 이러한 선전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하여 다시 무장을 하여야 한다.’

‘정신 뉴스’ (런던)은 1946년 4월 20일 ‘여기 카슈미르의 스리나가의 카니아르 가는 많은 이슬람교도인들에 의하여 예수의 무덤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 그들은 조사를 원하고 있다.’라는 설명으로 예수의 무덤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신문은 또한 예수의 죽음에 관한 아마디아의 증거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다. 그는 그의 기사를 다음과 같이 쓰기 시작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교회들에 의하여 설교 된 것과는 달리 이 사진과 이 해석을 그것이 예수가 골고다에서 죽지 않았다고 믿는 많은 심령주의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역사적인 관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독자들은 내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이 신문도 〈예수는 어디서 죽었는가〉의 논쟁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은 말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이는 고고학자들에게 기회이다.’

1946년 5월 11일자 〈정신 뉴스〉에서 편집자는 이렇게 썼다.

‘카슈미르의 스리나가에서 최근에 예수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나왔는데, 통신원들로부터 아주 많은 소식을 듣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슬림 종파의 그런 진술을 지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한다. 다음은 우리가 선별한 의견이다.’

아래는 그 중 두 가지 의견이다.

뉴캐슬-온-타인의 히톤 시의 조지 펄프씨는 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을 여행하여 카슈미르에 정착하고 스리나가에서 죽고 거기서 묻혔다는 이슬람교 교파의 주장에 매우 관심이 있다. 이것은 실제로 수년 전에 잘 알려진 신령사의 인도에 의하여 트랜스의 상태에 있었던 그의 말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동화와 같은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없었었다. 만일 그 신령학자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 많은 정통파의 기독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그 당시의 예수를 오늘 날 우리들이 쉽게 부르는 스미쓰라고 칭하면서 시작했다. 나 자신의 주석은 ‘예수는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진정한 이름은 조수아 였다. 더 나중에 복음서의 설명이 편집되면서 그를 ‘아이주스’라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렀으며 이미 예언가 조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조수아 II 라고 불러야 하면 혼란이 오기 되기 때문이었다. 이점에서 나는 정당화되어진다고 생각한다.’

안내자는 말하기를 열정의 이야기가 네 명의 다른 사람들의 재판과 죽음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반역자 도둑과 그 밖의 여행하는 교사 사이였다 (내 기억으로 인용하는 것으로). 모두 조수아라는 이름을 가졌었다. 이것은 나중의 연대기에 의하여 혼란을 가져오고 그 이야기의 사람들의 재판과 죽음을 혼란 시켰다. 실제적으로 예수는 황혼의 시기까지 살았으며 인도의 다른 곳을 여행하였다. 그러나 안내서에 따르면 이것은 많은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랑스러운 주 그리스도의 위대함의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의 결론적인 것은 ‘십자가의 구세주’ 이야기는 순전히 5세기, 6세기, 7세기를 통하여 교회 저자들에 의하여 날조된 것이며 그 당

시의 사람들은 십자가 형을 받은 것이 언제인지를 물었었는데 교회 당국은 두려움과 경이감을 창조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세계는 정통파의 높은 ‘신성한 금요일’이라 부르는 것과 구원자의 이야기로서 안착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되었다.’

NW11 의 히쓰클로프트에 사는 클라크 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수의 죽음’이란 기사에 관하여 머레이스의 ‘인도, 버마와 실론의 책자’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물 파테퍼의 모스크에 예수를 언급하였다.. 모든 기록내용은 존 엘리스에 의하여 ‘미타-울-타아리크’에서 발견되었고 인도를 여행한 예수에 대하여 시작되는 ‘하페드-페르시아의 왕자’라는 책이 발표되었다.

‘자유로운 사상가들’

아래는 내가 런던에서 잘 알려진 1946년 6월 2일 <자유로운 사상가들>이라는 일요일자 신문의 기사에서 발췌한 것으로 ‘진전 없는 기독교의 증거’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주요 주제는 캐스톤 홀에서 개최된 기독교인 증언 협회의 런던 주교 연례회의에서 의장의 연설문이다.’

청중들은 약 50명이 있었으며 대부분 나이가 지긋했고 여성

의 비율은 5명 중 1명 꼴이었다. 기독교의 믿음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그들이 그런 명예를 가장 먼저 보류하기로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분야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단지 그러한 종교적 믿음을 공격할 수도 없다. 우리는 경쟁적인 종교를 보고 있다.’

이것은 나쁜 징조이며 이슬람교 세력은 우리의 성역을 침범하려고 준비하고 있는가? 불교가 성행할 것인가? 아니다. 이 모든 엄숙한 경고는 주교가 예수의 무덤이 있다는 인도의 사원의 사진이 실린 작은 책자를 동양인들이 지하철 역에서 배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주교는 묘한 어조로 말했다. ‘무덤을 발굴하면 그 유적이 완전히 과학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은 또 다른 종교적인 문제이며, 강력한 형태의 선전이다.’

그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나는 관련된 책을 한 권 갖게 되었고 그 제목이 바로 <예수는 어디서 죽었을까>였다. 저자는 샴즈이며, 워블턴의 모스크에서 발간된 것이었다. 예수의 역사성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관심이 되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않았다는 관점이다. 이것은 도마 헨리 헉슬리에 의하여 취해진 관점이기도 하며 ‘케리스의 책’이라는 죠지 무어의 픽션에서도 나왔던 것이다.

결론적인 전단

1946년 5월 나는 아래의 전단을 수 천장 인쇄하였다. 그리고 우편을 통해 교회 당국으로 보내고 런던에 배포하였다.

‘교회에 내미는 도전장. 예수는 자연사를 하였고
인도에서 그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최근에는 십만 장의 전단이 런던에 배포되었다. 전단의 요약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며 죽음을 면하여 인도로 갔고 거기서 자연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무덤은 인도에 있으며 인도의 편집의 카디안의 아마드 예언자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그 사람은 예수의 두 번째 도래에 대한 예언을 충족하는 것이었다.

몇몇 신문은 그것에 대하여 기사화하였고 현지를 취재하였고 다른 신문은 무덤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게다가 나는 수천 통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편지를 받았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디서 죽었는가’ 라는 책이 보내졌다. 이 책에서 나는 상세하게 이 문제를 다루었으며 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즉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신의 다른 예언자들처럼 자연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많은 독자들은 그것을 믿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였다. 한 독자는 ‘이 설명이 정말로 있음 직하다’ 라고 하였으며 다른 저자는 ‘비정통적인 기독교인으로 그리고 진실의 추구자로 그것은 개인적인 신념을 지지하기에 호소력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을 읽고 매우 흥미롭고 납득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다른 책자를 요구하면서 ‘매우 믿음이 간다. 나는 진실로 믿는다. 나는 이슬람교를 믿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특히 로마 카톨릭은 더 이상의 진실을 원하는 대신에

1. 발견된 것은 허위이다
2. 성경을 모독하는 것은 되이고 신의 세계의 모독이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다.
4. 그는 구원을 위해 살아있다.

라고 하였다.

또한 ‘당신은 대개 자기 허위적인 광신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속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확인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것이다.’

목사들 중의 몇몇은 과도하고 너무 격분하여 배포자의 손에서 전단을 낚아 채어 찢어버리려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였다. 그들의 행동은 어처구니 없으며 절대로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반대자들에 의하여 최악으로 대우를 받았다.

우리는 종교에 관하여 서로에 대하여 적대적이 아니다. 우리 이슬람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예언자로 믿고 있으며 다른 위대한 예언자와 같이 그 역시 반대자들의 손에 고통을 당하였고 결국 저주 받은 죽음을 당하는 운명이었다. 부활, 승천과 그가 하늘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살고 있다는 주장은 허위인 것일 뿐이다.

무하메드 (신의 평화와 축복이 내려진) 는 진정한 신의 완벽한 율법인 예언자였다. 그의 작문에 서술된 모든 좋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슬람교의 가르침이다.

어떤 주교나 목사 또는 교회 당국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를 앞으로 나서게 하여 내 책 ‘예수는 어디서 죽었는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항상 내 주장을 증명하고 공개적으로 어떤 점에 대해서도 논쟁할 수 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도전이다. 결국 나는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 맹목성을 따르지 않는 평균적인 영국인들에 대한 나의 존경을 표하고 싶다. 그들은 결국 정신의 평화와 평온을 가지는 사람이다.

끝으로 나는 여기서 카라치 대학의 심리학과 학장인 카지 아슬람의 말을 인용하여 결론을 내리고 싶다.

‘마울비 샵즈는 중요하고 흥미로운 책을 집필하였으며 이는 아마도 웅이 성공적으로 서구 사회에 뿌리를 내린 이슬람교를 위한 노력의 역사에서 지표를 증명하였다.’ (‘썬라이즈’ 1946년 8월 3일)

‘리뷰’지에 발표된 희망은 신의 가호로서 실현될 것이며 어디서나 우리의 선교인들이 서구 사회에 우리의 사상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네덜란드판은 1959년 네덜란드의 클루워 디벤테에 의하여 발간되었고 말레이시아 버전은 1958년에 발간되었다.

프랑스 판은 준비 중에 있으며 곧 출간될 예정이다. 우리 기독교 형제들이 신의 승배를 전파하기 위하여 보낸 인간을 우상화하지 않도록 전능하신 신께 기도를 드린다.

J. D. 샴즈

1965년

서 문

1945년, 마우라나 J.D. 샴즈는 〈예수는 어디서 죽었는가〉를 펴내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 책은 이미 여섯 차례 인쇄를 거듭했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 책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그에게 평화를) 명백한 사건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벌어진 사실을 이 책에서 매우 쉽게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그 주제에 관한 더욱 합리적인 토론을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방대한 교육을 받은 학자인 마우라나 J.D. 샴즈는 이슬람교의 아마 디야 운동을 확산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뚜렷한 이력을 쌓았고, 1936년부터 1946년까지 런던 사원의 이مام으로 봉직했다. 이 책은 그가 영국에서 재임하는 동안 집필되었다. 그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오래된 관심으로 인해 이 책을 월등한 품질로 펴내고 싶다는 생각을 말했다.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으로 이번 책은 1978년 6월에 런던에서 열릴 예정인 ‘예수를 십자가로부터 구하기 위한 국제 회의’와 때를 맞추어 저자의 그런 바람에 충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판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은 저자의 장자인 사라-우드-딘 샴즈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사실을 말해두고 싶다. 우리의 영원한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과 존경을 보낸다.

이번 인쇄에 대한 개정 내용은 제7판에서 부록으로 첨가될 것이다.

M. D. 샴즈
런던 사원 이مام 대리
1978년 4월

예수는 어디서 죽었는가?

1 장 복음서의 내용

예수의 기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였을 때 그는 그의 개인적인 안전에 대한 모든 대책을 하였었다. 한 때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구세주 예수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¹ 명령하였다. 또 그의 적들이 그를 사형에 처하였을 때에는 그는 그가 이스라엘 인들 중과 같이 있기를 포기하고 이웃의 황야의 나라로 가버렸다.² 그는 자신을 숨기기조차 하였다.³ 그가 그의 적들이 강제로 그의 활동을 멈추게 하려는 결정을 알았고 심지어 가능한 한 그를 죽이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들만이 아는 피난처로 숨어 버렸

1. 마태 복음 16:20

2. 요한 복음 11:53, 54

3. 요한 복음 12:36

다.⁴ 그리고 그는 신의 계시로 인지 혹은 유다의 변절하는 충성심으로 한때 그에 의하여 배신을 당하게 되어 그는 곧 체포되었다. 그는 그 당시 어디에서든지 피난처를 발견하지 못했었고, 단지 그는 죽음의 십자가로부터 그를 구함으로써 그 적들의 계획을 좌절 시킬 것을 알 수 있는 전능하신 신의 문턱에서 그의 이마를 조아리고 비참하게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

마태 복음 25장, 마가 복음 14장, 누가 복음 22장에 나오는 설명에서 예수는 그의 제자 몇 명과 겿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그들에게 기도를 하도록 하였지만 대신에 그들은 잠이 들고 예수가 그들을 두 번이나 깨웠어도 깨울 수 없다고 나와있다.

그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스스로를 낮추어 기도하였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⁵

이런 식으로 그는 극진한 기도로 그날 밤의 대부분을 보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자 그의 기도를 받아들이는 신호로 생각하고 그는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였다.

그의 땀이 피의 방울처럼 떨어졌다.⁶

예수의 이 기도의 주먹은 그가 죽음으로부터 구해지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신의 길을 위하여 그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구자로서의 신의 뜻이 그의 적들의 의지와는 반대로 완수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예수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

4. 요한 복음 18:1,2

5. 마가 복음 14:36

6. 누가 복음 22:44

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한 것을 내가 이해하는 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이 신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결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적들이 그의 입으로 마시게 할 죽음의 컵이다.

옮겨진 잔

우리는 위에 언급된 예수의 기도가 신이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믿는다. 우리의 믿음은 다음에 근거를 하다.:

예수 자체는 신이 그의 기도를 들었다고 주장 한다. '아버지, 당신이 들으시고 내가 당신이 나를 항상 들으신다는 것에 감사하옵니다.'⁷ 그는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청하고 신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였다.⁸ 또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⁹ 라고 말하였다. 이제 예수 자신의 기도조차도 그러한 열정과 진중함과 함께 분노 속에 외쳐지고 또한 그의 십자가 형에 대한 중요한 사안도 무시되며 그의 제자에 대한 연결이 하나님에 의해 응답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신이 그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 밖에 없으며 그를 '저주 받은' 죽음으로부터 구했다.

7. 요한 복음 11:41-42

8. 마가 복음 11:24

9. 마태 복음 7:9-10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하여 시편에도 다음의 구문이 인용 된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¹⁰ 또한 시편 34에서 ‘올바른 사람에게 불행이 겹쳐도 야훼께서는 모든 곤경에서 그를 구해 주시고 뼈 한 마디도 부러지지 않도록 고이고이 지켜 주신다.’¹¹

요한 복음 19:23, 36과 시편은 예수에 적용되었다. 두 번째의 것에 관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두 도적들의 수족이 예수의 것과 부러졌지만 예수는 다치지 않았다. 이처럼 신은 그의 기도를 듣고 그를 ‘저주 받은’ 죽음으로부터 구하였다.

예수 자신은 신이 그의 기도를 받아들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으며 그는 그의 무시무시한 조건을 깨달았을 때 즉 도망갈 수 있는 조금의 기회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알고 예수는 절망적으로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¹² 라고 처음으로 의심을 가지고 울부 짖는다. 신은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그의 구성원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신이 실제로 그를 저버렸다면 결과

10. 시편 22:16-24

11. 시편 34:19-20

는 완전히 그의 말이 변화가 된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 두고 제각기 자기 갈 곳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아니 그때는 이미 왔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¹³

성서의 모든 부분은 만장 일치로 하느님이 올바른 사람들의 기도는 들으시고 사악한 또 그의 적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고 써있다. 예를 들어 시편 18:6과 66:18-20과 에레미아 29:13과 욥 22:27를 보라. 또한 우리는 요한 복음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죄인의 청은 안 들어 주시지만 하느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의 청은 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¹⁴ 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이 예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였다는 것을 거부하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예수가 죄인이며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와 같은 사람이 신의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신의 모독이라고 믿게 된다. 이것은 히브리서에는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 주셨습니다’¹⁵ 라고 써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계획에서 실패하였고 하느님은 예수를 구했으며 예수는 올바른 사람이고 신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저주 받은’ 죽음으로부터 구하였다.

12. 마태복음 27:46

13. 요한 복음 16:32

14. 요한 복음 9:31

15. 히브리서 5:7

예수는 저주 받았는가?

예수는 그의 적들에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하늘 나라의 문을 닫아 놓고는 사람들을 가로 막아 서서 자기도 들어 가지 않으면서 들어 가려는 사람마저 못 들어 가게 한다.’¹⁶ 라고 말하였다.

또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¹⁷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예수를 ‘저주 받은’ 죽음을 제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성 바울은 그것을 증명하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거짓 선지자이며 그들이 그를 거부하는 것이 옳으며 따라서 그것으로 저주 받아야 된다고 결정적으로 입증하였다.

‘저주 받은’의 실제의 의미에서 볼 때 저주 받은 인간은 선지자도 신의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그의 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그의 가슴은 신의 사랑과 지식이 없게 되지 않는 한 저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사탄과 같이 오류를 범했거나 신의 적이었음에 틀림없고 따라서 사탄은 ‘저주 받은 것’으로 말하여진다.

그리스도와 같은 올바르고 신성한 사람은 세계의 빛으로 신의 애지자이며 신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으로 그를 신의 저주 받은 자로 신과는 관계가 없고 실수와 불신에 의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가 저주 받은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가능성을 부정해야 한다.

16. 마태 복음 23:13

17. 마가 복음 16:16

성인들의 도래

세 번째 주장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마태 복음 27장에 있다.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거룩한 도시에 들어 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¹⁸ 이러한 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면 그러한 특별한 예상하지 않은 초 자연적인 사건을 알 수가 없으며 어떤 것도 입증할 수가 없다. 마태는 그것을 언급한 유일한 복음 작가이며 나머지 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대인이 이 부활한 거룩한 인간들을 그리스도의 진실로 의문시하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를 보증하고 유대인은 더 이상 그러한 질문 없이 받아 들였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토마스 패인의 글을 인용 한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 다음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마태서의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성인들이 다시 소생한다고 하였으며 도시로 돌아 온다고 하였다. 그 후의 말들은 누가 그들의 보았는가 등은 그들 자신을 말하기가 어렵고 그들이 별거 벗고 나왔는지 어떤 자연 상태로 왔는지 그 성인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들이 옷을 완전히 입었는지 그들의 옷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들이 이전의 습관을 가졌는지 이전의 부인, 남편, 재산들을 요구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되찾는지 그들이 그들의

18 마태 복음 27: 52-53

소유물의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하였는지 그들의 경쟁자에 대한 형사적인 소송을 하였는지 그들이 다시 죽는지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무덤으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 아주 이상한 것은 성인들의 군대가 다시 소생하고 아무도 그들이 누군 인지를 누가 그들을 보았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없었으며 이 성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우리에게 말해지듯이 선지자들인 이전에 이러한 것을 예언하였다면 그들은 많은 것을 이야기 해줘야 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보든 것을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사후의 예언을 주석과 해석을 달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모세, 아론, 요수아, 사무엘과 다비드 였다면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침례교의 요한이나 현재의 시대의 성인들이라면 모두들 그들을 알 것이며 그들은 모든 다른 사도들 이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이 성인들은 요나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¹⁹

틀림없이 우리가 마태 복음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되지만 진실은 이 구문이 약속된 구세주 아마드로서 어떤 정의로운 사람에 의하여 보여지는 관점을 나타내며 그러한 관점은 요셉이 파로아의 꿈을 해석하였듯이 해석될 수 있다.

아라비아의 책 타티룰아남 (페이지 289) 에서 같은 주제에 대한 권위 있는 지도자에 의하여 600년에 걸친 꿈에 대한 해석은 매우 흥미롭다. 압둘가니 나블루시 옹은 ‘어떤 사람이 꿈에서 죽은 자가 그의

19. 토마스 페인의 “이성의 시대”

무덤으로부터 소생하여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면 이것의 해석은 감옥에 있는 위대한 사람이 감옥에서 해방되어 면죄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처럼 부활이 보여지는 것이며 추론은 명백히 그의 죽음은 명백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의 가해자들이 그가 죽었다고 믿었다는 혼란스러운 결론이 있을 뿐이다. 요약해서 위의 관점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죽지않았지만 무덤의 죄인처럼 그가 안전한 장소로 도망갔다는 것을 알리기를 두려워하는 신의 해석인 것이다.

선지자 요나의 기적

예수는 유대인에 의하여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라는 요청을 받고서 '악하고 절개 없는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기적 밖에는 따로 보여 줄 것이 없다. 요나가 큰 바다 괴물의 뱃속에서 삼 주야를 지냈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땅 속에서 삼 주야를 보낼 것이다'²⁰ 라고 하였다.

예수의 이 말은 하나의 또 모든 질문을 해결해 준다. 유대인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고 그는 죽음을 면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를 죽음에 몰아넣었으나 신은 그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이처럼 그의 도주는 유대인에 대한 기적이다. 예수의 말은 그 기적이 보여지는 방법과 그가 그의 살인적인 적의 손으로부터 구해지는 방식을 보여준 것이다. 그는 죽은 자와 같이 지구의 뱃속에 갇혀 있었고 그의 경우는 요나의 고래 뱃속과 같은 것이었다. 요나의 경우 그 속에서 죽지않고 살아 남았다. 이와 같이 예수도 지구의 밑바닥에서 살아 남았다. 요나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예수는 분명히 그가 도

망갈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그의 무덤을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갔고 살아서 다시 나왔다. 예수의 예언은 그가 십자가에서 ‘저주 받은’ 죽음을 당하였다는 말을 단숨에 쳐 내는 것이었다.

빌라도 총독의 부인의 꿈

‘빌라도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²¹ 하더라

이 경고는 신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그의 부인을 통하여 보낸 경고로서 재판의 시작에서 분명한 신이 예수의 무죄를 믿는다는 신의 뜻을 알고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아라²²를 나타낸 것이다. 그때 신이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총독의 부인에게 보여준 이 꿈의 목적은 무엇이이었을까?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²³ 이와 같이 신은 그의 의지를 총독의 부인을 통하여 그에게 알렸다. 빌라도는 이러하므로 빌

20. 마태 복음 12:39-40

21. 마태 복음 27:19

22. 마태 복음 27:18

23. 마태 복음 2:13

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케사르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케사르를 반역하는 것이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밀히 모든 가능한 것을 하여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구하였다. 그는 유대인에게 안식일의 늦은 밤 이후에 십자가에 매는 것을 유대 법에서는 금한다는 것을 알고 금요일의 늦은 시간까지 재판을 연장하였다. 십자가 형을 위한 시간은 너무 짧았고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단지 죽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3시간을 너무 짧았다.

십자가 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대의 대장은 예수에게 커다란 동정심을 보였다. 누가에 의하면 그의 정직함을 믿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단 두 도적의 다리를 부러뜨린 군인과 달리 예수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다. 게다가 분명히 예수와 무슨 관계도 안 보이는 한 사람이 장면에 성급히 등장하였다. 그는 부유한 사람으로 아리마테아의 요셉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의 두려움의 비밀을 간직한 비밀의 제자로서 요한의 복음서에 설명 된다. 이 아리마테아의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갈 것을 빌라도에게 간청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의 관습과는 반대로 이 새로이 등장한 사람에 대한 조회도 없이 빌라도는 그에게 그것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그와 니고데모라고 불리는 의사는 모든 계획대로 그 시신을 가지고 갔다. 그들은 그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동 묘지에 묻지 않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무덤으로 옮겨가 정원의 바위로 입구를 막았다. 거기서 그들은 그를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게 안식일의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였다. 그가 구원된 뒤에 무덤

24. 요한 복음 19:12

으로부터 나왔다. 이와 같이 빌라도가 성공적으로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계획을 실행하였다고 보며 신이 총독의 부인에게 전술한 예시를 보여주었던 그 목적을 완수했다.

2 장 판 결

정황적인 증거^a

십자가 위에서 ‘저주 받은’ 예수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관해서 한 편으로는 많은 이슬람교도와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기독교도 사이에 커다란 논쟁이 있었다. 이슬람교도는 ‘저주 받은’ 죽음을 신의 위대한 사자 중의 하나인 예수에 대한 큰 모욕으로 여기고 기독교도는 인간을 위한 신의 선물로 여겼다. 기독교도가 이슬람교도에 대한 법정에서의 고소와 그 소송은 높은 지식을 갖는 2인의 독립 재판관에 의하여 심리된 적이 있었다. 심리 후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C 라는 기독교도 대 M 이라는 이슬람교도

주제: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과 그의 부활

a. 판결의 형식으로 정황적인 증거라고 썼다. 이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관한 소송이다. 원고 C는 예수의 ‘저주 받은’ 죽음을 부인하는 이슬람교도에 대하여 4월 8일 소송을 제기 하였다. 양방의 변호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재판에서 결정되어 한다.

1.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2. 그는 죽음으로부터 돌아왔는가?
3. 그는 천상의 육신이나 살과 정신으로 만들어진 육신인가?

심리는 이들이 걸리고 그 동안 양방은 그들의 관점을 주장하였다. 양방의 말을 듣고 찬방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우리는 편파적으로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증거를 제시한 C의 증거물은 네 개의 서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성한 목격자는 성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으로 전지전능한 신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조사 당시 이 문헌은 법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증인들의 서명이 없었으며 신의 영감 하에서 쓰여졌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무시할 수 없는 논쟁의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여겨진다. 위의 논쟁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를 보자

논쟁점

세 가지 논쟁이 한번에 결정될 수 있도록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논쟁에서의 C에 대한 증거는 매우 모순적이다.

네 명의 증인 자체들이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에서 차이가 난다. 그 차이의 중요 점은

1. 배신자와 그의 동조자들: 마태와 마가는 유다 (예수를 배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고 민중들의 연장자이며 지도자들이 계세마네로 갔다고 하였다. 그러나 누가는 제사장의 우두머리와 지도자들 자체가 예수를 체포¹하였다고 한다.

2. 어떻게 예수가 체포되었는가 - 마태, 마가 누가는 ‘열 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² 그러나 요한은 체포의 장면을 다르게 말하고 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숙들을 데리고 등과 화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1. 누가 복음 22:52

2. 마태 복음 26:47-49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였다.³

3. 베드로의 공격 시간 - 누가와 요한은 예수의 체포 전에 대사장의 하인의 귀를 베어냈다고 하였으나 마태와 마가는 그의 체포 이후에 베어냈다고 한다.
4. 유다의 최후 - 마태는 유다가 스스로를 후회하고 대사장에게 30개의 은전을 돌려주었다고 하였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며 대사장이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 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둬서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다.⁴ 그러나 사도 행전에서는 누가가 썼던 것처럼 우리는 베드로

3. 요한 복음 18: 3- 8, 10, 12

4. 마태 복음 27: 3-8

가 그는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샅으로 받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왔다⁵고 말하였다.

5. 십자가를 지는 것: 마태와 마가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⁶ 라고 하였고 요한은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⁷ 라고 하였다.

6. 예수의 증거: 이 네 명의 증인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예수를 불렀던 짧은 말에서도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마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인 예수이다. (27:37)

마가: 유대인의 왕이다. (15:26)

누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23:38)

요한: 나사렛의 예수, 유대인의 왕. (19:19)

7.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두 사람: 마태와 마가는 예수와 함께 매달려 있던 도둑들이 또한 그를 구원하였다고 말하지만 누가는 그들 중의 하나가 그에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

5. 사도행전 1:18

6. 마태 복음 27:3-8

7. 요한 복음 19:17

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였다.⁸ 그리고 요한은 세 명의 십자가 형 죄인 사이의 중요한 대화를 암시하지조차 않았다.

8. 십자가 형의 시점: 마가는 때가 제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⁹ 하였고 요한은 제 5시에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예수를 넘겨 주었다고 했다.¹⁰ 마태와 누가는 단지 제 6시에 날이 어두컴컴해지고 제9시에 이르렀다고 언급하였다.

9. 예수는 그의 영혼을 어떻게 포기 하였는가.

마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¹¹

마가: 큰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¹²

누가: 예수께서 큰소리를 지르시자 아버지 나의 영혼을 당

8. 누가 복음 23:39-43

9. 마가 복음 15:25

10. 요한 복음 19:14

11. 마태 복음 27:50

12. 마가 복음 15:37

신에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떠나시다¹³

요한: 예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이제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시며 숨을 거두셨다. 라고 하였다.¹⁴

10. 백인대장은 언제 예수가 올바른 사람이며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는가?

마태: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며 몹시 두려워하였다.¹⁵

마가: 예수를 지켜 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말하였다¹⁶

누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이 사람이야말로 죄없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말하였다¹⁷

13. 누가 복음 23:46

14. 요한 복음 19:30

15. 마태 복음 27:54

16. 마가 복음 15:39

17. 누가 복음 23:47

11. 아리마테아의 요셉은 누구냐?

마태는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였다(27:57). 마가(15:43)와 누가(23:50-51)는 신의 왕국을 기다리는 존경하는 자문자라고 하였고 요한은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의 두려움으로 비밀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19:38).

12. 시신 매장: 부자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구하기를 청하며 빌라도는 어떤 조사도 없었다고 마가와 요한은 말하고 있지만 요한은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백인대장의 조사가 있는 후였다고 하였고 마가와 누가는 시신을 거두어 가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혼자 시신을 린넨 천으로 싸고 그가 만든 새로운 무덤에 안전 장치하고 바위로 가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시신을 무덤에 안전 장치하였다고 했다.

또한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형 후의 부활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1. 누가 무덤으로 제일 먼저 갔으며 그때는? 마태는 주일의 첫째날 새벽이 되어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갔다고 했으며(28:1) 마가는 태양이 떠오르는 이른 아침으로(16:2) 누가는 매우 이른 아침(24:1) 요한은 아직도 어두운 아침으로 표현하였다. (20:1) 그리고 마태(28:1)와 마가(16:1)는 두 여인의 마리아가 있다고 하였으며 누가

(24:10)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안나 그리고 마리인 예수의 엄마와 다른 여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마리아 막달레나 혼자서 갔다고 하였다. (20:1)

2. 지진과 천사에 대해서 마태는(28: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말하였다. 다른 세 사람은 이런 지진과 바위에 대한 자연현상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았다. 돌이 굴러 내려와 그 위에 앉았다는 설명에서 마가(16:4-5)는 두 여인 마리아들이 와서 돌이 구른 것을 발견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오른 편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어 그들이 놀라게 하였다고 설명하며 누가(24:4)는 두 남자가 앉지 않고 서있다고 하였으며 요한(20:12)은 그들은 두 천사였고, 무덤에 한 사람은 머리 옆에 한 사람은 발 밑에 앉아 있었다고 하였다.

3. 예수가 다시 일어난 뉴스를 알린 사람은 - 마태(28:6)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라고 하였으며 마가(16:6)는 무덤 안에 앉아 있던 남자가 그런 말을 하였다고 했다. 누가(24:4-6)는 서있던 두 남자가 무덤에 들어와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당황하는 두 여자에게 그는 여기에 없으며 살아났다고 말한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요한(20:1-15)은 전적으

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쓰고 있다.

4. 예수의 메시지와 그것을 전한 사람은- 마태(28:5-10)는 돌 위에 앉아 있는 천사가 두 여인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였다고 알리라고 하였으며 그는 당신 보다 먼저 갈릴레이로 갈 것이며 거기서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가(16:7)는 무덤 안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썼으며 누가는 두 남자가 제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한(20:17)은 예수 자신이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다라고 하였다.
5. 이 메시지를 전달하였는가- 마태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29장 16절에 그렇게 전달하였다고 하였

다. 그러나 마가는 그들은 놀라서 떨면서 나갔지만 아무에게도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누가는 여인들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였다 하였고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가 그녀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고 하였다.

6. 그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았는가 - 마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마가는 그들이 그가 살아있고 그녀를 봤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였다. 누가는 그들의 말은 공상과 같았고 믿지 않았다고 하였고 요한은 이점에서 침묵하였다.
7. 예수가 그들은 어디서 제일 먼저 만났는가: 마태는 메시지를 듣자 11명의 제자가 갈릴레이로 가서 예수가 가르쳐준 산으로 올라서 그에게 경배하였지만 몇 명은 의심하였다고 썼으며(28:16-17) 마가는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몸을 나타내시고(16:9)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16:12)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 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다라고 썼으며(16:14) 누가는(24:33-36) 마태를 분명히 반박하면서 그가 부활하던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11제자를 만나셨다고 썼다. 요한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와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썼다.¹⁸

18. 요한 복음 20:19

네 명의 원고 측의 증인의 진술로부터의 예들로 다음을 결론 지었다.

1. 이 진술들은 신의 말도 아니며 신의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네 가지 설명의 아무것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 설명이나 눈으로 직접 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예수의 체포 시점에서 대사장들이 있었다고 하였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부인하였다. 한 사람은 예수가 만날 장소를 갈리레이의 산으로 지명하였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만났다고 하였다. 이 설명들은 제자들에 의하여 만날 장소를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들 만났기 때문이다. 또한 유다에 대해서 말한 것도 유다가 예수의 손에 입맞춤을 하면서 체포하도록 하였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여서 체포되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증거는 자가 당착적이다. 따라서 이 설명들은 눈으로 본 목격자의 설명도 아니고 청취를 하여 얻은 것도 아니며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없다. 예수가 체포되어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였다는 진술은 예수의 제자들인 이 작자들이 체포 시점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가였다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사실일 수가 없다. 대사장의 궁전까지 예수를 따라간 베드로는 세번씩이나 거짓말을 하였다고 고백하였다. 따라서 위의 설명 중 어떠한 것도 예수의 제자들이 죽음과 부활의 시점에서 예수 곁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

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 증거가 원고가 주장하는 구원의 세계를 위한 중요한 점을 증명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이제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피고측의 진술의 중요 점 즉 예수를 저주 받은 죽음의 비난에 대하여 변호하고 그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무의식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점을 나타내겠다.^(a)

1. 3시간이란 것은 죽음을 야기하기에 불충분하다. 때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까지 죽지 않는다.^(b)
2. 빌라도는 예수가 곧 어떻게 죽을까를 의문스러워 했으며²⁰ 그 질문은 죽음에 이르기에는 시간이 걸린 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빌라도, 요셉과 백인대장 셋 모두는 예수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그를 죽음으로부터 구하기를 원하였다.
3. 예수가 살아난 그 시간과 공간 속의 두 명의 도적들은 죽이기 위하여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는 왜 그런 형벌을 받지 않았다.²¹

(a). 이전 장에서 이미 다루어진 논점이다.

(b). 수위장들은 백인 대장과 함께 시신을 가져가는 것을 막았다. 시신을 방치할 필요가 있었는데, 적어도 3일 동안 그렇게 하여 결과적으로 아사 되어 죽게 만든 것이다. (요셉 H.E. VIII 8, 3) 그러나 이 수위장은 누가 고통 받는 자를 데려가고 그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해로드 VII 194) 실제로 요세푸스의 친구는 3일을 넘기고 살아 남았다.

20. 마가 복음 15:44

21. 요한 복음 19:32-33

4.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²² 고대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명의 표시로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볼 수 있다.
5. 십자가에서 끌어 내려진 후에 그의 적들이 아니고 그의 친구들이 그의 시신을 가졌다.²³
6. 그의 친구들이 그의 시신을 재빨리 확보하여 그를 분명히 어떤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갔을 때 그는 죽지 않았었다.
7. 예수가 무덤에 서있는 군인에 의하여 내려지고 그들이 그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의 죽음을 확인 하였다면 그들은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경우 문제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 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이란 말은 우스운 말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가 살아난 것을 알게 되면 다시 그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군인은 예수의 죽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⁴
8. 빌라도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그가 구원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실제적으로

22. 요한 복음 19:34

23. 요한 복음 19:38

24. 마태 복음 27:64

직접적인 비밀적인 도움을 예수에게 주었다. 그의 부인의 미래에 대한 에너지가 예수를 그의 적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9. 군인들과 백인 병정들은 예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으므로써 예수를 죽음에서 면하게 하였고 예수를 지키는 동안 잠을 잤다는 것은 그들의 대장들과 예수를 동정하는 자에게 똑 같은 감정이었다.

10. 예수가 묻힌 무덤은 돌로 가리워져 있는데 이는 질식하지 않도록 함이었다. 헌신적인 친구가 그를 보살피서 그가 의식을 되찾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일요일, 안식일 다음날 예수는 자유로이 나타났다. 그러나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 예수는 거기에 없었다. 돌이 거두어지고 시신은 무덤에 없었다. 짧게 마리아에게 나타난 후 그는 동산지기로 보이게 했다.²⁵ 아마도 동산지기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유대 사람들에게 들켜 다시 체포되지 않으려 했다.

11.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갈릴레이의 먼 지방을 떠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이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였고 유대인들은 이를 알고 곧 그를 찾아 나섰다.²⁶

25. 요한 복음 20:15

26. 마태 복음 28:7

12. 그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다시 체포될 것에 모든 주의를 다하였다. 그는 제자들만을 만났으며 비밀히 길을 피하여 만났다. 그들과 오래 머물지 않았으며 공중에게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²⁷ 그가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그들의 앞에서 그것을 먹었다.²⁸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 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면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라고 하였다.²⁹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였다.³⁰

그리고 ‘예수의 연고’ 혹은 ‘사도들의 고약’이 예수에 의하여 만들어져 제자들이 그의 상처를 치료하게 하였다. 이 모든 요인들은 분명히 그의 무덤 안에서 상처를 말해준다. C 라는 증거와 비교 할 때 우리는 M의 경우 좀더 적절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발견 사실의 결과 우리는 원고 C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있을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정상적인 사람은 원고의 네 명의 증인

27. 사도 행전 10:40-41

28. 누가 복음 24:41-43

29. 누가 복음 24:38-39

30. 요한 복음 20:27

의 진술들이 모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온 뒤에 그는 죽지 않았었다. 그는 기절하였을 뿐이다. 후에 그는 회복하였다. 그가 진흙이 묻은 인간의 몸으로 무덤 밖으로 나왔다. 원고C는 예수가 보통의 육신을 갖고 영혼의 육신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가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이처럼 그는 예수가 마리아 막달레나가 동산지기로 변장시키려고 가져온 옷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무슨 옷인가를 입고 있었으며 이 옷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의 옷은 군인에 의하여 다 벗겨 졌었고 수의로 입혀 졌었다. 게다가 두 명의 목격자(아리마테아의 요셉과 니고데모)는 시신을 찾아 새 무덤에 안전 장치하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원고들에 의하여 기억할 수 없고 네 명의 문헌에는 두 사람은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소생하였다고 믿는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따라서 그의 소송을 기각 할 수 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

서명 X, Y

서명 A, Z

3 장 부활에 관한 올바른 설명

논리적인 설명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에 대하여 복음서 작가들의 4개의 설명을 완벽하게 조사한 2인의 학자들이 적절하게 설명 한 것을 아래에 정리한다.

1. 하인리히 에버하르트 고틀로브 파울러스 교수 (1761-1861) 는 1789년 예나 대학에 동양어학 교수로 임명되어 1793년 신학부의 세 번째 정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는 1807년에서 1811년까지 바바리아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하였다. 1811년 그는 신학교수로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가서 그의 사망 시까지 거기에 머물렀다. 그는 ‘예수의 삶’을 집필하였다. (1828)

‘예수의 부활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가 못 박힌 손의 실제의 몸으로 그들 앞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동일한 범주(때 이른 매장)로서 생각해야 한다. 십자가에 매달린 이후의 사망은 사실상 신체 경직의 상태였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신체 내부로 확대된 것이다. 그 경직은 모든 사망에 있어 가장 천천히 일어나는 일이다. 죠세퍼스는 그의 ‘콘트라 어포이넴’ 이란 책에서 그 당시 3명의 십자가 형을 담당한 테코아 지방의 티투스란자의 호의로 그와 같이 되었다고 하였다. 티투스는 그 세명의 십자가 형 죄인들을 십자가로부터 끌어 내렸다. 그들 중 두 명은 이미 죽어있었고 한명은 회복되었다. 그러나 예수는 놀랍게도 바로 사망하였다. 예수가 머리를 떨구기 바로 직전 예수는 커다란 소리로 울부짖으며 그의 힘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곧 바로 의식을 찾은 것은 단지 사망과 같은 최면상태였다. 그러한 최면상태에서 울부짖음의 과정이 계속되어 부패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것 만이 그 과정이 완전하고 사망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 더 분명한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과 주의를 다하여 때때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신의 섭리로 기적적으로 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행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예수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점차적으로 죽음으로 사라졌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처는 우리가 표면적인 상처로서 정맥 절개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차가운 무덤과 향내 나는 연고

가 강한 비바람과 지진이 예수의 의식을 완전히 찾게 될 때까지 부활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었다. 다행히도 지진 역시 무덤 입구의 바윗돌을 움직이게 하였다. 주는 수의를 정원사의 의복으로 바꾸어 입었다. 그것은 요한 복음 20-15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마리아가 주를 정원사로 변장시키기 위하여 만든 옷이었다. 여인들을 통하여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전갈을 보내어 갈릴레이에서 그를 만날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곧 그 자신도 그곳으로 향하였다. 엠마우스에서 저녁 무렵 그는 그의 두 명의 추종자를 만났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너무 변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빵을 나누어 주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손바닥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추종자로부터 그는 그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 가서 그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것이 갈릴레이로 보낸 전갈과 예루살렘에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 사이의 분명한 모순을 나타내준다.’

‘이런 식으로 예수는 그들과 40일을 살았다. 그 중 어느 기간은 그가 학대를 당했던 갈릴레이에서 보냈다. 그는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조용하게 살면서 그의 추종자들에게 잠시 모습을 나타내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그가 임종이 가까워 옴을 느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어느 새벽 그는 마지막으로 그의 추종자들을 올리브 산에 모이게 하였다. 그는 그의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여주고 또한 신의 가호를 빌어 주었다. 구름이 추

종자들과 그 사이에 겹겹이 쌓이면서 그들의 눈은 예수를 따라 갈 수 없었다. 예수가 사라지자, 그들 앞에서 하얀 옷을 입은 예루살렘에서 온 예수의 비밀의 지지자들 두 사람이 서있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더 이상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열심히 일하도록 권고하였다.’

‘예수가 실제로 죽었던 곳을 그들은 결코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출발을 승천으로서 기술하게 되었다.’

2. 어네스트 브루햄 도커라는 시드니의 지방 법원 판사는 이 주제에 대하여 가치 있는 책을 썼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않았다면’ 1920), 거기서 그는 소송의 증거를 조사하는 판사로서 복음서의 모든 증거를 분석하였다. 아래는 내가 부활에 대한 그의 의견이다.

‘죽은 시신이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주의 시대 몇 백년 이전과 이후 사이에는 우세한 것이다. 사실상 과학적인 조사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이다. 일단 우리는 엘리야의 역사를 한 예와 보면 엘리사의 것에서 두 가지 예를 가진다.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세 가지로 이는 예수 자신 외에 사도행전 (1:18)에 두 가지 예가 있다. 이레나이우스 교파의 자주 등장하는 변호자들은 ‘영혼은 이전에 살아났던 육신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교회의 기도자가 된다.’라고 말한다.

‘비과학적인 사고의 사람들에 있어 오늘 날의 이 믿음의 재미있는 예는 몽고메리 목사의 ‘선교자로서의 슈바이처’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볼 수 있다. ('히버트 잡지, 1914 7월 p. 885).

'가장 순진하게 표현하는 되는 것은 마취기술의 사용이다. 유럽에 있는 학교의 학생에게 편지를 쓴 천주교 학교의 어떤 소녀는 '의사들은 너무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굉장한 일이 일어 나고 있다. 먼저 그는 아픈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치료 한 후에 다시 그를 소생하게 한다. 이상한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 유명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또한 다음의 발췌문 ('물리적 문화와 건강' 15판, 1912년 7월)은 어떤 경우에서 의사들이 잘못 죽음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훌륭한 소생 도구는 독일인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펄모터'라고 불리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내과 의사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된 사람을 소생시켰다. 그것도 완벽한 건강 상태로. 하스씨라고 불리는 어떤 젊은이가 석탄가스에 중독되었는데 그의 친구들이 그를 소생시키려고 3 시간이나 노력하였으나 사망으로 판정되었다. (p.17) 그러나 펄모터를 사용하여 3시간 동안 작업한 후에 그 남자가 일어나 앉으면서 감사를 표하며 살아났다. 그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는 그의 의학적 사망을 선언했었다. 하스씨는 소생하게 된 4번째 사람이었다.

사망의 징조는 때로 정지되어 있는 살아있는 육신에서 가끔 모사 되고 실제의 사실을 확인하는 간단한 시험이 필요하다. '테일러의 의학적 판정' (제6판 p.243)에서 명백

히 나타나는데 ‘조기의 매장’이란 제 하의 1900년 발간된 ‘외과 의술’ 1집에 인용을 보면 명백하다. ‘어떤 경우는 틀림없이 발작, 실신, 강경증, 히스테리 혹은 인사불성 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단지 소생할 수 없고 육신이 차가와 지고 호흡이나 혈액 순환 등의 외부적인 징조가 없기 때문에 사망으로 판정 된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사망 판정이 있은 후 몇 시간 동안 지켜보는 사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살아 있는 육신이 조기에 매장되는 일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럽과 같이 문명화된 세계에서는 거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며 단지 이는 중대한 혹은 유죄적인 과실로서 인정 된다.’ (p.18)

편집자는 이렇게 말 한다 (p.246):

우리가 믿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1) 적어도 한시간 동안 혈액순환과 호흡이 중지 되어 있는 것은 청진기가 사용된다. (2) 육신이 점차로 차가와 지지만 사지가 차갑고 몸체는 아직 따듯한 경우 와 (3) 몸은 차가와 지면서 근육의 점점 경직되면서 단단해지고 종국에는 가슴 부위의 전체의 근육을 통해서 경직되는 경우이다. 이런 상태는 사망이 결정적이라고 보여지는 증거이다.

이 원리를 위에 언급한 소생의 예에 적용하면 그들이 현대의 시대에 일어났다면 일사 광선에서 기절한 것을 주

저 없이 말할 수 있다. 유티커스는 낙상을 할 것을 피했으며 제어루스의 딸은 그녀의 병으로부터 기진 맥진 해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확실한 무지로서 (그녀가 사망하였다고 알고) 어떤 사람이 '그 여자는 죽은 게 아니라 수면 상태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아는 사람의 말을 조롱할 수 있다. 나자렛에 대해서도 유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나자렛이 죽었다'라고 그의 제자들에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레파타의 하인의 경우에 대해서 엘리샤의 무덤에 던져진 그 시체와 나인과 도커스의 젊은이가 유사한 사망의 조건이었다면 아마도 강경증 정도가 아니었을까? (pp. 19-20)

우리는 지금 예수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의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 복음서에서 주장하듯이 실제적인 사망과 눈에 보이는 죽음의 모든 기준이 없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서둘러 3시간 이전에 무덤으로 옮겨졌다. 의학적인 시체 해부나 청진기 테스트도 없었고 그와 함께 끝까지 남아 있던 사람에 대한 증거도 없다. 아리마테아의 요셉으로부터의 설명도 없다. 요셉과 같이 있던 매장용 향료와 연고를 가져왔던 니고데모의 설명도 없고 그 상황에서 중요한 목격자였던 동산지기에 대한 사항도 없었다. (p.20) 그가 언제 무덤을 떠났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그가 매장 이후 3일째 되던 아침 그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사항도

없다. 어떤 사람이 ‘매장’이란 단어를 잘못 이해하였더라도 매장 시에 예수가 아직도 살아 있었을 지라도 아마 죄수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목 졸려 죽었을 것이며 또한 무덤은 커다란 돌로 영성하게 닫혀져 있고 입구는 돌을 굴러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완전히 막혀진 무덤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매장된 첫 날 밤에 예수를 치료하러 들어 갔을 수 있다.’ (p.21)

스패로우 심슨 박사는 ‘부활과 현대의 사상’이라는 책에서 더 멀리 나가고 있다.(p.47): ‘우리가 믿는 것처럼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시점에 있어 사실의 해석에 대한 모든 증거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이다. 하나는 그것은 인간의 작업이거나 아니면 신에 의한 일이다. 인간의 손으로 시체를 거두었든지 전능하신 손으로 죽음을 소생한 것이다. 그것이 정확히 문제점이다.

‘나는 감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한다. 가정된 시체가 실제로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나는 확실히 이 비어있는 무덤의 해석은 만족스럽다. 그것은 사기나 기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p.25)

‘소생되었다는 사실로 돌아가서 위에 암시된 것은 사건의 과정이 적절하게 무엇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가’ 이다. 다시 살아난 예수가 무덤을 빠져나가기 전에 어떤 옷을 입었는가이다. 동산지기가 그의 매장을 도왔다면 그는 그 일이 끝난 뒤 근처의 움막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의 휴일의 정장을 그에게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동산지기의 움막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옷을 빌릴 수 있는 가장 가능한 장소였다. 예수가 충분히 회복하자마자 그는 무덤에서 움막으로 옮겨지고 그는 다시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다. 그래서 예수는 아마도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음과 같은 여인이 아침 일찍 왔을 때 동산의 경내에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동산지기 혹은 그의 보조자 (후에 전설에 따르면 두 천사로 변환됨)에 의하여 그가 부활했으며 갈릴리로 돌아갈 의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를 그 자신들과 함께 친구로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p.32-33)

작자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간다.

‘여기 저기의 개별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말한다면 (즉 대부분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다) 그것은 군중들의 외침 속에 사라졌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러한 사람이 사형을 받고 즉 순교자로서가 아니라 이단자로서 죽음의 위협을 받아왔다.’ (p.34-35)

그래서 작자는 예수가 갈릴리로 갔는지 그가 다마스쿠스로 갔는지 세인트 폴에 갔는지를 논의 하고 그가 동방으로 가는 길에 바빌론을 통과하였다고 하였다. 결국 작자는 그 자신의 믿음을 ‘내 자신에 대하여 그가 사람으로 동일한 문을 통하여 지나가는 것을 믿는 것에 만족 한다.

- ‘죽음의 협해와 무서운 과정’이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될 것이 아닌가’ (p.70)

그는 그의 책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는다.(p.77-78)

...우리가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길 잃은 부족들에게 기도를 한 후에 스리나가에서 예수 가 죽었다. 그의 무덤에는 그의 이름도 걸지 못했다. 어쩌면 갈릴리의 피난처를 결코 떠나지 못하고 상처로부터 얻은 후유증으로 죽음을 질질 끌면서 티베리아 호수 곁의 외로운 캠프에서 머물렀는지 모르며 혹은 어떤 외로운 산의 정상에서 혹은 '아무도 그의 마지막을 알 수 없는 외떨어진 계곡'에서 머물렀는지 모른다. 적어도 기독교는 그의 유골을 보존하고 경배하여왔으며 그의 알려지지 않는 무덤은 모세의 무덤에 붙여진 알렉산더 부인의 아름다운 시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나게 한다.

'아 외로운 무덤이여
 우리의 이 알고 싶은 가슴에 말해다오
 아직도 모르는 채로 있다고 가르쳐 주고
 신이 그의 신비로운 은혜를 가지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는 그들을 깊게 비밀스러운 잠과 같이 숨기고
 그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이도다.'

4 장 초기의 문서상의 증거

1907년, 시카고 인도-아메리칸 출판사가 ‘십자가 죽음, 목격자’란 제하의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에센인’들의 종단이 소유하고 점유한 한 가옥에서 발견된 편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편지는 십자가 처형 7년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의 형제들인 ‘에센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 것이었다. 예수와 그의 순교에 관한 소문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에센인 형제들의 ‘테라퓨트’ 지도자로부터 온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다.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형제였으며, 그들의 규칙에 따라 살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편지는 예수가 에센 동지회에 속하였다는 것을 입증했다. 편지의 작자는 알렉산드리아의 동지들에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을 말하며 내 눈으로 본 것만을 말하며 이모든 의사 교환에서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한 부분만을 말한다’고 썼다. (p.38-39)

땅에 어둠이 내릴 때

그는 우리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 때와 그가 내려질 때의 상황을 이야기 한다. 편지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있을 때 ‘땅에 어둠이 내렸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예수가 고통의 분노로 크게 소리쳤으며 ‘신에게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22번째 찬송가를 불렀다고 인용하였다. (p.62)

지진

그리고 편지에는 열기가 점차적으로 강하게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여 땅과 허공에 불이 일어났다. 마치 원소의 정화에 필요한 것 같았다. 에센의 동지들은 자연과 그 원소에 대한 지식으로 선조들의 시대에 이미 그랬듯이 지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p.63)

밤이 되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로마의 백인대장은 겁에 질려 자신이 믿는 이단의 신들에게 기도를 하였다. 깜짝 놀란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그곳에서 흩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동정심이 많은 귀족인 백인대장은 요한에게 예수의 어머니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p.63-64)

그가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잘 보살필 것을 당부했을 때는 보름달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데도 점점 더 어두워졌다. 사해에서 짙고 붉은 안개가 떠오른 것이 관찰되었다. 예루살렘 주위의 산 자락이 심하게 요동치면서 예수의 머리가 가슴으로 떨어졌다.(p.64) 그가 그의 마지막 분노와 고통의 신음을 내뿔으며 죽어가고 쉼 목소리가 허공

을 떠돌았다. 유대인들은 커다란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는 악의 영혼들이 사람들을 벌을 주러 오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허공에 떠도는 이상하고 특이한 소리는 지진이 오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p.64-65)

유대인들이 이 모든 것을 매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겼으므로 로마의 백인대장은 신성을 믿고 예수의 무죄를 믿었으며 그의 어머니를 위로하였다.(p.65)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우리의 친구를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구하지 못한 것을 비난한다. 그러나 당신들이 기억해줄 것은 우리의 질서의 신성한 법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고 나라의 일을 간섭할 수 없게 하였기 때문이다.’ (p.65-66)

요셉과 니고데모

편지는 예수에게 도움을 준 아리마테아의 요셉의 역할을 확대하여 말하고 있다.

‘아리마테아에서 온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유하고 위원회의 회원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고 어떤 종파에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며 우리 종단에 비밀히 가입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 법에 따르며 살고 있다. 그의 친구 니고데모는 아주 학식 있는 사람으로 우리 종단의 최고의 위치에 속하였다 그는 ‘테라푸트 파의 비밀을 알았고 가끔 우리와 함께 했다.’ (p.66)

...지진이 있는 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요셉과 니고데모

가 십자가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이 칼베리에서 멀지 않은 우리 동지들의 동산에서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p.67)

7시간도 안된 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던 예수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었으며 서둘러 그 자리로 갔다. 거기에서 요한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p.67)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체를 검사하였고 아주 감동한 니고데모는 요셉을 옆으로 불러 말하였다. ‘확실히 생명에 대한 그의 지식으로는 그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p.67)

니고데모는 ‘우리는 시신의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소리쳤다. ‘그가 필요한 조치를 받으면 상처로부터 회복되어 그는 살아날 수 있다’고 하였다. (p.68)

그들은 비밀을 지키고 요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요셉을 설득하여 빌라도에게 곧장 달려가 그의 친구의 시신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게 하였고 그날 밤 예수의 시신을 다른 무덤으로 옮겼는데 그 무덤은 바위로 닫혀진 요셉이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나는 그가 의미 하는 바를 알고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 요한과 남아 병정들이 예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게 했다. (p.68)

유대인 위원회는 이미 빌라도에게 그들이 매장하는 십자가 처형인들의 뼈를 부러뜨릴 것을 요청하였다.’ (p.68-69)

편지는, 요셉과 니고데모가 떠난 후 백인대장에게 시신들을 끌어내려 매장하라는 명령이 전달되었다고 적고 있다. 편지의 작자는 이렇게 말한다.

명령이 전달되었을 때 나는 가능성이 없는 일이지만 요셉이 빌라도를 이미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으로 희망을 품고 그에게 재촉하였다. (p.69)

‘빌라도가 당신을 보냈는가?’ ‘나는 빌라도가 아니라 그런 중요하지 않은 일에 관여하는 총독의 비서관이 보내서 왔다.’ (p69-70)

백인대장은 나의 불안한 표정을 살폈고 나는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십자가형을 받은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소. 그를 험하게 다루지 마시오. 부유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돈을 주고 그 시체를 살 것이며 그는 그렇게 할 것이요’

내 형제여, 나는 여기서 빌라도가 자주 처형된 시체들을 그의 친구들에게 내어주어 매장하게 하는 것을 당신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마 병정은 나에게 친절하였고 예수가 무죄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 듯 하였다.

그러므로 병사들이 두 도적을 곤봉으로 때려 뼈를 부러뜨렸을 때 백인대장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나치며 ‘그가 죽었으므로 뼈를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였다. (p.70)

빌라도의 사자가 도착하여 빌라도가 예수가 실제로 죽었는가

를 알고 싶어한다고 하였고, 백인대장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예수의 시신을 찔고 그것이 둔부와 옆구리를 스쳤다. 시신은 아무런 경련을 일으키지 않았고 백인대장은 그가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서둘러서 빌라도에게 보고를 위하여 떠났다.

그러나 심하지 않은 상처에서 피와 진물이 흘러나오자 요한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나는 다시 희망을 품었다.

(p.71)

빌라도가 넘겨준 시신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간청한 것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편지는 이렇게 기록한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서둘러 돌아왔다. 요셉은 위엄을 갖고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였고, 빌라도는 처형된 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듣고 시신을 요셉에 넘겨주라고 하였으며 그것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p72) 빌라도가 요셉을 크게 존경했고 속으로는 그 처형에 대해 누우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니고데모가 상처에서 피와 진물이 흐르는 것을 보자 그의 눈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고 기쁘게 말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였다.(p72-73) 그는 요셉을 옆으로 끌고 가서 요한이 듣지 못하는 낮은 소리로 ‘친구여, 기뻐하시오.

우리가 일할 차례입니다. 예수는 죽지 않았으며 그의 기력이 다해서 그렇게 보일 뿐이요’

‘요셉이 빌라도에 있는 동안 나는 서둘러서 우리의 영토로 돌아가서 약초와 필요한 것들을 모았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권고하노니 요한에게 이러한 우리의 예수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알리지 않도록 함이다. 그는 물론 기쁨에 넘쳐 있겠지만 그것은 위험한 일로서 만일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적들은 우리와 예수를 다시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p73)

예수의 회복

편지는 예수가 어떻게 구제되었으며 치료하였는지를 말한다.

이 일이 있는 후에 그들은 십자가로 달려갔다. 의학적 처방에 따라서 그들은 서서히 그의 결박한 것을 풀고 그의 머리로 부터 가시관을 제거하고 조심스레 그를 땅에 눕혔다. (p.73)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는 강한 향료를 뿌리고 우리 종단 밖에 그 사용법을 모르는 그가 가져온 긴 천으로 상처를 감았다.(p73-74) 이것들은 예수의 몸이 썩지 않게 함이었으며 그는 몸에 고약을 발랐다.

이 향료와 고약은 아주 치유력이 강한 것으로 우리 예센 동지들에 의하여 죽음에 가까운 의식 불명의 상태에 의식을 돌아

오게 하는 그런 의학적인 힘을 가진 것이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의 머리를 구부렸을 때 그들의 눈물이 예수에게로 떨어졌고 그들은 그들의 숨을 불어 예수의 뺨을 따뜻하게 하였다. (p.74)

시신은 돌이 놓여있는 요셉 소유의 무덤으로 옮겨졌다. 그들은 알로에와 다른 강한 약초로 동굴 속에 불을 지피고 예수의 시신을 이끼바닥 위에 눕혔다. 몸이 아직도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커다란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 놓고 공기가 동굴 속으로 더 잘 들어가도록 하였다.’(p.75)

유대인의 의심

편지는 예수의 비밀스러운 친구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비밀 첩자를 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는 빌라도를 아리마테아의 요셉에게 시체를 돈도 받지 않고 내준 것을 의심하였다. 요셉은 예수의 재판에 있어 어떤 이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으나 처형된 자를 위하여 자기가 소유한 무덤까지 내주었다. (p.76)

가야파는 그들이 시체를 방부 처리하려는 것을 알고 요셉을 비난하였고 무장 병사를 시켜 그를 감옥에 집어 넣고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는 동굴 근처로 병사들을 보냈다. (p.75)

이 편지의 작자는,

‘니고데모와 내가 동지들에게 서둘러 가는 동안 가장 나이가 많고 현명한 자가 회의에 와서 예수를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형제들은 곧 무덤에 파수꾼을 보냈다.’

자정이 지나고 아침이 다가오면서 땅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고 공기가 숨이 막힐 듯 답답해졌다. 바위들이 흔들리고 부서졌다. 빨간 불길이 틈새로 솟아오르고 아침의 붉은 안개를 비추었다. (p.77) 정말 무서운 밤이었다. 짐승들이 지진에 놀라 울부짖으며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대사제의 하인들도 식식거리는 바람소리와 땅이 뒤흔들리고 포효하는 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이 떨었다. (p.77)

우리 동지들 중의 하나가 우리 종단에 복종하여 하얀 옷을 입고 무덤으로 갔다. 그는 산에서 무덤을 통하는 비밀 통로를 이용하였는데 그것은 우리 종단만 알고 있는 것이다. (p77-78)

대사제의 겁 많은 하인이 하얀 옷을 입은 우리의 형제가 아침 안개에 몸의 일부가 가린 채 산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고 산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줄로 알았다.

우리 형제가 무덤에 도착해서 명령으로 입구의 돌을 잡아당겨 돌 위에 앉아 쉬었다. 그러자 병사들이 도망을 쳤고 천사가 내려왔다는 말을 퍼뜨렸다. (p.78)

무덤의 안

작자는 다음으로 예수의 육신이 놓여 있던 무덤의 내부를 이렇게 기록한다.

예수의 죽음이 선언된 지 36시간이 지났다. 우리의 형제가 동굴 안에서 작은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고 시체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것은 숨을 쉬는 것이었다. 곧 그는 예수를 도와주기 위하여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서 소리를 들었다. 얼굴이 살아있는 모습이었고 눈을 떴으며 우리 종파의 초심자를 놀라운 듯 쳐다보았다.

이것은 내가 형제들을 떠나자마자 발생한 것이다. 요셉과 함께 그를 어떻게 도와줄지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이었다.’ (p.79)

경험 있는 의사로서 니고데모는 도중에 놀라운 요소들에 의한 특별한 정황이 예수를 도왔으며 그는 실제로 예수가 죽었다고 믿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피와 진물이 상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동굴에 도착하고 요셉과 니고데모는 먼저 와있었다. 우리는 모두 24명의 형제들이었다.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동굴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우리 형제가 예수의 호흡을 재생하려고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가 그의 에센의 친구들을 알아보자 그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고 그의 뺨은 약간 불그스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내가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때 요셉이 그를 껴안고 그의 팔을 굽혔으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었고 그가 인사불성으로부터 어떻게 구해졌는지 갈보리의 언덕의 군인들이 그가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하여주었다. (p.79-80)

예수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 자신의 생각에 잠겨 신을 찬양하면서 요셉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가 신선한 것을 마시도록 하였으며 그는 대추와 꿀을 바른 빵을 먹었다. 니고데모는 그에게 마실 포도주를 주었고 예수는 약간 원기를 회복

하여 일어설수 있었다.

예수는 허리와 손바닥의 상처를 의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바른 고약이 유연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벌써 치유되고 있었다. (p.80-81)

예수가 무덤에서 나오다

편지는 어떻게 예수가 무덤으로부터 빠져 나오는 생각을 하였는가를 말한다.

그의 몸을 감고 있던 ‘아마포’를 벗어버리고 머리를 싸고 있던 것을 벗어버렸다. 요셉이 말했다. ‘여기는 오래 있을 장소가 아니오. 왜냐하면 우리 비밀을 쉽게 적들에게 들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직도 멀리 걸을 수 없어서 우리 종단에 속하는 집으로 인도되었다. 그것은 갈보리와 가까운 동산으로 우리 형제의 것이었다. (p.81)

다른 젊은 종단의 형제를 곧 그곳으로 보내어 예수의 무덤을 살피게 하였고 몸을 싸고 있던 천과 약품들의 흔적을 없애 버렸다.

예수가 우리의 형제의 집에 도착할 때 그는 창백하고 약했다. 그의 상처는 굉장한 통증을 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면서 감동하고 있었다. ‘신은 나를 다시 살려 내었다’ 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다. ‘그는 나에게서 내가 제자

들에게 가르치고 살아가는 방법을 입증하셨다.’ (p.81-82)

예수가 제자를 만나다.

편지는 에센의 친구들이 모든 조심을 하여 그의 안전을 보살피고 모든 수단으로 그를 도와 그가 예루살렘의 메세다의 계곡의 베다니아의 나사로의 집과 갈릴리와 카멜 산과 다른 장소에서 그의 제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과 말씀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그의 연설과 담화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으로 민중들에게 많은 소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유대인의 놀라움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아났다는 유대인의 의심이 확인되고 그를 다시 제거하려는 노력을 편지는 분명히 나타낸다. 이점에 관하여 이렇게 적혀 있다.

같은 날 저녁에 니고데모는 우리의 동지들에게 와서 아리마테아의 요셉이 체포되었으며 그들은 그에게 예수와 비밀 음모를 가졌다는 죄목의 형법을 적용하였다고 하였다.(p.109-110)

요셉은 예루살렘의 성스러운 형제의 노력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왔다.

예수가 카멜산의 계곡에 있을 때,
 ... 형제들은 예수에게 위협을 경고 하였고 그는 그의 적들을
 피하여 그의 임무를 완성해야 했다. 그들은 비밀히 다야파가
 예수를 다시 체포하고 암살하려 한다고 알려주었다.(p.118)
 요셉은 예수에게 말했다. ‘사람들 모두는 당신의 원리를 이해
 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알아야 하며 당신을 세계의 왕이다
 라는 것으로 로마인들을 정복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나 당신은 신의 왕국을 전쟁이나 혁명으로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고독을 선택하여 예센의 친구들과 같이 안
 전하게 있으며 당신의 원리는 제자들에 의하여 전하도록 하
 십시오.(p.120)

그리고 예수는 그가 홀로 있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스스로 망명한 예수

편지는 예수가 그의 제자를 만나서 그들을 그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
 인 올리브 산의 정상 근처로 데리고 가는 마지막 시간을 이야기 한
 다. 거기서는 전체의 팔레스타인 지방이 보이는 곳이었다. 예수는 그
 가 살고 일하여 왔던 그의 나라를 한번 더 경배하였다. (p.123)

...선택된 제자들은 예수가 그들을 베다니아로 데리고 간다
 고 믿었다. 그러나 형제들의 연장자들이 침묵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산의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예수와 함께 합의 한
 장소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수는 그의 제자에게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경배하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그의 팔을 들어 그의 상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안개가 산 위에 떠오르고 태양이 떨어지자 사라졌다.

그리고 예센의 형제들의 연장자들이 예수에게 그들이 기다린다고 전갈을 보내었을 때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제자들이 그들의 얼굴을 숙이고 땅을 향해 굽히고 있을 때 예수는 일어나 서둘러서 안개를 통하여 가버렸다.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형제들 중 하얀 옷을 입은 두 명의 형제가 그들 앞에서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를 기다리지 말라고 말하였으며 그는 떠나 버렸다고 하자 그들은 황급히 산을 내려갔다. (p.123-124)

그러나 예수가 사라지자 제자들은 새로운 희망과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그들 자신이 예수의 애제자로서 더 이상 오지 않을 예수를 위하여 그의 말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을에는 예수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는 예수가 떠난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하여 고안된 생각들이었다. 제자들은 이런 소문을 반박하지 않았고 그것을 그들의 원리를 강화하는데 이용하였으며 그를 믿기 위하여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p.125)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을 알리다

편지의 결론적인 부분은 유대인들의 의혹들과 예수가 안전하게 그의 나라로부터 외국의 땅으로 도망 간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편지의 끝부분은 예수가 은신처에서 세 번이나 요셉과 니고데모를 만났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마지막 여섯 번째 보름달이 기울던 때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
에게 왔었는데 (p.127-128)

...그들의 가슴은 아주 찢어지듯 아팠다. 선택된 사람이 아버지
지의 하늘의 거주지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사해에 가까운
속의 의사에 의하여 매장되었다.’ (p.128)

에센의 동지들은 편지에 의하면 예수가 하느님이 그를 구했다고 주장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는 안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적들이 당신
을 계속하여 찾을 것이다. 따라서 가르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마라. 당신의 가르침은 영원히 당신의 친구들과
과 함께 있게 하고 당신의 제자들이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라. 나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나니 당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이요 당신은 현명함과 덕의 세계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라’ (p.91-92)

상황은 위에 말하였던 계획대로 되었다. 따라서 예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으로 남기로 결정하였다.

예수의 죽음과 매장은 편지의 작가도 보지 못했으며 예수가 그의 적대자들이 더 이상 그를 찾지 못하도록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하여 계획대로 된 것이라는 추정뿐이 알 수 없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매장에 대한 설명은 실제적으로 사실이였다면 적어도 그의 무덤에 대한 흔적이 지난 수세기 동안 사해의 근처에서 발견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은 편지에서 수정 알처럼 명백한 것이었다.

독일 번역자의 주석

그의 마지막 주석에서 독일 번역자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이 편지는 아주 많은 흥미로운 사건을 담고 있으며 특히 복음서의 설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아주 차분하고 단순한 이교도 인으로 작가의 명백한 의도 없이 기록되어 있다. (p.133)

그러나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고통의 기록이 중요하며 그가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하였던 일이다. 복음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의 소생은 기적이며 지식인들은 그것을 신화로서 풍유적인 의미로 그것을 발취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편지에서 우리에게 단순한 필체로 가능한 것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상황에 대하여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필연성을 보여 준다. (p.140)

오래된 편지에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기록하였지만 그는 무의식 상태에 있었다고 전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보이는 것도 명백한 죽음이 가능하다. 먼저 그는 너무 일찍 의식을

없었다. 그래서 빌라도조차 그의 죽음을 의심했다. 둘째, 십자가 형의 방법에서 처형자들이 소생하는 것을 그렇게 없지 않은 일은 아니다.(p.141)

또한 그 시대의 역사가들을 통하여 십자가 형의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끌어 내려진 후에 소생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행한 형벌의 유대인 관습은 십자가 처형자를 밤새도록 십자가에 매단 채로 두지 않는데 다른 곳에서는 8-9일 정도 무서운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둔다. 우리가 예수를 처형한 십자가형의 방법을 조사할 때 오랫동안 생명을 부지한 채로 십자가 위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p.141-142)

5 장 최근에 발견된 예수의 수의

독일 과학자의 놀라운 발견

예수의 시신을 감싸던 수의가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요한 xx:5) 이 수의는 아직도 존재 한다. 그것은 예수의 시신의 자국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몸에 고약을 발랐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최근에 독일 과학자 그룹은 예수의 수의에 관한 중요한 발견을 하였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 그는 살아 있었고 인사 불확실성 혹은 완전한 마취 상태였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왔을 때 그는 다시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동산지기의 옷을 입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지구 상에 다시 나타난 것을 부활이 아니라 의식 불명에서 깨어난 것이다.

스칸디나비아의 논문이 스톡홀름 티디닝겐이라는 제목으로 크리스터 이더럼드라는 편집자에 의하여 1957년 4월 2일판으로 발간되었

다. 동일한 책의 우르두어로 된 번역판은 사드르 안주만 아마디아 라브와 (파키스탄)에 의하여 하즈라 마시 나세리 살레브 파르 하르기즈 파우트 나힌 후아이라는 제명으로 발간되었다. 나는 영어판을 사용하여 설명하겠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독일의 과학자 그룹은 지난 8년간 예수의 수의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그들 연구의 결과는 언론에 최근 발표되었다. 2000년이나 된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던 형겔이 투린의 이탈리아 지방에서 발견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국을 지니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교황에게 이 발견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교황은 침묵하였다. 발견 사실은 가톨릭 기독교의 종교사의 실제의 비밀을 밝혀주는 것이다. 사진 기술의 도움으로 과학자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에 의하여 기적으로 여기는 부활이 사실상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현상이다. 그들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리스도의 수의의 논쟁은 지난 1000년 동안 논의되어왔다. 이 옷은 엔독시 여왕에 의하여 기원 438년에 콘스탄티노플에 보내졌다 원래는 카타콤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그것이 700년 동안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다. 결국 드 라 로쉬가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한 뒤에 그것을 가지고 왔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그 수의는 은 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결국 은이

녹으면서 그것은 약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시신 흔적은 여전히 분명하였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 옷을 내 보임으로써 많은 돈을 벌었다. 프랑스로부터 튜린으로 옮겨져 그것은 1300년간 전시되었다. 1898년 한 이탈리아인이 태양 광선에 대한 음화를 보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정확히 같음을 보고 놀라와 했다. 음화가 인쇄되었을 때 그것은 지난 1900년간 아무도 보지 못했던 예수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1931년 수의가 다시 전시되고 기스페 엔리라는 사진사는 다시 6000-20000 볼트의 전구를 사용하여 교외 관계자들이 보는 가운데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을 놀라운 사실을 가져다 주었다 두 번째로 피아가 이미 밝혀준 것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사진은 교회가 2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기술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나스 나버 베르라지가 집필한 다스 린넨 크르트 베르나 스톨트가르트 의 책에서 다시 발견되었는데 그는 쉽게 교회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다. 교황 피우스 9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사진은 여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수의와 역사가 모두 그리스도의 사진임을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수의의 제조와 직물은 폼페이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았다.

수의에 있는 이중 표시는 하나는 수의가 그리스도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것이며 다른 반쪽은 그의 머리를 덮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바른 고약과 시신에서 발생된 열이 그

리스도의 옷에 표시를 만들었다. 수의에 흡수된 그리스도의 혈액은 아직도 남아있다. 사진은 분명히 가시 면류관의 자국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이마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식 불명의 오른 뺨과 오른 편의 창 자국을 보여주고 손톱에 의한 상처로 흘러나온 피의 자국과 등에는 십자가로 인한 상처자국을 보여 준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음화의 사진에서 그리스도의 감겨진 두 눈은 거의 뜨고 있는 상태였다.

사진은 또한 손톱이 손바닥과 닿아있지 않고 손목의 관절에 붙여있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에 창이 닿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영혼이 떠나갔다고 하였지만 과학자들은 심장이 기능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의식 불명으로 한 시간이나 있었다면 피가 응고되었으며 피가 흘러내려 수의에 묻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피가 수의에 흡수된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말한다. 나는 여기에 독일 과학자들의 굉장한 발견이 단순히 1400년 전 코란에 의하여 설명된 것을 단지 확인 하는 것이라는 것을 덧붙인다. 코란에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는 메시아, 예수, 마리아의 아들이며 알라의 사자를 죽였다. 반면 그들은 그들 십자가 위에서 죽이지 않았다. 그는 십자가 형을 당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죽음을 나타냈지만 그것에 대한 의심이 있으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지만 단지 추측을 따라서 이 추측이 확실성

으로 변환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마울비 세르 알리 라브
와의 영역 코란, 4장 148절)¹⁾

1. 이 기사는 1958년 올파트 카지에 의하여 쓰여져 종교 잡지에 발간되었다. (저자)

6 장 현대의 의학적인 의견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단지 의식 불명이었다가 소생하였다는 이론은 오래 전의 것이다. 1928년 마울비 에이 알 다르드는 ‘종교 잡지’의 편집자였는데 기독교의 선교사들과 종파 학자들과 이 이론의 교수들에 대하여 서면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독교 선교사들의 대답은 의식불명의 이론은 무시되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점에 대하여 무지를 인정하였다 편집자는 그들의 응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이 응답으로부터 이론이 완전히 무시되어지지 않아야 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오늘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임을 인정 한다. 버밍햄의 주교는 이 이론이 특히 모든 중요한 학자들에 의하여 무시되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캐논 스트리터는 이 이론을 ‘브룩 케리스’라는 곳에서 발표하였다. 두르햄의 주교는 영국 교

회의 가장 뛰어나고 학식 있는 권위자로 주저 없이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복음서에 대한 설명을 위한 의식 불명의 이야기는 정확성이 없으므로 무시된다. 그것은 일주 전에 발표된 웨이겔에 의한 <기독교 정신의 이교사상>이란 책에서도 발표되었다.’

파울러스, 벤투리니, 바르두트와 쉬레이마허¹와 같은 이 이론의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단지 두면 이상의 주요한 발간물을 언급 한다.

1. ‘예수의 죽음’ 스톡홀름의 유고 톨 박사 저서
2. ‘예수의 재판’ 파리의 폴 루의 저서

1919년에 로지스틱스 앤젤레스에서 발간된 목격자에 의한 예수의 십자가란 가장 중요한 책이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화자의 입장에서 서술한 책이다.²

아래에서 ‘종교 잡지’의 같은 호에 기고한 스웨덴의 유명한 의학 권위자인 유고 톨 박사의 의견을 반복하겠다. 그는 ‘RR’이란 잡지사의 편집자로서 1929년 당시 70세이고 스톡홀름 병원에서 1897년에서 1923년까지 근무하였다. 학식 있는 의사로서 의학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유고 톨 박사가 그의 예수의 죽음이란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십자가형은 예수의 시대 이전에 오랜 동안 사용되던 것으로

1. 엘버트 슈바이처의 <역사상 예수에 대한 의문> 참조. 몽고메리 번역, 런던 1910
 2. <종교 잡지> 9호 1928

로마인들도 자주 사용하였다. 그들은 희생자를 한번에 죽이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고통으로 죽게 한다. 그것은 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다. 어떤 절차도 없다 집행자는 희생자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 한다. 때로 그들은 로프를 너무 조이고 어떤 때는 손만 묶는다. 희생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최악의 것은 배고픔이다. 그들은 노예들과 낮은 하류 계층, 죄인과 배반자와 선동자 만을 십자가형에 처한다.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거의 벗은 상태였다. 그 당시에는 추운 때였다. (요한 복음 18:18)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예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포도주나 몰약이었을 것이다. 그는 맛을 보았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마태 복음 27:35) 어떤 고뇌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삼킬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보통 물을 원 한다. 그러나 마실 수가 없다. 이것은 또한 일시적인 신경쇠약증의 증거이다. 마태 복음 (27:50)에서 예수가 ‘큰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을 떠났다고 말 한다. (‘큰소리’를 강조 한다.). 병정들이 이 사실을 주의 한다. 그는 경험에 의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보통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는 큰소리를 질렀다면 그에게는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요한의 복음서도 이 의사에게 흥미로운 것을 준다. 왜냐하면 충격이나 경련의 발작의 특성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의식의 혼절의 일반적인 원인은 머리에서 출혈하는 것이다. 환자는 창백해진다. 환자를 눕게 하면 목과 입의 갈증을 느끼게

된다. 그는 물을 달라고 청하게 된다. 이런 의식 흔적이 죽음으로 변화된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사람은 물을 달라고 청할 수 있지만 보통 죽어가는 사람은 물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예수의 입이 마르고 때로 그에게 물을 한 손갈 삼키게 하였다면 아마도 죽어가는 사람이 그것을 거절할 힘이 없기 때문에 마셨을 것이라고 한다. 의식 흔적의 사람은 (갈증의 고통 없는 느낌을 가진 후에) 의식을 잃게 된다. 지구가 그에게서 사라져 버리고 날아가는 기분을 느낀다. 이제 그는 아마도 작별의 경고로서 소리 지를 것이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은 전적으로 출혈과 고문으로 소진된 사람은 그의 입을 열뿐이며 숨을 몰아 쉴 뿐이지 ‘나는 죽는다’라고 소리 치지 못 한다. 그리고 예수는 ‘이제는 끝났다. 나는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박해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는 또한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과 모든 사람의 자유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어머니를 그녀의 미래를 착한 아들로서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그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그는 그의 고통으로 그것을 가져오리라 생각 했을 것이다. 그는 다비드의 찬송을 기억하고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였다. 결국 좌절과 희미해지는 힘으로 ‘아버지, 당신의 손으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소리치며 ‘물을 달라 나는 죽어간다’라고 소리쳤다. 예수가 어떻게 죽었을까? 복음서에는 ‘그의 영혼이 떠났다’고 표현한다. 이 의미는 그가 죽었다는 것

이다. 병정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의 뼈를 부러뜨렸을 것이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아무 것도 아닌 것에 의하여 죽을 수 있다. 그들은 놀라움이나 충격으로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형으로 쉽게 죽지 않는다. 유세비우스는 디오크레티아누스의 처형 장면을 기술하면서 십자가 처형의 사람은 소진, 배고픔과 새나 다른 야생 동물에 의한 공격으로 며칠 있다가 죽는다고 말하였다. 예수와 처형되었던 강도들은 저녁까지 살아 있었는데 병정들이 곤봉으로 그들의 죽였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가 죽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믿지 않았다. 그가 병사들에게 그의 죽음을 물었다는 것은 그의 경험상에서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피로와 출혈로 죽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가 죽지 않았을 것이 가능하다.

예수가 죽었다면 피가 흐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본 요한은 아마도 이 현상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나중에 이해한 사람들도 감히 그것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예수는 아침에 다른 장소로 옮겼다. 우리는 피부가 수중이나 물집을 일으키면 강한 찰과상을 입는다는 것을 안다. 피부로 들어가서 커다란 물집을 만들어 낸다. 군인 중의 하나가 이 물집을 보고 그것을 장난으로 아니면 주의 없이 터뜨려서 예수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와 진물이 나왔다. 이제 예수는 분명히 죽은 것이고 무의식 상태이다. 불쌍한 무지의 사람들은 예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한다. 그들은 임시 무덤에 ‘그를 매장하였다. 그 무덤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는 동산지기의 움막이 더럽다는 것을 알

았을 것이다. 마리아는 그가 비참하게 ‘마리아’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무기력하고 외롭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알아봤을 것이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으나 그는 ‘나를 만지지 말라’ 라고 하였다. 그의 상처로부터 너무 통증이 있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가 ‘나는 아버지에게로 아직 가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그는 아름다운 말은 사용했다. 이것은 바로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란 말이지만 그는 너무 아프고 불행하여 몇 시간 안에 죽을 수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의 소원을 그의 형제들에게 보냈다.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는 그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비열한 징벌을 받았다. 그는 죄인이었으며 이교도였다. 그는 반드시 그의 존재로 이 세상에 밝힐 수 없었다 그의 적들이 그를 다시 체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너무 부끄러워서 동산에 몸을 숨겼다. 그가 혼자서 예마우스의 길을 걷다가 제자들을 만났지만 잠시 뿐이었다. 그들은 감히 그들 도울 수도 없었고 체포될 것이 두려워 그와 함께 가지 못했다. 제자들은 그들이 도와 주었다면 그들은 그를 혼자서 배고픔과 외로움에 남겨 놓지 않았을 것이다. 외로운 장소에서 제자들과의 만남이 주선되었다. 그는 때로 사라지고 결국 영원히 떠났다.

‘단지 (마태 복음 28:18) 그가 놓은 목소리로 ‘하느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하였다고 쓰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 즉 ‘과대 망상증 즉 치매’이다.

동양에서는 예수가 십자가형 뒤에 살아있다는 신념에 근거한 종교 공동체가 있다. 그가 후에 인도로 건너가서 이자라는 이름으로 카슈미르의 아름다운 계곡인 스리나가 (행복의 도움)에서 정착하였다가 거기서 묻혔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유스 아사프라고 말 한다. 이 공동체의 이름은 1913년에 발간된 ‘이슬람의 백과사전’ 218페이지 아마디아에 나와있다.

이 스웨덴의 유명한 의학 권위자의 이 자유로운 의견은 복음 서적을 자세히 조사하고 나서 의심 없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당시 그 의학 권위자에 의하여 조사가 되었다면 그가 십자가에 내려졌을 때 그는 확실히 그와 같다고 확인 하였을 것이다.

7 장 예수는 승천하였는가?

복음서를 쓴 네 사람이 예수가 무덤으로 그의 육신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제자들은 그를 영혼으로 생각하였을 때 그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 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쁘므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잠수시더라’¹ 라고 말하였다. 예수는 그의 제자들과 다시 체포되는 것이 두려워 비밀스런 장소나 길을 가는 도중에 만났다. 그는 그 자신을 남들에게 나타내지 않으면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²

1. 누가복음 24:39-43

2. 사도행전 10:40-41

그가 죽음으로부터 소생하고 혹은 천상의 육신으로 변화되었다면 그는 체포될 위험이나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그 자신을 스스로 적들에게 나타내어 그의 부활을 공중의 회합에 알렸을 것이며 그의 죽음에 대한 승리를 밝혔을 것이다. 게다가 그가 그의 적들에 대한 사랑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보이고 그들이 그를 믿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다. 왜냐하면 그의 육신을 불멸이 아니고 다시 생포되어 죽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들에 대한 주석을 쓴 많은 작자들은 누가 복음 24장의 39절을 보고

‘교회의 이교종파의 주장중의 하나는 이것의 직접적인 모순과 다른 구문으로 그리스도는 모습 혹은 한 영으로 실체의 육신이 없고 따라서 실제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그가 하느님의 오른 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a)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갈릴리까지 큰길이 아닌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우회 도로를 이용하여 걸어왔기 때문이었다.

(a). 우리의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약. 권위 있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러 저자들의 짧은 설명이 곁들여졌다. 제1권(사복음) 제5판, 기독교 지식을 진작하기 위한 협회, 런던 1872년. 누가복음 24장 39절(출판사들)

갑작스러운 출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들어오며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³라고 하였다.

이 말은 또한 그가 천상의 육신이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 누가 복음 24장 39절의 주석에 대해서 많은 작가들이 '어떻게 뼈와 살을 가진 육신이 닫힌 문을 가진 방으로 들어오는가, 우리는 알 수 없다'⁴ 라고 하였다.

내 의견으로 이 구문은 예수의 모습이 특별한 것 기적으로 그의 육신이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의 손과 그의 옆구리를 제자에게 보여주며 그는 자신이 지상에서 있었음을 보여주고 그들은 그를 보고 기뻐했다. 이 구문 역시 예수가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인 그의 제자들에게 와서, 그것도 어둡고 침침한 움막이었을 것이다. 아주 가능하게 그들과 동시에 그 장소로 들어 갔다. 또한 그들의 주인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혹은 예수의 에센의 동지들이 예수를 비밀의 문으로 인도하여 그곳으로 인도하였다. 이것을 누가는 설명하면서 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단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보였다. 그렇지 않으며 그들이 영혼을 봤다는 가정이 더 잘 성립 된다. 그러나 예수는 그 자신을 부인하고 그의 손과 옆구리와 그의 상처를 보임으로써 허위를 증

3. 요한 복음 20:19

4. 요한 복음 20:27

명하였다는 것은 예수가 살과 뼈로 된 육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가르쳐 주는 것이다.

나는 이미 위의 예수가 문이 없는 방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그때 나는 도커의 책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이란 책에서 그는 이런 그의 갑작스런 출현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p. 14-16)

몇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은 뒤에 그의 육신이 초자연적인 힘 그러니까 닫힌 문도 통과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가정에는 근거가 없다. 세 명의 초기의 복음 주의자들은 이 출현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으며 목격자들이 본 것이 자연적인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었다는 생각을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성 요한은 분명히 예수가 닫힌 문을 통과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그가 사용한 단어를 문자 상으로 수정하면 예수는 갈릴리로 돌아갈 때까지 예루살렘의 은신처에 있어야만 했다. 그것은 분명히 그가 공중들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 한다. 분명히 당국이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다시 체포되어 처형당했고 따라서 성 요한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문들이 그렇게 닫혀있는 것은 바깥의 문이 있는 것을 말 한다. 가장 가능한 그런 은신처는 친구의 집이었을 것이고 그와 그의 제자들이 익숙하게 모이던 곳이고 음식이 있고 상처를 치료 받을 수 있던 곳이었을 것이다. 바깥의 문들이 닫혀지면 그를 집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할 수 없게 막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는 그들이 오기 전에 그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성 누가의 에마우스의 여행의 이야기에서 보면 부활된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능을 가졌다고 하고 있다. 그가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예수는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하였다.

아써 라이트 박사는 지금까지 예수가 한 순간에는 엠마우스에서 다른 순간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 순간에는 감각의 세계이고 한 순간은 영혼의 세계이다. (그리스도의 주장, '해석자' 1916년 7월 p.385), 분명히 성 누가의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의 제자가 예수가 죽은 후 엠마우스를 떠났고 예루살렘의 한 밀실에 도착하여 그를 본 것이다. 성 누가가 예수가 아직도 그의 살과 피를 가진 육신을 가지고 영혼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즉각 증명함으로써 그는 곧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가 도마에게 그의 손가락으로 못 자국에 집어넣으라고 말하면서 의심을 갖는 제자에게 '손가락인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⁵ 라고 말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면 그가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먹은 게 사실이라면 또한 그가 무덤을 빠져 나올 때 동산지기의 옷으로 변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걸어서 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체포 되지 않으려고 모든 가능한 주의를 기울인게 사실이라면 문자 그대로 닫힌 문을 가진 방에 갑자기 출

5. 누가복음 24:39

현하였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천상의 육신이 아니라 뼈와 살을 가진 육신을 가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복음주의자들의 설명으로 십자가 형이 있는 후 40여일 동안 그는 구름과 같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신화이고 따라서 그것은 그의 육신이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성립하기 때문에 그가 기포로 된 구름위로 올라갔다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다. 진흙으로 만든 몸을 올릴 만한 힘이 구름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불멸의 육신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가 천상의 육신이라고 주장하면 그의 진흙으로 만든 육신을 어디로 갔는가? 그는 무덤 속에 그것을 남겨 두지도 않았고 그가 고향에서 머무는 동안 그가 진흙으로 만든 육신으로 이동하였음을 본다. 그가 그의 죽음의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작자들의 주석으로부터 인용함에 따라 그것은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⁶ 이라고 말한 것에 절대적으로 모순이 있음을 발견 한다. 분명히 그는 하늘에서 뼈와 살로 된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고 따라서 그는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 그의 육신을 가지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것은 너무 우스운 일로 반박할 가치도 없다.

승천에 대한 이론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마태는 승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무덤에서 나온 예수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⁷ 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마가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전갈을 보냈다고 확인하고 그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

6. 요한복음 3:13

7. 마태복음 28:16

님 오른 편에 앉으시니라'⁸라는 말을 하였을 뿐 어떤 장소의 상세함도 없이 그가 언급한 말에 연관성을 두지 않았다.

마지막 문장 하나님 오른 편에 앉으시니라는 전체적인 설명을 약화하는 것으로 작가 자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느님의 오른 편에 예수가 앉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마가의 마지막 문장은 '그들은 나중에 덧붙여 졌는데 2세기 초였을 것이거나 아니면 그 마지막 부분이 없어지거나 결함으로 여겨졌을 것이다.'⁹ 마가의 설명은 따라서 이런 교리의 근거로서 취해질 수 없다.

성 누가의 설명을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¹⁰

이처럼 성 누가에 따르면 그는 그의 동료들과 달리 승천하는 의미를 달리 했다.

다시 사도 행전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¹¹ 라고 쓰여있다.

이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은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가 산꼭대기로 가서 구름과 안개로 뒤 덮힌 정상에서

8. 마가복음 16:19

9.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II, Vol. 17 p730

10. 누가복음 24:50-51

11. 사도행전 1:8

그는 그들에게서 숨어버렸을 것이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다른 길을 통하여 어딘가 그의 적과 유대인의 기구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갔을 것이다.

요한은 예수가 테베리우스 해에서 그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한 ‘나를 따르라’고 하였으며 베드로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다.¹²

틀림없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갔다고 요한이 분명히 말하는 마지막 구문이 있다. 그러므로 마가와 요한의 설명은 이 이론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둘 다 이 승천에서 침묵하고 있다. 마가의 승천에 대한 설명은 어떤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 의한 원래의 설명에 덧붙여있다. 누가는 승천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하였으며 예수가 그들을 떠나면서 작별 인사할 때 제자들이 같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권위자로서의 불완전성의 증거는 그들이 어떤 중요한 점에서 일치하지 않은 점이다. 두 사람은 베다니로부터 그가 하늘로 가는 것을 따라가서 올리브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온 세 번째 사람이 있었다. 마가는 그는 갈릴리로 갔고 그의 제자들을 만났다고 하였고 요한은 그가 티베리우스에서 제자들과 헤어졌다고 하였다. 위갈은 이렇게 썼다.¹³

승천은 초기 기독교 문헌에 언급되지 않았었다. 즉 사도행전에서는 더욱더 명확하지 않았고 초기의 복음서에서 언급되었

12. 요한복음 21:16:20

13. 위갈 - 〈우리의 기독교에서의 이단〉, pp 99-101

다. 즉 성 마가의 것으로 ‘그는 하늘에서 받아들여졌다’ 라는 말로 아주 희미하고 모든 성경 학자들이 실제로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라고 인정하는 책의 마지막 12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덧붙여 말한다.

그러한 하늘로의 승천은 이교도의 신의 삶의 신화적인 전설에 통상적인 종말을 고하는 것으로 엘리아의 전설적인 삶도 그러하였다. 아도니스 신은 그의 숭배가 기독교가 성장하는 땅에서 번성하였는데 그의 부활 후에 그의 추종자들의 참석하에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찬가지로 디오니소스, 헤라클레스, 히아신스, 크리쉬나, 마트라와 다른 신들도 하늘로 올라갔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그러한 불확실한 근거에 따른 승천의 이론의 기초가 틀렸다는 것이다.

8 장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 승천하였다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나

우리가 이전 장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때 살아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듯이 이는 사실인데 초기의 기독교인 즉 성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있었다는 것을 왜 믿게 되었을까? 그들의 사도행전으로부터 그들의 설교가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주가 되었고 이것은 오늘 날 대부분의 기독교 분파들이 그러한 것이 분명하다. 틀림없이 그러한 입장을 장황하게 묘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를 저버리고 그가 체포되었을 때 공포 속에서 도망쳐버리고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 관중으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무덤에서 나올 때 도 없었다. 그가 다시 체포됨이 두려워 공중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그는 그의 제자들을 비밀한 장소에서만 만났다. 그가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되고 그들에게 그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면 그의 메시아 임의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렸을 것이며 그들은 ‘저주 받은 죽음’을 당할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념으로 그를 거부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을 그들에게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워주려고 하였다. 실제로 그가 죽음의 턱 앞에서 도망한 것은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좋은 증거였다. 그것은 그것을 강화시켜주었다. 그가 나라를 떠난 후에 그들에게 티베리아스에서 작별인사를 할 때 요한이 말하였듯이 그들은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그의 주장을 유대인에게 변호하려고 까지 하였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들을 박해하였다. 몇 명은 즉사 시켰고 몇 명은 돌에 맞아 죽었다. 유대인들은 그의 주장을 반박하고 거부하였으며 제자들이 그들의 메시아가 저주받은 죽음을 하도록 하게 한 것을 확인 시키면서 모욕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은 잔인한 박해의 두려움으로 그가 도망한 것을 말할 수가 없었으며 따라서 그들이 그 사실을 숨기고 예수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으며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믿게 함이었다. 그리고 그가 ‘하늘’^(a)로 승천하였으며 그가 안전한 장소로 갔다는 것을 의미 한다.

(a). ‘하늘’이란 용어는 어떤 고양된 장소를 위하여 사용 된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9-20에 보면 주는 시나이 산의 꼭대기로 내려와서 모세에게 이야기 한다. 그러나 20장 22절에는 “하늘” 이란 단어가 산 꼭대기 대신에 사용되었다. 게다가 89a Ex. R. IXI에서는 모세가 하늘로 올라가며 그는 41일일째 오전에 내려왔다고 쓰여있다. (유대 백과사전, 모세) 그리고 Ex 24-28에서는 모세가 구름 속으로 가서 산으로 올라갔으며 모세는 40일 낮과 밤 동안 산에 있었다고 되어 있다. 비슷하게 예수도 올리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는 구름을 타고 시야에서 사라졌다. 제자들은 그가 하늘이란 단어로 사용된 의미로 그가 산 꼭대기로 간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이 응답은 유대인에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저주 받은 죽음을 당했다고 믿었다.

게다가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의 설교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었다. 유대인들이 그의 제자들의 낮은 신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하며 예수 자신은 그들은 납득할 수 없었다. 다른 한편 그들은 다른 국가들 사이로 그들의 믿음이 퍼져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고 먼저 그들이 다른 국가들은 모세의 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로 예수가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설교를 금하였기 때문이다. 이 약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울이란 사람이 떠오른다. 이 사람은 후에 바울로 알려진 사람으로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고 그의 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렇게 되면 그가 인정될 기회가 없기 때문이었다.

성 바울의 선견지명

성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견지명은 사도 행전 9, 22 와 26장에 언급되어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조심스럽게 별개로 읽는다면 그것들이 완전히 모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9장 3-6절의 한 예에서 ‘하늘로부터 반짝이는 빛이 그를 감싸고 땅으로 내리면서 소리가 들리니.. 사울아... 그러는 동안 그는 말 없이 서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22장 9절에서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하였다.

9장 22절에서 그는 위대한 빛이 그 주위를 감쌌다고 하였으나 6장에서 그는 그 주위의 반짝이는 빛과 그와 함께 같이 있는 이들을 이야기 한다.

9장에서 우리는 그가 땅으로 와서 다른 이들이 말 없이 있고 그러나 26장 14장에는 그는 그와 모든 그의 동료들이 땅으로 왔다고 하였다. 22장에서 그는 그가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예수는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된 일을 하라고 하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26장에서 그는 이것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 자신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의 모순은 그가 사도라는 것을 기초로 한 것으로 우리가 신빙성을 의심하게끔 한다. 우리가 그가 그런 미래를 본다고 하는 주장을 인정하면 그런 시각은 사도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굳건한 기초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다마스쿠스에서 기독교를 포용하고 직접 시나고그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는 신의 아들이며 다마스쿠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동일시 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였다.¹

이 전에 스테판은 유대인에 의하여 돌로 쳐 죽임을 당했고 그는 그 옆에서 있으며 그의 죽음에 동의하였다.² 그리고 예루살렘에 교회에 대한 굉장한 박해가 있었으며 그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해외로 뿔뿔이 흩어졌다.³

1. 사도행전 9:23

2. 사도행전 22:20

3. 사도행전 8:1

성 바울, 이단에 가다

이와 같이 유대인의 손에서 박해를 경험하고 예수의 주장을 거부하고 또한 기독교의 완만하고 예상치 못한 발전에 만족하지 않은 그는 그의 새로운 지위를 연구하기 위하여 다마스쿠스의 남쪽 지방 아라비아⁴로 불리우는 지역으로 은신하였다.

그의 명상은 그에게 예수에게 조차 나타나지 않은 생각을 떠오르게 하였다. 기독교는 이방인에게 설교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개종 후 3년이 지나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다.⁵

그는 제자들의 집단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들은 처음에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바르나바스를 통하여 제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그의 관점을 이야기 했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용감하게 설교함으로써 그의 진지성을 확인시켰다. 이교도들에게 그의 행적에 따라 그는 15일간만 베드로와 함께 있었으며 야곱을 제외한 다른 제자를 만나지 않았다.⁶

스테펜의 죽음에 따른 박해의 결과로 이 시점까지 해외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은 페니스, 사이프러스 안티오크등으로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에게만 설교하였다.⁷

이 때 바울은 유대인의 개종을 절망하였다. 그는 단지 이방인들에게만 개방적으로 설교하기로 결심하였다.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에 반

4. 갈라디아서 1:17

5. 갈라디아서 1:18

6. 갈라디아서 1:19

7. 사도행전 11:19

하는 것임에도 그는 철저히 그의 제자들을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금하였다.⁸ ‘이방인에게 사마리탄의 시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에서 잃은 양에게로 가라’ 또한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로 만이 갈 것이다.’^{9,10} 그리고 ‘나는 아이들의 빵을 취하지 않고 그것을 개들에게 던져주리라’ 라고 하였는데 그때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설교하지 않기를 단념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때 그는 예수 자신이 그에게 그런 예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출발에서 나는 너희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¹¹

8. 마태복음 10:5-6

9. 마태복음 15:24-26

10. 복음서에는 예수가 이스라엘로 보내지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구절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마리아는 천사가 ‘예수는 그의 아버지 다비드의 왕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누가 1:32)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통치할 것이다” (누가 1:33. 베들레헴에 관하여 마태는 “이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2:6). 산상 서약은 이스라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국가들과 옆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음에도 그들에게 설교하지 않았다. 그는 12제자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인간의 아들이 그의 영광의 왕좌에 앉으며 너희들은 12개의 왕좌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의 12개의 부족임 이다” (마태 19:28)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은 그의 임무가 유대인에게만 한정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증거이다. 빌라도는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말하였다. (마태 17:87) 그리고 모든 국가의 왕은 아니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설교를 시작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예수가 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점이었다. (사도행전 11장) 이것은 “모든 국가로 가서 그들을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하라” (마태 28:19) 가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다. 제자들은 이 세 사람으로 이름으로 전혀 기도하지 않았으며 어떤 구절에서 국가라는 단어는 부족으로 나와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의 두 번째 출현과 연관되는 것으로 그것은 신에 의하여 이슬람의 모든 국가를 지도하도록 보낸 카디안의 아마드의 도래를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세계 보편적인 종교이기 때문이다.

11. 사도행전 22:18-21

제자들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계속 설교를 하였고 그의 임무에 성공적이었다. 심하게 박해를 받았던 제자들은 약간은 그와 동의를 하였고 그는 그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으며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설교하게 되었다.¹²

모세 율법의 폐지

그는 더욱이 이방인들 속에서의 성공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가 주창하고 성실히 실천했던 가르침을 제자들이 수정해야 한다고 깨달았다. 그는 모세 율법의 의식들은 결코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율법의 폐지를 선언하고 그의 활발한 상상력의 종합 즉 로마인들의 사상과 그리스인들의 철학으로 이 기독교의 새로운 방향으로 모든 의식과 규정을 새로이 했다.

1.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¹³

12. 갈라디아서 2:7-12

13. 로마서 3:20-28

2.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¹⁴
3.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¹⁵
4.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¹⁶
5.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¹⁷

이 가르침은 예수의 그의 생애의 율법에 의한 가르침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다. 그가 유대인에게 체포되기 전 그는 그의 제자들과 축복을 하면서 성찬을 하였다.¹⁸ 그는 나병환자를 깨끗이 씻으면서 말하였다.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¹⁹ 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그들과 함께 제

14. 로마서 6:14

15. 갈라디아서 2:21

16. 갈라디아서 2:16

17. 갈라디아서 5:2

18. 마가복음 14:12-14

19. 마가복음 1:44

단에 공물을 함께 바쳤다.²⁰ 그의 제자들은 율법에 따라 행동하였고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여인들은 몰약과 연고를 준비하였고 십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휴식하였다.²¹

성바울은 따라서 율법을 폐지하는 권리도 수정할 권리도 없다. 그는 메시아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사도 역시 아니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할례 할 팔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이다’²²라고 하였고 사도들은 할례하였다. 다시 예수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²³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하였다.²⁴

바울의 인간이 율법에 작용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전적으로 오류이다. ‘사가랴와 그의 부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²⁵ 예수의 사도들은 동일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 야곱은 한 때 예수의 형제로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였다.²⁶

20. 마태복음 5:24

21. 누가복음 23:56

22. 누가복음 2:21

23. 마태복음 5:17

24. 누가복음 16:17

25. 누가복음 1:6

26. 사도행전 15:1

바울의 가르침은 율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사도들과 다른 이들에 의하여 침묵 속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런 변화에 경종을 울리고 몇몇 이들은 유데아로부터 바울의 작업 중심부에 가서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율법의 성실한 복종과 그들이 구하지 못했던 모세가 하던 식의 할례와 같은 성찬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였다.²⁷

결과적으로 그들과 바울 사이에 투쟁과 논쟁이 일어났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의 추종자들에게 가서 회의를 소집하고 사도들과 순위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가졌다.

신랄하고 뜨거운 논쟁이 뒤따랐다. 그 당시의 바울의 일은 결정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다른 사도들은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다른 한편 유대인에 대한 설교자들은 그러한 발전을 하지 못하였고 유다이즘에 대하여 점점 밀려나가고 있었다. 베드로의 부상과 바울의 관점을 지지하는 두 가지의 영향 요소가 있었다. 결국 야곱은 연설을 하였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었다.(사도행전 15:19)

나의 충고는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 것으로 이방인들
중의 그들이 신에게 갈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다음의 편지가 그들에게 쓰여졌다.

그 편에 편지를 부쳐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 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

27. 사도행전 15:23 30

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찌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 편에 편지를 부쳐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갈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²⁸

모세 율법을 대체하기 위한 그리스도

그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바울이 그의 노력이 성공이 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것은 잘 지켜나갔다. 그는 다시 그의 활동에 놓여진 한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율법을 폐지하려고 하였으며 예수의 피속에 그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28. 사도행전 15:23-29

언제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²⁹ 라고 하였으며 새로운 개종자는 선생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라고 하였다.³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뒤에 그들의 메시아가 '저주받은' 죽음을 가지게 하였지만 죽음에서 소생하게 했던 유대인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그의 부활은 증명하기 어려웠다. 그는 공중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항상 숨어 있었고 그렇게 머물렀다. 그가 다른 나라로 은유적으로 이동하여 하늘로 승천한 것이다. 이 대답은 이전의 것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그가 '저주받은' 죽음을 당했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바울이 율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율법을 따르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변제하였을 때 그는 유대인들에게 용감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³¹ 라고 하였다.

죄가 공물과 희생으로 사함이 된다는 믿음이 유대인에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 이이 선지자 미가가 말했다.

29. 갈라디아서 3:24-25

30. 히브리서 8:13

31. 갈라디아서 3:13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³²

바울은 율법의 폐지에 대한 기초로서 그의 믿음을 두고 말하였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³³ 라고 말하였다.

다시 말하기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³⁴ 라고 하였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³⁵ 라고 하였다. 로마서 5:10을 참조하라.

32. 미가 6:6-7

33. 히브리서 9:12-14

34. 골로새서 1:14

35. 고린도 1:35, 로마서 5:8, 10도 참조.

이방인들에 관하여 그들은 내가 다음의 장에서 보여줄 그들의 신에 관한 것을 믿는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의 이방인에 대한 십자가에 가르침과 예수의 부활을 ‘나의 복음서에 따라 죽음으로부터 소생하였다’³⁶ 라고 말하였다.

‘예수가 소생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가르침은 허망하고 너희들의 믿음도 허망하다’³⁷

바울은 로마인³⁸으로 그의 시리아까지의 여행 등으로부터 이방인의 정신 상태를 알았으며 이방인의 이전의 사고에 그의 가르침을 두어 쉽게 동화해나갈 수 있었다.

바울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가 예수가 십자가에 있을 때 참석하지 않았고 그의 무덤으로부터 나올 때와 그의 제자들에게 작별인사를 할 때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약 성서에서도 분명하다. 그의 개종 후 3년이 지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15일을 머물렀다. 15일이 지난 후 그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르침의 진실에 대하여 사도들을 납득시켰다.

바울이 십자가의 원리와 부활의 원리를 발전시킨 이유는 단지 이방인들은 율법을 폐지함으로써 개종하려는 것뿐 아니라 그들에게서 죄를 사하고 율법의 규율로부터 면제하려 함이었다. 그를 지지하는 사도들 중에서 그를 따르고 그의 가르침의 방법을 채택한 것이 베드로였다. 우리는 복음에서 베드로가 일관성이 없고 그의 성격이 흔들거

36. 디모데서 2:8

37. 고린도 15:14

38. 사도행전 22:25

리며 그의 믿음에서도 확고하지 못함을 보았다. 마태복음에서 그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³⁹

그러나 그 후 그는 예수를 부인하고 선서와 함께 그를 모른다고 하였다.⁴⁰ 바울은 그 자신이 증인으로 베드로가 믿음이 약하다고 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하지만 베드로가 안티오크로 왔을 때 나는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심히 상심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성찬을 하였던 야곱으로부터 오기 전에 그들이 그와 헤어지기를 두려워하고 할례를 두려워하였다. 다른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그로부터 멀어지자 바르나바스 역시 그들과 함께 떠나도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서의 진실에 따라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말하였다. ‘너희들이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생활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면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써 살도록 왜 강요하는가.’⁴¹

39. 마태 복음 26:33

40. 마태 복음 26:72

41. 갈라디아서 2:11-14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바울의 영향 하에서 예수의 피를 믿고 그의 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대하여 설교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드로가 배고픔을 느끼고 먹기를 원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기절을 하도록 버려두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한데 또 두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⁴²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사탄으로부터의 유혹 혹은 그들 자신의 사고라고 알 것이다. 신의 말씀에 반대한 것은 그를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신은 모세에게 ‘너에게 불결한 것을 버시고 너희는 그들의 육신을 먹지 않으리니’⁴³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들은 목소리는 모든 동물들이 깨끗하다는 것으로 신의 목소리가 아닌 악마의 목소리였다.

바울로서 우리는 그를 그 자신이 설명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다. 그가 말하였다.

42. 사도행전 10:10-16

43. 신명기 14:8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⁴⁴

그는 가방 속의 고양이를 놓아 주면서 말하였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⁴⁵

바울의 이 정책은 그를 예수의 가르침을 수정하게 하였고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장하도록 하였다. 사도가 되지 않음에도 그는 그 자신이 예수와 같이 살았던 사도라고 주장하였다. 내가 위에 언급하였던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의 부활에서 예수가 공중에서 그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냈다고 하였으며 복음서의 저자들의 네 개의 설명도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사도임을 확인하면서 그들 모두를 반대하고 예수를 세파에서 봤다고 말하고 12명의 제자들과 나머지 500명의 동포들과 그리고 야곱과 다른 모든 사도들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가 마지막 본 것은 바로 나였다.⁴⁶

44. 고린도서 9:20-21

45. 로마서 3:7

46. 고린도서 15:6-9

라고 하였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과 베드로와 그를 따르던 자들은 예수에 의하여 가르쳐진 종교를 변화시켰다. 그들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으며 그는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저주 받은 죽음을 당하였다고 믿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다. 점차 이 용이한 종교는 바울주의로 불리었고 오늘 날 기독교로서 알려진 창시자들의 가르침의 원칙을 다 휩쓸어 버리게 되었다.

9 장 이교사상과 바울

예수는 앞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에게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교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 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¹

그의 선교를 통하여 예수는 이스라엘인들에게만 설교하였고 그의 제자들도 그러하였다. 예수가 또한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었다면 그들에게도 선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유대인과

1. 마태복음 15:24, 26

같이 살았으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마태 복음 18:19 에서 ‘모든 국가를 가르치고’와 같은 구절이 있는데 이는 예수와 그의 실천에 대한 말과는 반대가 되는 것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의하여 추가되었거나 아니면 여기서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 부족을 의미 한다. (성경 백과사전 참조) 이 구문이 예수의 두 번째 도래와 연관이 있다면 예언성은 아마드에 의하여 충족될 것이다. (신은 그에게 평화와 축복을 주셨다) 그는 아마디아 운동의 선구자이며 내 책 ‘이슬람’이란 것에서 쓰여졌다.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제자들의 실천에 반대하여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생각이 나온 것은 성 바울 이었다. 예수 자신과 그 동료들은 예수의 진정한 임무를 모르고 있었고 성 바울은 예수를 만나지도 들을 수 있는 특권도 없었지만 그가 보낸 실제의 임무를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점에서는 조롱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예수는 명백히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방인들에게 가지 마라.²

그러나 성 바울은 유대인들이 반대하며 분노하였지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분명하다 지금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간다.³

그의 예수에 의하여 설정된 한계를 넘는 경과는 예수가 예언한 것이 되었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2. 마태복음 10:5

3. 사도행전 18: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⁴

성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하였을 때 이방인들의 태도는 그로 하여금 예수의 가르침의 원리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소개하고 그들이 신을 믿는 방법을 가르쳤다. 밑에 언급한 예와 같이 몇몇의 이방인들의 신을 믿는 방법이었다.

1. 서아시아와 그리스 땅의 아도니스의 축제 때 신의 죽음은 연례행사로 쓰디쓴 울부짖음으로 주로 여인들에 의하여 곱을 하게 되었다. 그의 이미지는 매장식으로 향하고 바다나 샘에 던져졌다. 어떤 장소에서 그가 다음날 부활하는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들은 슬퍼하지만 희망이 없이 그들은 잃은 이를 위하여 노래하고 다시 돌아 온다. 바빌러스의 아스타르테의 페니키아 법률에서는 아도니스의 죽음은 매년 애도되었으나 다음날 그는 소생한다고 믿어지고 그의 숭배자들에 의하여 승천한다고 되어있다.⁵
2. 수형된 신 - 과거시대에는 시벨의 봄 축제에서 아티스의 역할을 하고 그의 이름을 가진 성직자들이 수형되거나 성스런 나무에서 처형되었다. 이 야만적인 관습은 후에 약화되었는데 여기서 성직자들의 몸이 처형되는 대신에 나무에 매달려 성스러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으로 되었다.

4. 마태복음 7:6

5. 제임스 프레이저 경의 아도니스, 아티스와 오시리스 p. 183-84, 막시밀리언 출판

성스러운 동굴에서 사람과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져 성스런 나무에 매달렸다. 사람의 희생물은 오딘 신에게 받쳐졌는데 이는 정기적으로 하거나 매달거나 칼로 처형을 하거나 하였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나중에 창으로 상처를 내게 하였다. 이처럼 오딘은 이러한 수형의 신의 주였다. 그는 교수형 틀 밑에서 상징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는 그 자신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희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는 신들의 신적인 힘을 마술을 배움으로써 어떻게 얻는가를 설명해주는 구문에서 알 수 있다.

나는 내가 바람 부는 나무에 매달린 것을 아네

9일 전 밤 동안

창으로 상처를 입고 오딘에게 나 자신을 나에게 받치노라⁶

3. 아서 위갈은 쓰기를 기독교의 초기의 기지 중의 하나가 안티오크의 것으로 그 도시는 매년 타무스 혹은 아도니스의 죽음과 부활을 숭배하였다. 아도니스의 의미는 '주'였다. 베들레헴에서 그 장소는 초기 기독교인에 의하여 예수의 탄생 장면으로 선택되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있었던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단의 신과의 혼동으로 성 제물은 사실상 타무스 혹은 아도니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여겨진 것을 알고 당혹해 하였다. 이 신은 잔인한 죽음을 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믿어진다. 그의 축제에서는

6. 위 인용책 p.243, 244

여러 곳에서 행해지는데 죽음이 애도되고 그의 시체는 매장 위하여 물로 씻겨진다. 그 다음날 그의 소생이 기쁨으로 축복되고 ‘주가 부활하셨다’ 라고 하였다. ‘그의 승천’에 대한 축하는 그의 숭배자들의 눈에는 축제의 마지막 장면이었다.⁷ 아도니스의 종교로부터 차용한 것이 이렇게 복음의 한 특성으로 남아있으며 사실상 이것은 다른 이단의 종교에서도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다.⁸

4. 기독교에 영향을 준 다른 종교는 스파르탄 신 혹은 신적인 영웅으로 사고로 화살에 맞아 죽은 히아신스 신의 숭배이다. 3일간의 축제가 매년 봄 혹은 초여름에 열린다. 첫날은 그의 죽음으로 애도 한다. 둘째 날에는 그의 부활이 기쁨으로 축하되고 세째날은 그의 승천이 축복을 받는다. 그의 무덤은 그가 처녀인 여동생과의 하늘로의 천사들 혹은 여신과 같이 승천하게 된다.⁹

5. 그리고 다시 아티스의 숭배가 있다. 아티스는 위대한 모성 혹은 동정녀 나나로서 인간과의 결합 없이 수태를 한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와 같은 시벨의 아들 성자 세퍼드이다. 그러나 그의 남성으로의 성숙 되는 시점에서 그는 남성으로써 절단되고 성스러운 소나무 밑에서 죽음의 피를 흘린다. 로마에서는 죽음과 부활의 축제가 매년 3월

7. 위갈, 우리 기독교에서의 이교도 p. 110,111 헛치슨 출판사, 런던

8. 위 인용책 p.113

9. 위 인용책 p.155

22일에서 25일까지 열린다. 이 축제에서 소나무는 3월 22일 ‘베어지고 신의 모습이 나무에 매달려진다.’¹⁰ 이와 같이 아티스는 나무에 매달려 살해 된다.’ 이는 성경의 구절과 같다. 이 신의 모형은 나중에 무덤에 매장 된다. 3월 24일은 피의 날로서 대 제사장 자신이 아티스로 변하여 인간의 제품의 피를 흘리게 된다. 이것으로 그 자신을 희생 한다. 이것은 헤브류의 사도들의 말을 상기 시켜준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된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하는가?’ 그날 밤에는 제사장들이 무덤으로 가서 그 안으로부터 불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셋째 날에는 죽음으로부터 신이 승천한 것을 보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본다. 25일째 날에는 부활이 기쁨으로 축복되고 성찬이 열린다. 그리고 피로써 침례를 하고 그들의 죄를 씻어내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6. 아도니스의 숭배의 중심사상은 신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는 수태지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수태지는 그 자신의 화신이다. 이와 같이 신은 집행자이며 희생자이다. 히브리서의 사도 행전에 이런 사상이 뚜렷한 데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기술되어 있다. 즉 죄를 씻어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묘사 된다. 유사하게 미트라를 수소를 희생하고 이 수소가 그 자신이 된다. 염소와 수소는 디오

10. 위 인용책 p. 116-117

니소스에게 제물로 바쳐지지만 그들은 다시 그 신으로 되는 것이다. 곱은 아테미스에게 제물로 받쳐지고 이 곱도 마찬가지로 아테미스 자신이 된다. 이러한 예는 많다. 이처럼 신은 그 자신의 희생으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없어진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다. 일반적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인간의 희생은 신의 이로운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고와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테르툴리온은 아이들이 농경의 신인 새턴을 위해 제물로 받쳐지고 이는 티베리우스에서 최근까지 있어왔다. 주리어스 시저의 시대에는 디온 카시우스가 두 군인을 전쟁의 신인 마르스를 위하여 제물로 바쳤다. 다른 예들은 그리스도 시대에 인간의 희생의 효과성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일반적이었는가를 보여준다.¹¹

‘죄를 부여하는 태고 적부터의 유대인의 관점은 확고하게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었다. 양, 염소 혹은 다른 동물을 죄의 면제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정규적인 관습이고 이를 속죄양^(a)이라고 부른다. 즉 민족의 모든 죄를 가지고 황야로 끌려 가는 맹수들의 희생물이 되고 여러 가지 변형으로 이것이 내려왔다. 모든 다른 이교도의 신들에 대해서도 인류를 위한 고통과 피흘림이 있다. 그들의 제단은 인간과 동물의 희생물의 피와 고통으로 죄의 면제를 위하여 살해되었다.’¹²

11. 위 인용책 p. 154-155

(a) 속죄양은 자주 근본주의자적인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예수의 희생을 위해 인용된다. 사실상 속죄양은 희생된 것이 아니라 황야로 산채로 내보내 졌다.

12. 위 인용책 p.156-157

제임스 프레이저 경은 말하였다.

신성을 가진 인간 혹은 동물을 속죄양으로써 채용하는 것은 특별히 주목 된다. 악은 그 후에 살해되는 신에게 이전된다고 믿어진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인간 혹은 동물의 신을 죽이는 것이 일반화되어있는데 이는 그의 신성한 생명을 시대의 피해로부터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악과 죄의 일반적인 추방을 매년 일회씩 거행한다. 이제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 관습에 결합된 경우 결과는 죽어가는 신을 속죄양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그는 살해당하고 원래적으로 죄를 없애지 못하지만 신성의 생명을 그러한 구시대의 퇴락으로부터 구해내게 된다. 그러나 그가 어쨌든 죽음을 당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그들의 고통과 죄의 짐을 지게 하는 기회가 되며 그는 그것을 짊어지고 무덤 밖의 알지 못하는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다.¹³

성 바울에 의하여 이교도들에게 소개된 이교도의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이야기였는데 이를 그들의 믿음과 비교한다면 바로 그 예수의 이야기는 이교도들의 신들의 이야기나 복사판이다. 사실상 예수의 제자들은 그의 십자가형과 부활을 강조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새로운 원리를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돌아와서 이교도들에게 선교할 때까지 들은 적이 없다.

기독교의 첫 순교자는 인정하듯이 스테판이며 그의 순교는 바울을

13. 프레이저경의 황금 가지 6부, 속죄양 p. 226-7 런던

깊이 감동시켰다. 그는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경이와 기적을 행하였다’ 라고 하였다. 그는 유대인들과 많은 토론을 하였다. 그는 성전의 숭배를 거부하고 그의 모세와 신에 대한 모독적인 단어로 그는 체포되었다. 그리고 그는 신성한 책에 입각한 것에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그러나 단 한마디 그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이 주가 되었다. 주의 부활은 그의 신념의 중심이었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연설에서 그는 다른 무엇보다 부활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바울 혼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강조하였고 이 부활에 열광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소생’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교는 헛되고 당신의 믿음도 헛되다.¹⁴ 라고 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¹⁵

또한 그는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찬양한 사람이다.¹⁶ 제자들의 초기의 그룹은 그의 혁신을 달가워하지 않고 그를 거부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유대인들은 그를 거절했지만 쉬운 종료가 되었고 이단의 로마 제국의 종교를 정복하게 된 것이다. 이교도의 믿음과 의식은 행해지고 아티스의 숭배가 예수의 것과 혼합되었다. 그리

14. 고린도전서 15:14

15. 갈리아디서 3:13

16. 갈리아디서 6:14

고 ‘325년에는 니카에아의 위원회가 십자가형이 지난 3세기가 지난 후 예수를 신으로써 교회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¹⁷ 이처럼 바울에 의하여 창안된 원리는 예수를 신으로서 불명의 존재로서 취급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직도 유일신으로 아무도 그 외의 것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예수는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예언하였는가?

1927년 내가 다마스쿠스에 있을 때 서면으로 나와 그 당시 다마스쿠스의 기독교 선교를 맡고 있던 알프레드 벨슨 목사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다. 주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다음의 질문을 하였다.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그가 죽음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소생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인가?’ 나의 대답은 당신이 긍정적으로 예수에 대하여 말하여지는 정확한 말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다. 바울에 의하여 고안된 십자가 이론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인정되는 시점에서 이 책들이 쓰여진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 누가는 바울의 동료였다. 그는 바울을 항상 어디든지 따라다녔다.¹⁸ 그는 그와 함께 로마에도 있었다.¹⁹ 그리고 마가는 파피아스의 단편에 의하면 그의 추종자였으며 베드로를 위한 통역가였다.²⁰

17. <기독교의 이단> p. 168

18. 사도행전 16:12 28:13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19. 데모데서 4:11

20.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2판 17권 p.729

게다가 다른 두 개의 복음서의 작가가 누구인지가 논의되었다. 우리가 바울의 이론을 지지 하기 위한 이 책의 몇 구문을 들추어낸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것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것으로 이 예언은 각 복음서에 다르게 쓰여있었다. 마태는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그는 배신을 당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3번째 날 다시 소생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은 심히 걱정하도다’²¹ 라고 쓰고 있다. 이 구문은 그들이 그가 말한 것을 이해하고 걱정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누가는 예수가 인간들의 배신에 의하여 넘겨질 것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²² 라고 하였다. 이것은 네 번째의 복음서로부터 그가 죽음으로부터 소생한다는 어떠한 예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 한다.²³ 그리고 마가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제자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울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고 그녀를 보았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두 사람에게 나타났고 그 두 사람은 말하였지만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11한명에게 나타나 그들의 불신을 이야기 하고 그의 단단한 심장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그가 부활한 후에 그를 본 사람은 그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⁴ 부활에 대한 그들의 한탄과 불신은 이런 종류의 어떠한 예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세 번째, 그의 예언의 두 번째 부분으로 ‘그가 삼일째 되는 날 소생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요한 복음 20-1

21. 마태복음 17:23

22. 누가복음 9-45, 마가 복음 9:32

23. 요한복음 20:9

24. 마가 복음 16:10-14

과 누가 복음 24-1에 따르면 그는 하루 날과 두 밤을 무덤에 있었으며 3일은 아니었다. 3일 방은 예언자 요나//가 고래의 배 속에 있는 날들이었다. 신성의 요한에 의하여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비슷한 것을 보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말로서 첫 부분은 거의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살해되었다’²⁵ 는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참고이거나 그는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고문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 많은 예언이 있었다. 그 중 내가 이 첫 장에서 언급한 것으로 신이 그들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구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의 삶에 대하여 절망 하였을 때 신이 그를 죽음에서 구하고 그가 예언했던 것을 완성하였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서 살아 있었듯이 무덤에서 살아있었던 것이다.

25. 요한계시록 5:6

10 장 구원과 속죄

이교도들이 아도니스, 아티스, 오시리스 미트라 등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었던 성스러운 고통,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지난 장에서 분명히 말하였다. 원시적인 반은 문명화된 여러 국가의 우상 숭배자들 특히 서아프리카인들은 많은 다른 형태의 희생물을 가진다. 다호메이의 매년의 ‘관습’은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수백명의 인간의 희생자가 희생되었다. 인간의 희생의 세 가지 주요 형태가 이 분야에 있다. (1) 속죄양 (2) 선구자 (3) 속죄방법 이다. 그러나 이것들의 결합은 자주 있다. 희생자는 일단 잡혀서 배부르게 먹는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이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손이 사용되어지고 그의 머리는 재로 덮는다. 희생의 자리에서 세 사람이 에워싼다. 두 번째는 우두머리와 제사장들에게만 열리고 셋째는 관리들과 그의 보조자에게만 열린다. 희생자의 피는 신들에게 제공 된다.¹

1.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11편, 희생

동물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생각은 유다이즘에서 발견 된다 (아마도 바빌론의 이교도들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희생을 믿지 않았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구하기 위하여 희생될 것이라고 믿었다.

예수 자신은 그가 확실히 신과 인간사이의 위대한 화해와 원죄와 현세의 죄의 용서로서의 의미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그의 죽음이 희생적인 속죄라고 말하지 않았다. ‘인간의 아들이 와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² 라는 것이 분명히 복음의 저자들에게 의하여 쓰여있으나 그것은 예수가 들었음에도 예수의 말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그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는 그의 추종자들을 의미 함이 없이 그의 명분을 위하여 죽어갔다. 최후에 만찬에서 그가 사용한 말은 보통 희생과 속죄의 성격에 대한 것을 암시하지만 잘못 해석된 것이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14:24)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신앙 서약이 나의 피로다’ 그리고 누가가는(22:20) ‘이 컵은 내 피 속에 너희들의 신앙서약이 들어있다’ 그리고 마태의 복음서의 마지막에 ‘죄의 속죄’를 위하여가 추가되어있다.(26:28) ‘가장 보수적인 비평은 이것을 복음서의 작자³들에 의하여 설명으로 주저 없이 추가한 것으로 그것은 단지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그 명분을 위하여 죽었다’⁴ 라고 칼리슬의 학장인 해스팅즈 라스달이 썼다. 바울과 그의 협조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인정하였기에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세상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으

2. 마가복음 10:45

3. 라스달 <속죄의 의미>

4. 위갈 “기독교의 이단” p.160

로 나타냈으며 이것은 그들 이방인들이 그들의 종교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유사한 의식이었다.

성 바울은 ‘예수는 그의 피를 통하여 속죄하였고 죄를 용서 받았다’⁵ 그는 또한 그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린 피’⁶ 라고 하였다. 히브리서에는 ‘뿌려진 피’⁷라고 하였고 요한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⁸라고 하였다. 다양한 작가들이 그들의 주석을 달았다. ‘죄에 있어 신의 분노를 샀으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고 정당할 수 있었다.’

기독교인들의 우세한 믿음은 금지된 과일을 먹은 아담의 죄부터 시작되어 인간으로 화하고 그의 후손들은 그로부터 죄를 물려받고 있다. 신의 자비가 아니라면 그 죄의 사함을 받을 길이 없으며 이는 그의 유일한 아들 ‘바로 그러한 신’으로서 보내게 된 것이다. 그는 실제로 고통 받고 죽었으며 아버지와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무덤에 묻히고 희생되었는데 이는 원죄뿐 아니라 현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다.⁹

내가 이 원리에 어떤 주석을 달기 전에 나는 분명하게 기독교 독자들에게 내 동료의 감정을 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도 바람도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내가 이 작은 책자를 힘들게 쓰고 있는 목적은 그들 앞에 십자가, 부활, 속죄에 대한 이슬람의 관점을 고려함이며 따

5. 콜로시인 1:14

6. 콜로시인 1:20

7. 히브리서 12:24

8. 요한 1서 2:2

9. <기도자의 책>

라서 우리의 믿음에서의 커다란 차이가 없어지고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하나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나는 아래와 같이 속죄의 원리의 불가론성을 이야기하겠다.

속죄의 이론은 모든 지구상의 거주자들이 아담과 이브 즉 6000년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현대 과학은 인류는 성경 속의 아담과 이브 이전에 살아왔다.¹⁰ 창세기 4장 14-17절에도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곳과 다른 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카인이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낫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찌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낫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라고 쓰여있다. 이제 아담과 이브의 자손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없다면 주가 카인에게 그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자국을 해 놓았으며 그가 그의 부인을 어디서 얻는가를 알수 있는가. 그리고 그는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성을 쌓을 수 있겠는가’ 창세기의 5장에는 다시 인간을 창조할 때 주는 그들을 남과 여로 창조하였고 그들을 축복하였으며 그들이 창조된 날에 그들을 아담이라고 불렀다라고 되어있다.¹¹ 그것

10. 적어도 아서 키보드의 <고대인의 새 발견> 참조

11. 창세기 5:2

은 다른 사람들 역시 아담이라고 불려졌으며 그것은 모든 창조된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름이다.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은 속죄를 해야 하는 아담의 자손이 아님이 분명하다.

사실상 아무도 신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알면서 꺾 때까지 벌을 받아야 하지 않는다. 죄의 정의의 관점에서 아담은 전혀 죄인이 아니다. 창세기 2-18에서 신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알렸다. 그리고 그에게 금지된 나무의 과일을 먹지 않아야 될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당장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고 대답했다. 여자에게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네가 그러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하자 ‘뱀이 나를 유혹하여 그것을 먹었다’고 대답하였다. 그녀는 그녀만이 유혹 받은 것이 라고 자백을 하고 그녀가 아담에게 준 선악과에 대하여 그녀는 말하지 않았던 것임을 보여준다. 아담은 따라서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다. 성 바울은 비슷한 관점을 표현하면서 ‘아담이 꺾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꺾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¹²라고 하였다. 창세기에 쓰여진 에덴의 동산에서의 추방은 우스운 일이다. 그것은 이와 같이 진행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¹³ 신이 사람을 창조하였고 그를 선과 악을 모르도록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신은 그 자신의 형태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고 그

12. 디모데서 2:14

13. 창세기 3:22-23

의 형상을 따서 비슷한 것으로 창조하였는가?¹⁴ 이 구문은 분명히 동산에서 아담의 추방은 그가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신의 두려움에서이지 죄를 범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담의 죄에 기초하는 속죄의 원칙은 진실이 아니다. 코란성전에서는 신은 이렇게 말한다.

진정으로 우리는 이전에 아담에게 계율을 주었으나 그는 잊어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서 불복종의 어떠한 결심도 찾지 못하였다.¹⁵

모든 사람들의 신을 확인하고 아무도 법으로써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에 의하여 그의 원죄를 갚음이 없이 신의 관점에 있는 것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오류이다. 우리는 누가 복음 1장 6절에서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쓰고 있으며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로마 카톨릭의 믿음에 따르면 죄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원죄는 단지 이방인의 기독교인의 창안물이며 그것은 구약에서는 어디서도 언급되어있지 않는다. 기독교는 이점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5세기에 펠라기우스는 모든 인간이 그의 자신의 노력으로 덕이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로마의 교회 사람들에게 군주주의의 완전한 방법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의 친구

14. 창세기 1:26-27

15. 코란 20:116

카엘레스티우스는 412년에 이단으로 단정지어졌다. 왜냐하면 그는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자연적으로 죽게 되거 아담의 전락의 인종적인 결과를 부인하면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의 전적인 무지를 확언하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죄가 없는 사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다. 펠라기우스는 죄는 행위이지 말이 아니며 의지의 자유의 남용이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만이 징벌을 받을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¹⁶ 우리의 이슬람 종교는 이성과 지혜의 종교로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기는 순수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며 바울이 말한 것처럼(에베소서 2:3) ‘우리는 징벌의 책임을 가지는 원한 후손들이다’가 아닌 것이다.

선악과를 먹거나 만지는 자연적인 결과는 죽음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¹⁷ 예수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원죄를 속죄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그것으로 죽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형이 아직도 집행되고 있고 모든 인간을 죽으며 특히 그리스도 국가들은 가장 잔인한 죽음의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그의 무죄한 아들을 죽임으로써 신이 그의 정의와 자비를 화해했다고 믿는 것은 확실히 이해할 수 없다. ‘도덕적인 정의는 죄의식에 대하여 무죄로 여길 수 없다. 비록 그 자신이 무죄로서 생각하더라도, 정의가 이를 행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그 존재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더 이상 정

16.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II 편

17. 창세기 3:3

의는 없다. 그것은 무차별한 복수이다'¹⁸

유다가 요셉에게 그의 어린 동생들을 대신하여 데려가기를 청했을 때 요셉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¹⁹ 라고 하였다. 속죄의 원리의 긍정적인 증거는 호위이며 신의 정의에 반대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금의 신을 만들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대죄를 지었고 이제 나는 주께로 올라가서 내가 너의 죄에 사함을 받겠다' 그리고 모세는 신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옵소서' 여기서 모세는 자신에게 백성들의 죄의 속죄를 하기로 하였으나 결코 응하지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의 속죄에 대하여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라고 하였다. (출애굽기 32:30) 따라서 죄로써 무죄한 사람의 죽이는 것은 직접적으로 정의와 자비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비와 정의의 태도를 화해하는 대신에 그것 모두를 파괴하였다.

18. 패인의 <이성의 시대>

19. 창세기 44:17

예수가 정의의 사람으로 전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하였다²⁰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구약의 명제와도 반대가 된다. ‘사악한 사람들은 올바른 이의 속죄를 할 수 없으며 침입자는 정직한 사람을 위한 속죄가 될 수 없다.’²¹

십자가의 죽음 뒤의 예수는 3일간 지옥에 있었고 그 동안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한 징벌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예수 자신이 그와 같이 십자가 형을 받았던 두 도적들 중의 하나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²² 라고 하였다.

따라서 ‘뱀으로 형상화하여 이브에게 말하였던 사탄이나 결국 전능하신 힘이 십자가에 뱀의 형태로 전능하신 하느님에 의하여 그를 나타내는 대신 그의 아들 예수로 십자가로 나타나 유혹을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그러한 것을 믿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은 전능이란 것이 속임, 사탄, 승리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사람이 구원되고 죄의 징벌로부터 속죄한다는 생각은 직접적으로 다음의 예수의 말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 (a)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²³

20. 요한 1서 2:2

21. 후서 21:18

22. 누가복음 23:43

23. 마태복음 12:36-37

- (b) 마태 12장 32절에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 (c)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²⁴
- (d)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²⁵
- (e) 마태 복음 6:14와 15에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 (f) 마태 복음 25장 31에서 46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의로운 일을 한자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원편과 오른편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도인들이다. 예수의 이 말은 속죄의 원리와는 부합될 수 없다.

토마스 패인은 다음과 같이 썼다.

24. 마태복음 18:8

25. 마태복음 13:49-50

내가 7살 혹은 8살 때 교회에 헌신적이었던 내 근친 중에 한 사람의 설교를 들은 것을 잘 기억한다. 그는 신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그 설교가 끝난 뒤 나는 정원으로 갔고 그곳의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갑자기 내가 들었던 것을 다시 돌이켜 보니 다른 식으로 복수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은 죽임으로써 그의 전능하신 힘을 행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그러한 일을 위하여 교수형을 당할 수 있는데 왜 그러한 설교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변덕으로 나오는 생각이 아니다. 나는 신이 너무 착하여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너무나 전능해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였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믿으며 계다가 종교의 여하한 시스템도 아이들의 마음에 그러한 진실일 수 없는 것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믿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²⁶

기독교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내가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없다. 그는 나를 감옥에 넣겠다고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한 빚을 갚을 수 있다' 이처럼 신의 아들이 예수는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3일 간의 낮과 밤을 지옥에 있음으로 갚아주고 있다. 그것은 죄가 빚으로 여긴다면 정당화할 수 있다. 신과는 다르게 채무자는 힘도 없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무능력하여 당신이 대신해서 그를 위하여 빚을 갚아줄 때까지도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죄

26. 페인의 <이성의 시대> p.41

가 범죄로 여겨진다면 즉 의도적으로 신의 율법을 깨었다면 정의의 어떠한 법도 어떤 사람도 징벌할 수 없으나 용의자가 그것이 정신적인 병으로 여겨진다 하면 죄인을 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되지 않았으며 신에게 눈물로 빌고 그를 죽음에서 구해주기를 간청하였다. 그가 그 당시에 했던 가장 호소력 있는 말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²⁷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흐느껴 울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²⁸라고 하였으며 유다에 대하여 유대인에게 그의 은신처를 알려준 것에 대하여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 하였더라면 세계 좋을 뻔 하였느니라’²⁹ 라고 하였다. 정직한 사람이 어떻게 유죄인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까? 기독교의 유럽이 무신론의 근거가 되고 죄의 의미가 그곳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다 조작된 이런 원리의 결과이다. 고그 목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많은 사람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다. 그들은 실제로 그들이 영생한다고 믿지 않지만 그들이 도덕적이지 않다고 믿지 않는다. 양심이란 것이 계속적인 불복종에 의하여 둔하여져서 더 이상 옳고 그름의 감각이 없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이점을 생각하면 바로 모든 것일 파멸이 된다.³⁰

27. 마태복음 26:42

28. 마태복음 27:46

29. 마태복음 26:24

30. <와치맨>, 1941년 3월 호 p.93 (런던)

그들이 왜 그들의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는가? 그의 자비로부터 나온 하나님은 그의 무죄한 아들 (그 자신에게 조차)의 피를 속죄를 위하여 흘리게 하였을까? 그러나 이 원리는 죄를 범하고 그것이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무차별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무한한 인정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통의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들과 제사장 모두 해당 된다. 뉴욕에서 발간된 윌러 ‘목사들의 범죄’와 켈메르의 ‘생명’ ‘로마 교회의 내부: 영국 교회의 내부’와 ‘왜 기독교는 실패를 하는가’라고 쓴 책들을 참조하라.

모든 경우에도 죄는 존재한다 특히 기독교의 세계에서는. 그리고 나는 바울주의의 기독교는 기독교인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 받기 위한 어떠한 구제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바울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앞에도 죄를 범한다면 더 이상 죄에 대하여 희생을 없을 것이다’³¹ 라고 하였다. 이 죄 많은 기독교인의 세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음에도 죄를 범하고 따라서 위에 말한 것에 따라 절대로 구원을 없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구원

1943년 중국의 이슬람교 친목 협회의 서기장이 나에게 편지로 다음과 같은 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31. 히브리서 10:26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와서 그와 함께 죄를 모두 걸어 가버렸다. 예수의 죽음이 없었다면 죄는 더 이상 용서 받을 수 없고 인증자를 만들 수 없다.

내 대답은 이 믿음은 최대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살을 감행한 것이며 3일 동안 지옥으로 가서 그 자신이 창조물인 사람을 벌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용서할 권리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며 하나님은 동정심도 없고 자비롭지도 않지만 단지 용의자를 징벌하는 판사처럼 그의 더 높은 권리의 법에 따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무죄한 인간을 죽이는 것이 자비인가? 외동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자비와 정의의 어떤 것이 그렇게 되는가? 죄가 예수의 피로써 씻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비와 정의의 개념과도 부적합한 것이다.

이슬람교의 하느님의 개념은 자비하고 동정심이 많고 그의 예속자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코란 성전에 말하였다.

오, 선구자여, 자신들의 영혼에 반하여 과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알라의 자비의 체념에 있지 않는다. 분명히 그는 최대의 용서와 자비를 베푼다.³²

그는 모든 인간의 유일한 주인이며 창조자이다. 그는 그와 좋아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벌이 이로울 때는 징벌을 한다. [사람들을 고용한 주인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한다.(마태복음 20:15)]

32. 코란 39:54

‘내가 이렇게 내 종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한다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주인은 따라서 그들의 하인을 용서할 권리가 있다.

죄인이 엎드려 그의 이마를 최고의 동정심이 많은 하느님에게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기도로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말하였을 때 그의 친부모보다도 더 자비로운 하느님은 그를 용서해 주고 구원한다. 이것은 죄가 정당히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수천 가지의 재능을 부여해준 하인이 왕을 배반하여 죄를 범하였던 이야기를 읽었는가? 그리고 하인은 엎드려 그를 숭배하며 ‘주인님 인내를 베푸시와 제가 곧 당신에게 모든 것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주인은 감동되어 그를 풀어주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a)

베드로와 사제가 예수에게 내 형제들의 죄를 어떻게 하며 내가 그를 용서하는가? 일곱번까지?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일곱을 곱한 70번까지?³⁴ 그들의 동정과 자비로부터 인간이 그에 반하였던 사람의 죄를 징벌 없이 용서할 수 있다면 왜 신을 자비로운 하느님은 그의 자비로서 그를 반대한 사람의 죄를 징벌 없이 용서할 수 없는가? 용

(a) 위의 대답에서 “희생을 하지 않았어야만 했다. 그것은 거대한 자본이다” 나는 다시 “생각하라 인간이 자신의 죄 값을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전능한 것이 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가진 하느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후회와 용서를 비는 것이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다시 말해 자살을 하지 않고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믿는 거와 마찬가지로”

34. 마태복음 18:21-22

서의 진실한 방법은 코란에서 말하였듯이 후회이며 이른 신성한 예언자에 의하여 가르쳐졌다. 코란에서 죄인에 대하여

‘그들은 징벌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진정으로 후회하고 선한 것을 믿게 된다. 이것은 알라가 모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려는 방법이며 바로 알라가 용서와 자비인 것이다.’³⁵

예언자 에스겔은 하느님에게 가서 말하였다.

죄를 짓는 영혼을 사라질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으며 아버지 또한 아들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는다. 의인의 올바름은 그에 있고 사악한자의 사악함은 또 그 위에 있느니라 그가 범한 모든 죄로 사악하게 되었다면 모든 나의 자리를 지키고 법과 옳은 것을 가진다면 그는 죽지 않으리니. 이 모든 것은 그에게 달려있다. 그의 올바름을 가지면 그는 살게 될 것이다.³⁶ 이사야 55장 7절과 연대기 7장의 12-14를 보면 겸손을 가지고 하느님을 찾고 사악함을 용서 받는 것은 죄가 용서된다고 써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은 기독교인이 믿는 것처럼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다. 그것 자체가 자비로운 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무죄한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하고 저주 받게 한 것이다. 나는 진정으로 예

35. 코란 25:70-71

36. 에스겔서 11:20-22

수가 한번이 아니라 수 천번 십자가에 매달려도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 받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의 죄의 징벌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하는 예언자 예수를 죽음으로 저주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 받겠는가 이는 신을 포기하고 신에 불복종하는 것이다. 왜 신은 이 시대에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를 십자가의 저주로부터 면제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며 그렇게 될 것이다. 모든 이성과 지혜를 부여 받은 기독교인이 불합리한 교조를 포기할 시대가 왔다. 예수는 신이 십자가의 저주 받은 죽음에서 구하였던 단순한 신의 선구자일 뿐이며 그를 다른 위대한 신의 선구자처럼 자연사 하게 만들었다.

11 장 예수, 인도로 가다

예수는 어디로 갔는가?

여기서 질문이 제기 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승천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디로 갔는가?’

그가 제자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난 뒤에 그의 행적을 언급한 사람들은 그는 반드시 어디론가 가서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 이 점에서 그의 경우는 그의 동족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모르는 곳으로 가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야 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죽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믿는 하인리히 에버하드 코토롭 파울러스 (1761-1851) 교수는 이렇게 적는다.

예수는 실제로 죽지 않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승천하였다고 설명했다.¹

또한 시드니의 지방 법원 판사인 에른스트 브루햄 도커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어디서 언제 그는 죽음을 맞이하였을까? 우리는 우리가 이 대답을 증명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로서는 인간으로써 그가 우리와 똑같은 문을 통하였을 것을 믿는 것에 만족한다. ‘모든 다른 인간들이 통하는 죽음의 협회와 무서운 통로를 가진다’ 예수가 그의 갈리아의 피난처를 결코 떠나지 않았으면 티베리아 호수 근처의 외로운 은신처나 외로운 산정, 혹은 계곡에서 상처로 인한 치명적인 고통으로 죽음을 맞이 했고, 지금까지도 아무도 그의 무덤을 몰랐을 것이다.²

사실과 이성을 따라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의 자연사를 믿지만 언제 어디서 인지는 말할 수 없다. 오늘날 유럽의 과학자들은 그의 무덤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인생을 신화로 두고 인디아의 중심부에 있는 카디안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마을에서 지난 세기 동안 제기된 의견을 물어버렸다. 그러나 이슬람교의 부흥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가 수세기 동안 신으로 잘못 숭배되어왔었고 그가 하늘³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 것의 잘못을 공언하고 그는 카슈미르의 스리나가의 칸야르 가에 묻혔다고 말한다.

1. 슈바이처 박사의 <역사적인 예수의 탐구>, p.55

2. 도커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p.70, 78

3. 고린도서 12:2

이 의견은 확실한 주장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덤의 주인이 마리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짐의 길 잃은 양들의 선구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발견은 신의 의지로 기독교왕국에 혁명을 가져왔으며 수 억명의 사람들이 숭배를 포기하고 그것이 바로 이단교의 교조를 차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예수의 무덤의 발견자는 이 시대의 선구자로서 많은 국가에서 출현하여 이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의 두 번째의 출현에 관한 예언을 말하는 것이었다. 신의 평화와 축복을 가진 모하메드는 코란에 따르면 신명기의 모세의 예언18:18 처럼 모세와 같은 시대에는 아마드에게 축복이 행해졌으며 예수 시대의 예언자는 그에게 내린 축복으로 제2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다.

모세의 무덤

우리는 신명기 34:에 ‘아무도 그의[모세의] 무덤을 지금까지 모른다’라고 쓰여 있음을 본다. 게다가 그의 종말은 ‘예수처럼 전설로 남아 있다.’

사람들을 떠나면서 엘리자와 요수아를 네보 산에서 포옹하고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그는 사라졌다. 그는 그가 죽었다는 것을 쓴 사람조차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두려워 그의 특별한 덕 때문에 그는 신성화되었다.(Ant. iv:8, 48) 후에 모세는 죽지 않고 엘리자와 같이 승천하였다⁴는 믿음이 퍼졌다.

그의 무덤은 ‘그와 같은’ 지위의 신성한 예언이 무하메드가 나타나서 그것을 밝힐 때까지 200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모세의 죽음을 거부하고 하느님에게 약속된 신성한 땅으로 돌을 던져서 그가 갈수 있는 곳에서 죽었다’라고 하였다. 아부 후라이라는 그 신성한 예언가가 ‘내가 그의 무덤이 언덕 밑의 돌길 옆에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⁵이라고 하였다고 쓰고 있다.

팔레스타인에서 카브르 나비 무사 즉 모세의 무덤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모세의 무덤이다.⁶

이처럼 예수의 무덤도 거의 20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예수와 같은 약속된 메시아인 아마드에 의하여서만 발견되었다. 그것은 카브르 나비 이사 즉 예수, 선구자의 무덤으로 현재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주의 행위이며 우리의 눈에는 놀라운 것이다. 이 시대의 예언가인 하즈라 아마드는 이 문제를 그의 책 마시 힌두스탄 에닌 (‘인디아의 예수’)에서 자세히 썼으며 이 작은 책자의 크기 상 나는 몇 가지 점 만을 언급하겠다.

4. 유대인 백과사전 “모세”

5. <사이후-울-부카리> 2권, 191, 1932년 이집트

6. 필립스 박사는 이렇게 쓰고 있다. ‘모세의 무덤은 사해와 마르 사바 사이에 있다. 네비 무사 사원 옆에 있으며 부활절에는 이슬람교 순례자들이 찾는 큰 휴양지이다. 나는 어머어마하고 진기한 행렬이 예루살렘의 성 스테파노 성문을 지나 케드론의 골짜기와 예언자 무사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 필립 샤프 박사, James Nisbet & Co., 1888sus 9월 신판, 303쪽 각주, ‘성지를 지나며’

이스라엘의 잊혀진 부족

12개의 부족은 한 수장 밑에서 계속 연합하여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 솔로몬 왕의 죽음 뒤에 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0개의 부족은 이스라엘의 집에 반대하여 봉기하고 그들의 왕으로 레호보암 왕을 받아들이고 유다와 벤자민의 부족들은 레호보암의 통치 하에 있었다. (왕대기I 12:16-20). 이 분리는 그들의 재난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후에 전체의 히브리 인들의 2개의 왕국으로 되었다. 틸가트-파일서가 먼저 포획되고 후회 에우벤, 가드 넵탈리와 마나세의 부족의 반이 정복되어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는 국가가 되었다. (왕대기 II 15:29; 연대기 I 5:26).. 몇 년 뒤에 아시리아의 왕인 살마네서가 사마리아의 도시를 정복하여 그것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의 거주민은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이주 시키고 다른 거주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을 경작케하고 소유케 하였다. (왕대기 II 17:6, 24 와 18:10-11)이것은 이스라엘의 10개의 부족의 왕국의 종말을 가져왔다. 10개의 추방된 부족이 그들의 조국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되돌아가지만 동시에 이 돌아감은 결코 역사를 구성하기 못할 것이라 하였다.^(a) 왜냐하면 그것은 완수될 수 없는 것으로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은 유프라테스 건너편에 머물렀다.⁷ 알프레드 에더샤임은 이렇게 쓴다.

일반적으로 동쪽으로는 분산에 관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약 50000명의 소수의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부터 돌아왔는데 먼저 제루바벨의 치하 밑에 나중에는 에즈라의 통치

밑에 있었다. (기원전 537 과 459/8년경). 사람들에게 대한 열등성이 부과된 적이 없었다. 가장 부자이고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은 배후에 머물렀다. 요세퍼스에 의하면 모든 철학자들이 실제로 동의하는 바처럼 많은 수백만으로 예측되는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 부근에서 거주하였다.(Ant. 11,5)

그 이후의 전통으로 이루어지고 페르시아 제국에 많은 유대인이 있었으며 사이러스는 인구가 적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추방을 금지하였다. 그래서 대규모의 단일한 단체가 정치적인 힘이 되었다. ‘바빌론인들의 “분산 정책”은 이미 모든 지역에 퍼졌고 그것은 인도에 까지 이르렀다.’ 아직도 10부족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시대에 있었는데 히브리 국가에서도 길을 잃고 있었다.⁸

- (a) 이 생각은 역사적인 증거는 없으며 단지 상상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모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방대한 팔레스타인에서 항상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견지에서 보면 사실일 리가 없다. 어느 교수는 신약에 쓰인 ‘12부족’이라는 구절로 이 상상의 생각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구절이 역사적인 사실을 대변하지는 못한다. 성경 여호수아서 4장 2절을 해석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그 방대한 부족의 인구가 포로가 되어 사라졌을 때, 모든 이스라엘에 주어질 지위와 약속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유대인들은 12부족에 대해 ‘지금은 자신들만이 대표할 수 있지만 그들이 아직 존재한다’며 허황되게 말한다. 이런 점에서 <인도의 베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H.S. 케힘카르(1830-1899)의 관점은(p.6) 내게는 더 정확해 보인다. 그는 이스라엘 왕국의 몰락했을 때 10개의 부족이 완전히 추방당하지 않았으며(역대기 30장) 여기저기의 잔존자들이 팔레스타인에 아직도 남아 있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130년 후에 유대 왕국이 몰락했을 때 잔존자들은 아직도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잔존자들로 따지면 ‘12부족’이라는 말이 매우 정확하다.

7. 알렉산더 크루텐의 <성전의 완벽편>

8. 알프레드 에더샤임의 <예수 메시아의 인생과 시대>, p.8,13,16 런던 1906년

에즈라의 네 번째 책은 (13:39-45) 살마네서 시대의 왕인 호시아에 의하여 유프라테스로 강의 좁은 지역으로 이동되었는데 그 당시 그들은 1년 반의 여행을 하여 마자레스⁹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네부사드네자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사찰을 불태우고 약탈하여 거주자들을 바빌론으로 데리고 갔다. 유다의 주민들 이전에 134년 동안 추방된 이스라엘인들은 거의 돌아갈 수 없었다. 그들이 무엇이 되었는지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희미한 추측 뿐이다.’¹⁰

인도의 이스라엘인

위에서 말한 것처럼 10개의 부족이 길을 잃고 여러 나라로 분산된 것은 분명하다. 내 관심은 인도이다. 왜냐하면 인도의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부족을 찾을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현대의 조사는 아프간인, 카슈미르와 봄베이¹¹의 이스라엘 베니인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유대 백과사전에서 부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읽는다.

아브라함 파리솔이 간지스강을 발견하여 곡산강으로 동일시하고 인도의 베니 이스라엘인은 길 잃은 10부족들의 후손이다. 밀란의 빈센트라는 기독교 여행가는 25년간 터키인들의

9. 유대인 백과사전 ‘부족’

10. 챔버 백과사전 ‘유대인’

손에 수감되었었는데 그는 페즈 지방에서 인도까지 가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삼바씨온 강을 발견하고 많은 유대인이 비단으로 된 옷을 입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7왕에 의해 통치되었는데 술탄 살림에게 공물을 바치도록 되어있었으나 그들은 어떤 술탄 왕에게도 공물을 바치지 않았다. 아프간인들-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아프간인들 역시 길 잃은 10부족과 동일시한다. 그들은 네부차드네잘가 그들은 고어 산으로 추방하였다고 말하며 거기서 그들은 아라비아의 유대인과 통교를 유지하였다고 했다. 결국 그들은 이슬람교도들이되었다. (말콤, '페르시아 역사', 11, 596, 런던 1815). 아프간인들은 아직도 그들을 '베니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으며 그들의 모습이 유대인과 같음을 인정한다. 그들의 이스라엘 후손의 주장은 거의 모든 이슬람 저자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무어는 그의 길 잃은 부족의 책에서 p.143-160 (런던, 1886)에서 또한 그들과 이스라엘인을 동일시하고 있다.

헨리, 울르 경은 이렇게 말한다.

아프간의 연대기는 그들의 민족을 베니 이스라엘인 (아랍어로 이스라엘의 아이들)로 부르고 시울 왕으로부터의 후손이며 제레미아라고 불리는 아들과 그 이후 아프가나라고 불리는 아들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아프가나의 많은 가축들은 네부샤드네자르에 의하여 제거되고 그들은 고어 산을 넘어 페로자 동쪽과 히라트의 북쪽으로 가게 되었다.

제임스 프레이저경은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적 설명>의 298 (뉴욕, 1843)쪽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그들 아프간의 전통으로 보아 그들은 유대인의 후손이다. 16 세기에 쓰여진 아프간의 역사 (번역 협회에서 번역한 네아마트-올라) 와 최근에 페르시아로 번역된 책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아들 제레미아의 아들인 아프간의 후손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속박상태 시대로부터 이동되어 와 카를, 칸다르와 가즈니의 고어 산의 정복자에 의하여 정착되었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슬람교가 그들을 포용할 때까지 그들의 종교를 유지하고 있었다.

<시민과 군인의 가제트> (1898년 11월 23일)에서 이 주제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저자가 이렇게 쓰고 있다.

아프간인들은 그들의 조상을 이스라엘 부족들에 두고 있다. ‘그들의 이름들이 이스라엘 언어이며’ 그들은 유월절을 지내고 있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아프간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며 고대 라즈푸트 부족의 후손으로 그들의 근원 문제에 가장 근접한 답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존스톤이란 학자는 다음의 전통을 인용하면서 ‘나디르 사가 페샤와르에 도착했을 때 유서프 자이스에 있는 부족의 수장은 그에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선물로 주고 몇 가지의 물품을 주었는데 그들이 고대의 숭배 의식에서 사용하던 것이었다. 그 물품들은 유대인에 의하여 그들의 것이라고 인정받는 것이었다.’

벨류스는 이렇게 적는다.

아프간인의 전통들은 부크탄자르 (네부차드네자르)에 의하여 정복되어 이동된 시기의 거주자로 시리아와 비슷하며 페르시아와 메디아에 식민되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 이후 동쪽으로 고어 산의 국가로 옮겨 와서 그들의 이웃을 바니 아프간과 이스라엘 즉 아프간과 이스라엘의 아이들이라고 불렀다. 이런 협조로 에스드라스 예언가의 증언이 이스라엘의 10개의 부족이 정복되어 또 추방되어 아자레스의 국가로 피난 온 것을 알 수 있고 이 지역은 현재의 하자라 지역으로 여겨진다. 또한 타바카티 나시리라 책에는 곳에서는 산사비 왕조시대에 메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토 안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상업을 주로하고 있었다고 써있다.^{11, 12}

알프레드 에더샤임 박사는 이렇게 적고 있다.

근대의 연구는 노스토리안들에게 충분한 납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아프간인들은 길 잃은 부족들의 후손임을 보여준다.¹³

11. 벨류스의 <아프가니스탄의 인종>, p.15, 캘커타 1880

12. 카불에서 정치적 임무를 수행한 H.W. 벨류스 소령은 1880년 9월에 심라의 USI 에서 같은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귀중한 강연을 했고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의문> 혹은 <아프가니스탄 인은 이스라엘인가?>와 <아프가니스탄인은 누구인가?>의 제목으로 저서를 출판했다.(1810년 심라, 스테이션 프레스 Cradock & Co.) 벨류스 소령은 그 강연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전통뿐만 아니라 성경을 비롯한 다른 책에서 발췌한 사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인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스라엘 후손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독자가 있다면 이 강연 자료를 읽어볼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

13. 알프레드 에더샤임의 <예수 메시아의 인생과 시대>, p. 15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11편에서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하여 토마스 홀이히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자들은 유대인의 골격의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흔적은 남자에게도 마찬가지다)¹⁴

〈카시미리스〉라는 책에서는,

‘마누치는 베니스 원주민으로 위의 40년 동안 오랑제브 황제의 주임 의사였다. 그는 모굴 왕국의 기록을 볼 수 있었는데 이를 포르투갈어로 번역하였다. 그의 정보는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제임스 호그 목사는 그의 카슈미르 거주민의 설명에 대한 기억을 인용하면서 그의 책 ‘인디아의 기독교의 역사’ (1런던 1829)에서 이렇게 적는다.

이 장[4장]의 내용은 주로 저자가 카슈미르의 거주민의 외모와 상황을 관찰한 내용이며 특히 각기 다른 기간에 오래된 이스라엘의 길 잃은 10개의 부족에 대하여 나와있다. 우리는 그가 유대인을 악바르의 궁정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살마네서에 의하여 카슈미르에 정착한 유대인의 오래된 전통이 있으며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후손이다. 우리가 유대의 종교가 발원한 그 나라에서도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이방인이거나 마호메탄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인들로부터 인종적인 후손

14.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1 〈아프가니스탄〉

들이 있다. 얼굴과 머리와 모습은 유대인에게 특정한 흔적들이 남아 있고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모세는 매우 잘 알려진 이름이고 몇 개의 고대 기념비가 보여지는데 이스라엘의 것인 것을 알 수 있다.^{15, 16}

호그 목사는 291쪽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한다.

포스터 씨는 카슈미르인들의 일반적인 외형, 모습과 방식들이 너무 같아서 이전 사실을 알지도 못하며, 그가 유대인의 국가 중 한 곳으로 갑자기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 포스터의 여행 참조

키스 존스톤 박사는 그의 지리학 사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카슈미르]의 원주민은 키가 크고, 긴장한 골격으로 남자 같은 특성을 가지고 여자는 잘생겼다. 그리고 굽은 코의 형상으로 유대인을 닮았다.¹⁷

프랑스와 베르니에 박사는 모굴 제국의 여행 (1656-1669) (아쉬발드 콘스타블 번역)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15. 후그, 인도의 기독교 역사, 카투의 모굴 제국의 역사 (마누치의 기억)

16. M. 마누치는 오랜 전통을 이야기하기 전에 카슈미르인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그 유쾌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인도인의 우유부단하거나 나태한 기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강건하고 근면하며 땅을 경작하는 데 단련되어 있고 전투에서 매우 용맹하다.'

17. 존스톤의 지리학 사전, <카슈미르>, 런던, 1867

우리가 피레 펜잘 산맥을 넘어서 카슈미르 왕국에 들어가자마자 국경 마을의 거주민들은 유대인들과 유사함을 본다. 그들의 외모, 태도와 구별되는 특징들은 이 거주민이 다른 민족과 다름을 알 수 있게 하며 모든 것이 고대 사람들에 속한다는 것이 보인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의 유대인과 같은 모습은 제수이트 신부들에 의하여 주목되었고 내가 방문하기 전에 왔던 유럽인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의 관점을 지지하는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한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그러면 볼 수 있다. 내가 유대인이 카슈미르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을 안다. 그들의 법의 순수성은 시대가 지나면서 부패되고 우상 속으로 오래 쇠퇴해 가고 있으며 많은 이방인 들처럼 마호메트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페르시아의 라르와 히스판[이스파한], 그리고 힌두스탄의 고어 산과 코신 지방으로 정착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음은 확실하다.¹⁸

번역자의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다.

카슈미르의 많은 거주자 중의 유대인의 특성은 많은 현대의 여행자들에 의하여도 주목 받는다. 973년에 출생한 이슬람교의 역사

18. A. 콘스터블의 베르니에: <모굴제국의 여행>, p.430-431,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 1914

가인 알베루니 은 그의 카슈미르에 대한 설명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그들은 특별히 그들의 나라에 대한 자연적인 강점에 대해 열광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길을 만들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과 상업을 하는 것을 어려웠다. 이전 시대에는 그들은 하나 혹은 두 명의 외국인이 그들의 국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현재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는 힌두인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에드워드 사추아에 의한 영어판 1권 p.206, 트럽너, 1888)

프랑시스 영허스밴드 경은 1893년에서 1894년 까지 치탈에서 정치 위임자였고 티베트에서는 1902-4년 동안 영국 장관이었고 1906-9년까지 카슈미르에 거주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썼다.

아름다움에 대한 평균적인 기준을 가진 방문자들은 강 도로를 따라서 하나 혹은 둘의 실제로 아름다운 이상의 많은 것을 보고있다. 그는 자주 놀랍게도 아름다운 여성이다. 잘 다듬어진 눈썹과 일반적인 유대인의 모습이다.(p.125)

다른 흥미로운 카슈미르의 특성은 카슈미르의 이슬람교도로서 언덕을 따라 작은 그림 같은 작은 촌락의 사람들이다. 여기는 오래된 부부와 가족장적 형식을 볼 수 있으며 오래된 이스라엘의 옛 영웅들로 그려낼 수 있다. 나는 확신을 못하지만 이 카슈미르인은 이스라엘의 옛날 부족인 것을 인정한다.

아마디아 운동의 창시자의 이론을 언급하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나 카슈미르로 와서 살다가 시나가르에서 매장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프랑시스 경은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람들이 실제로 유대인의 골격을 가지고 있어 보이며 확실히 내가 말하였듯이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 카슈미르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러한 이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의견은 몇 세기 전에 누군가가 말하였으며 길 잃은 10개의 부족으로부터 유대인이 카슈미르에 정착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우연하게 유사한 이름을 가지는 프랑스와라는 프랑스 여행가와 프랑시스라는 영국 고급 장교로 인도 지역에서 민간과 군대 업무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의견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의 의견은 시나가르에서 예수의 무덤이 발견되기 전이지만 두 가지 모두 만장일치로 카슈미르가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같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실제로 프랑시스 경과 마누치가 언급했듯이 그 거주자들은 길 잃은 이스라엘 부족들이다.

게다가 아프간과 카슈미르인들의 유대인의 특성, 신체적 구조, 의복이나 관습에 있어 유사성 외에 다른 강력한 증거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캐나다, 호주 등의 영국 정착자가 확인했듯이 이주자 혹은 정착인들은 그들의 새로운 집, 도시와 지역을 만들고 그 이름을 그들의 옛 도시이름 혹은 그들 모국의 도시의 이름을 따라 붙이게 된다. 모든 국민에게 공통된 습관이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동일한 사랑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카슈미르에 정

19. F. 영허즈밴드 경이 설명한 '카슈미르', K.C.I.E., p.125, 129, 130. 런던, 애덤 & 찰스 블랙, 1911

착한 이스라엘인에게서 볼 수 있다. 그들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강, 산들도 고대의 무사 켈 (모세의 부족)의 부부와 가족장의 이름을 따왔다. 또 수라이만 자이 (솔로몬의 부족), 다우드 자이 (대비드의 부족) 유사프 자이 (요셉의 부족) 코히술라이만 (솔로몬 산), 타크티술라이만 (솔로몬의 왕위)와 카불 강 등 여러 예가 있다. 아래의 도표는 그들의 도시의 이름을 나타낸 것으로 이것은 고대의 시리아의 도시 이름과 동일하다.

아프간과 카슈미르	시리아	참고
카불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열왕기 I 9-13
자이다 (국경)	자디돈 혹은 시단 (모드-사이다)	판관기 18-28
힘즈 (라다크 근처)	하마드	전도서 13-21
하자라	하자라	전도서 11-35
길기트	골고다	마태복음 27-33
티벳	티바트	연대기 18-8
라다크	라다	연대기 4-21
레	레이 (지방)	판관기 15-9

이러한 성경적인 이름의 존재는 이스라엘 사람이 인도의 이 지역에 살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우술 카피의 전설에도 있다. (하이 아 파가 1000년 전에 편찬한 전통에 관한 책, P334), 여기서 카슈미르에 살고 있었던 한 왕이 토라 (모세 법)의 지식을 40개국에 퍼뜨리고 복음서, 시편과 아브라함서를 읽었다고 되어있다. 그들이 신의 평

화와 축복을 가진 예언자 무하메드의 출현을 들었을 때 그들은 사절을 보내었고 결국 그들은 이슬람교를 받아들였다.

봄베이의 베니 이스라엘

봄베이의 베니 이스라엘인 또한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그들은 예수 이전의 시대에 인도에서 그들의 가정을 세웠다. 이 공동체의 포괄적인 설명은 귀중한 책에 나와있다. 하켄 사무엘 케힘카르 (1830-1899)이 텔아비브에서 1937년에 발간한 책으로 베니 이스라엘의 역사는 책으로 작가는 다른 외국 작가들에 의하여 쓰여진 것과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1) 1838년 연례 회의에서 로얄 아시아 협회의 봄베이 지사에 짧은 설명을 고인이 된 윌슨 박사는 베니 이스라엘이 수 세대 동안 그의 국가에 정착하고 있으며 그들은 길 잃은 이스라엘의 10개의 부족에 속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베니 이스라엘의 기독교 교육의 호소라는 책이 1866년 발간되었는데 그는 그의 이전의 의견을 포기 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최근의 논문에서 베니 이스라엘의 조상은 에멘 혹은 아라비아 펠릭스 등 16세기 기독교 시대에 이주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이스라엘 조셉 벤자민 II는 또한 베니 이스라엘을 그의 1846-1855년간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8년간이란 책을 1859년 하노버에서 출간하였는데 이 책은 전적으로 윌슨의

것을 뒤따르고 있었다. 그는 베니 이스라엘이 실제로 유대인 일 뿐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시대의 10개의 부족의 직접적인 후손으로 아시리아인에 의하여 이주되었다고 썼다.

그리고 나서 작가는 베니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쇠퇴와 유다의 왕국의 쇠퇴 등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남게 되었다고 했다. 이삭 와이즈 박사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이디오피아, 아라비아, 인도와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두 왕국의 많은 히브리인들은 인도로 이주하였고 그들 조상의 이주민들이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말라바 해안에 거주 하였다. 하얀 얼굴의 유대인으로 도착된 이래 그들은 “검은 유대인”으로 알려졌다.’ 유대인의 관습과 연회 등에 대한 논의를 한 뒤에 작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베니 이스라엘의 조상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왔다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 시대가 시작되기 175년 전이었다.’

베니 이스라엘인들이 에멘이나 1200년 전에 다른 곳에서 왔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전에 희생적인 고기 제물을 만드는 습관을 버렸을 것이며 2의 사원의 파괴 뒤에 그러한 의식을 하는 것을 멈췄을 것이다. 게다가 1 사원의 파괴 할 당시에 유대인이 잡혀서 70년이 지나자 돌아가지 못하고 이미 그들의 관습을 저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기억할 수 없는 시점에서 정착한 베니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실제적으로 2사원의 존재

시 동안 팔레스타인에 살았다는 증거가 퍼져 있으며 그들은 그것이 파괴되는 시점 전에 그곳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²⁰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의 탄생이전의 얼마간 이스라엘의 길 잃은 부족들의 다수가 인도의 북서, 남부, 남서부에 정착하여 살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예수의 임무

예수는 이스라엘인의 메시아였고 분명한 어조로 그것을 주장했다. (마태복음 15:24)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 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다.

또한 ‘길 잃은’의 의미는 두 가지로 문자 그대로 은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이 은유적으로 적용되지만 사실 또한 그들은 길을 잃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신성한 나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이상하지 않게 예수는 ‘가서 이스라엘의 집의 길 잃은 양을 구하라’ (마태복음 10:6)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 하였다. 예수는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집을 잃어 버린 자들을 찾아 내겠다고 까지 예언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

20. <인도 베니 이스라엘의 역사>, p.5,6,23, 텔아비브 1937

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게 있으리라"라고 이야기 하였다.(요한복음 10:16) 그의 전술한 말의 내용에 의하면 그는 이스라엘인들만을 위하여 보내졌고 다른 양들을 위한 목자가 아니며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그러니까 길 잃은 10개의 분산된 부족 외에는 보내지지 않은 것이다. 다른 말투로 유사한 결론이 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13:57),

예수를 배척한지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가 존경 받는 다른 나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는 명예가 없이 죽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그를 파괴하려는 많은 그의 적의 음모의 관점에서 그는 예언자 요나와 유사한 입장이며 요나는 그가 고래의 뱃속에서 살아 나온 뒤에 그의 민족에게 존경을 받았다. 이와 같이 예수는 그가 지구의 중심인 그의 무덤에서 살아나온 뒤에 그의 길 잃은 양을 구원하는 점으로 그의 민족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는 길 잃은 양들이 살고 있는 다른 나라고 가서 그들에 의하여 신성시되었다. 예수의 탄생 시 그를 방문했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그들은 틀림 없이 이스라엘인이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출현을 믿는 민족은 그들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고 물었다.) 예수가 동방 국가에 살고 있는 양들에 의하여 존경을 받는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는 또한 같은 것을 나타내는 우화를 언급하였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

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마태복음 18:12-13)

이 우화가 가지는 것이 진실이라면, 예수가 선량한 목자라면, 이스라엘의 열 개의 부족이 잃은 부족으로 외국의 권력에 의하여 징벌로 홀어지게 되고 그들의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그들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보내졌다면 그의 최상의 의무는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되찾는 것이다.

우리가 믿듯이 예수는 신의 진정한 예언자이며 애지자로서 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이 그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를 파괴 하려고 하였을 때 그는 그 나라를 떠나서 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인도의 성 도마

내가 예수의 발자취를 찾기 전에 그가 팔레스타인을 떠난 후에 성 도마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 해야겠다. 그는 예수의 12 제자중의 한 사람으로 극동과 인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면서 그의 주인을 따라 오랜 여행을 하였던 사람이다. 성 도마는 예수의 손의 못 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뵈으로써 그가 유령이 아니며 상처가 있는 실제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며 평생동안 예수가 '저주'의 죽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 성 도마 인도로 여행하여 거기서 죽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프란세스 버킷트 캠브리지 신학대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유세비우스(H.E. III, 1, 1)가 말하기를 도마는 프라티아의 복음주의자였으며 에데사 지방에 그의 뼈가 보존되어 있어 파르티아인의 에데사라고 불려진다. 이 뼈들은 인도에서 에데사로 가져온 것으로 <도마행전>으로 알려져 그의 노력의 선교와 순교를 나타내고 있다. <도마행전>은 유프라테스 강의 동부의 국가들의 초기 기독교에 지도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 사도의 이름이 유다 도마에게 주어졌다는 특이한 성격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쌍둥이였다고 표현 된다.^(a)

사도 행전은 역사적인 것이며 행전에는 남부 인도가 나온다. 불행히도 그의 관점에서 행전의 자세한 부분은 인도를 지적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북서부^(b)를 나타내며 인도와 메소포타미아의 사이의 국가를 말한다. ‘성 도마의 기독교인’은 남부 인도의 고대 교회에 적용되던 이름이었고 그들의 이야기로부터의 관점은 도마의 행전의 역사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여기서 다루게 된다.

전통에 의하면 성 도마는 말라바[남서 해안]에 기독교회를 세

(a) 예수의 쌍둥이 중의 하나라고 불렸던 것은 그가 예수의 인도로의 여행에 뒤따라 갔기 때문이며 예수의 임무로서 그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쌍둥이로 불릴 명백한 이유가 없다.

(b) 이것은 우리 이론을 지지한다. 북서부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이 정착했던 곳이다. 예수와 그의 제자 성 도마가 처음으로 북서부에 왔고 예수는 다시 도마를 거기에 보냈다. 예수의 동의로 도마는 인도의 남서부로 갔다. 거기에도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이 살고 있었다

우고 밀라퍼(지금의 마드라스) 를 횡단하여 거기서 그의 순교를 하였다. 그것은 포르투갈인에 의하여 1547년 재건되었고 아직도 그 교회는 성 도마의 이름으로 되어있다. 우리는 여기서 7세기에 새겨진 팔라비어의 기적적인 비문을 본다. 또한 코스모스 인디코플렌스테스로부터 페르시아 기원(동시리아)의 기독교회가 있었으며, 이들이 6세기 중반 이전에는 실론, 말라바, 갈리나(봄베이 북부)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심지어 페르시아의 유명한 사제인 성 도마가 그들에게는 특별한 성인이었을 것이다.

이츠 브라운 목사는 트라반코어 주를 방문 한 뒤에 다음과 같이 썼다.

가장 오래된 기독교의 유물은 트라반코어에 있는 것으로 시로-말랄카란 족으로 그들은 성 도마가 처음으로 그들을 침례 의식을 행하였고 그것은 서기 59년경이었다. 그는 그들을 나자레네스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 기독교인이란 말이 사용되지 않았다. (사도행전 11:26)²¹

랑 대주교는 (이전의 캔터베리 대주교)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도마가 인도로 갔다는 전설은 결코 부인되어지지 않았고 틀림 없이 인도의 기독교는 고대의 뿌리가 있다.²²

21. 스펙테이터 잡지, 5636호, p.1124, 런던

22. 대영제국과 영국과 동부, 1936년 12월 3일, 런던

H. G. 롤린슨은 그의 책 ‘인도-간략한 문화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p.92 - 93)

인도-파르티안 혹은 캣실라의 사카 왕자들 중의 하나는 곤도파르네스로서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진 사람은 우리의 특별한 흥미를 끌게 되는데 도마의 행전에 따르면 사도 도마가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그의 궁정으로 갔다. 이전에 성 도마가 인도를 방문하였다는 것에 대한 많은 의심이 있으나 이 전설이 역사적인 사실로 발견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바톨로뮤와 도마는 동방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보내졌다. 도마는 잘 알려진 항로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인더스 산의 텍실라에 도착하였을 것이며 그 당시 텍실라는 문화의 세계적인 중심이었으며 여러 나라의 선생들이 모여들어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의 선교의 노력은 루산의 침입으로 차단되었다. 도마는 도망쳐야 했다 그는 그의 발신자취를 인더스 산에 남기고 있다. 그리고 무리리스로 배를 타고 가서 말라바 연구제안의 로마 식민지로 갔으며 소코타에 도착했다. 그는 52년에 도착하였고 말라바에 교회를 세웠다 25년 후에 그는 동부해안으로 갔는데 거기서 브라만에 의하여 순교 당했다. 그의 유물은 마드라스 근처에 있는 밀라포르에 그를 위해 받쳐진 성당에 있다. 곤도파르네스는 승리를 가져오는 페르시아의 빈다포르나의 부패자였다 아르메니아 버전의 이 이야기는 이 부패자는 가사스파르로서 아기 예수의 요람을 방문한 마지막 분기의 두 번째 사람이다. (p.92, 93)

우간다의 브라운 주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인도 혹은 북서부의 국경 지방을 언급하는 인디아 행전은 지금은 파키스탄을 말한다. 곤도파르네스 왕과 그의 형제 가드는 역사적인 인물로서 스키토-인디아 제국을 19-42년 동안 인더스 강의 동서부로 지배하고 있었다. 1세기에는 북서부 인도에 상당한 유대인의 식민지가 있었으며 그들은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성 도마의 행적에 대한 다른 사실들이 있다. 바르디산은 그의 ‘운명’ (196) 이란 책에서 파르티안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중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서기 50년경 쿠샨 왕조의 침입자들에 의하여 인도 파르티안 제국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북부 인도에서 아직 살고 있는 기독교 부족이 있었으나 그들의 믿음을 비밀히 간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인더스에서 아라마의 이름 즉 ‘바토마이’와 같은 것으로 불리는 공동체가 있으며 이들은 성 도마에 의하여 개종한 후손들이며 그 책들과 유물을 그것을 증명해준다. 불행히도 어떠한 외부자들은 이러한 증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못했다.’^(a)

(a) ‘성 도마의 인도 기독교도, 마라바의 고대 시리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 우간다의 L.W. 브라운 주교, 전 케렐라 트리만드룸 유나이티드 신학교, 트레번코르 페수스 도잉 사제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출판사, 1956년’의 47쪽에서 발췌

[위의 인용문에 언급된 각주]

2. W. R. 필립스, 인도 골동품 연구, 33장, p.1, ‘실바인 레비의 인도-스키타이 관련 노트에 관한 번역’, <Camb, Hist, India, 1> p.563-78, 인도 연구 <1902-3 연간 보고서> p.167. 그러나 어떤 학자는 군다포루스의 시기를 정확하게 보지 않는다.
3. 카로스티크(셈 언어로 산스크리트) 어로된 동전의 표기나 아스카 왕의 칙령등에 나온 아라마의 글씨체는 텍실라에서 발견되는데 이 사실을 입증한다. <아시아 학회 저널>(1915), p.340-7, 허츠펠트, <에그리프라피아 인디카>, xix, p.251-3. N. A. 파리스의 <아랍의 유산>도 참조.
4. 캠브리지. <인도의 역사>, p.580-5
5. R.A. 트로터, ‘신드의 기독교 역사’, <컨퍼런스>, 1947년 2월

아마도 군다포루스의 영역을 사도들이 여행을 하였고 남부 인도 이전에 그의 왕국에 전파를 하였다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파사 왕조 역시 사도들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르시안 왕조의 치하에서 상당한 유대인의 수와 사도들의 불안에 대하여 퍼져 있었으며 메시아의 출현이 그들을 개종하게 하였다. 이 날까지 많은 인도-아프간의 국경의 부족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주장하고 있다.

군다포루스 왕국에 복음서를 전파한 뒤에 다른 국가로 사도의 관심이 옮겨졌다. 도마의 에너지는 그의 주인의 가르침을 모르는 채로 있는 지역을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힌두스탄의 무정부주의적인 상태와 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서부 해안의 항구에 존재가 군다포루스

왕국으로부터 말라바 해안으로 까지 사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성 도마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의 지역을 여행하면서 예수에 의하여 그에게 부과된 임무, ‘이스라엘의 집의 길 잃은 양에게 가라’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성 제임스는 사도서간에 12부족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명령을 따랐다. 그리고 이런 말로 자신의 사도를 언급한다. ‘제임스는 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이며, 해외에 흩어져 있는 12 부족에게 인사를 보낸다.’

다른 양들을 찾아 나선 예수

네 번째 복음서는 예수가 티베리아스의 바다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를 만났으며 그들과 식사를 하고 베드로에게 나의 양을 먹이라고 하였으며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고 떠났다고 했다. 과연 그는 어디로 갔는가? 복음서는 어떤 대답도 없다. 사도 행전과 성 바울의 사도서간에서 우리는 성 베드로는 예수를 다마스쿠스에서 보았다고 했으나 고린도서 16:8에서는 성 바울의 기독교에 대한 개종은 십자가형을 당한 후 6-12개월 사이에 있었다고 했다. 예수는 아직도 시리아의 지역에 있었다. 시드니의 지방 법원의 도커 판사는 사울의 대화에 대하여 다음의 설명을 한다.

예수는 더 이상 갈릴리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없음을 알고 동쪽의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갔다. 그는 다마스쿠스를 통하여 동쪽으로 갔는데 아나니아스와 다른 제자를 만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것은 왜 위원회가 다시

예수의 박해를 시작하려던 이유이다. 예수는 그것을 알고 엘리야와 같이 밖으로 가서 적인 사울을 만나고 그의 훌륭한 개인적인 힘으로 박해자를 제자로 전향하게 하였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아마도 아나니아스의 집에서 며칠간 계속되었었다. 위원회의 사람들의 도착은 예수에게 그가 더 이상 다마스쿠스에서는 안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 주었고 동쪽으로 가기 위하여 바빌론으로 떠났다.

요하네스 바이스에 의하여 지지 되는 이 설명으로 '바울의 생각과 개종은 심리학적으로 납득이 안간다. 단지 그가 실제적으로 예수의 인간적 성격에 의하여 생생하게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²³

니시부스의 예수^{218(a)}

그의 책 <마시 힌두스탄 마인, 약속된 메시아>에서 라우자투스 사파는 다음의 설명을 하면서 약간 과장된 어조로 말하였다.

예수는 '메시아'라 불렸는데 그는 위대한 여행가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머리에 모자로 된 스카프를 쓰고 모직으로 된

23. 도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p.75-76

(a). '니스비스(아시리아 표현으로 나시비나)는 현대의 네지브 혹은 나시빈으로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존재했던 고대의 도시이자 요새였다. 미그도니아(현재의 야히아가)가 좁은 골짜기를 통해 산을 떠난 지점 부근이다. 이곳에는 4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대부분이 유대인이다.'(브리태니카 백과사전, 제11판)

옷을 입었다. 그는 그의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여행을 하였다. 저녁이 되면 그는 그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물렀다. 그는 정글에서 채취한 채소를 먹고 물을 마셨으며 걸어서 여행을 하였다. 그의 나라에서 여행을 나시빈에 도착했다. 그에게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어 이들을 도시로 보내 교를 전파하였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예수와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 나쁘고 근거 없는 소문들이 있었다. 도시의 통치자는 따라서 사도들을 체포하고 예수를 호출하였다. 예수는 기적적으로 몇 사람을 고치고 다른 기적을 행하였다. 나시빈의 왕은 따라서 그의 군대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를 지지하게 되었다.^(b)

이 간략한 라우주투스-사과의 설명은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가 여행 중에 모술과 시리아의 중간에 있는 나시빈에 도착했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나시빈은 예루살렘에서 450마일 떨어진 곳이며 페르시아 국경으로부터 150마일 떨어진 곳이다. 페르시아의 동부 국경은 아프카니스탄의 헤랏 시와 접경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헤랏은 페르시아의 서부 국경에 있다. 헤랏에서 카이버 고개의 거리는 약 500마일이다.

위에 말한 라우주투스-사과는 확실히 정확하다. 그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의 거부와 박해되어 거기를 떠나 나시빈에 이주하여왔다. 그것은 그 당시의 잘 알려진 역사가인 죠세퍼스가 나시빈에는 유

(b). 저자는 '이스라엘을 떠난 예수와 그 여행에서 보여준 기적들에 대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이런 사실들을 언급했다.

대인들의 거주인 즉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이 살고 있다는 것과 부합하므로 예수는 그의 임무를 수행하러 온 것이다. 역사가자 조세퍼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유대인에게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재앙은 메시지 요소포타미아와 바빌로니아 거주인들에게 이다. 또한 니시비스라는 도시도 강의 동일한 흐름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p.314)
 ‘바빌로니안인들과 셀류시안들에 대해 전 유대인은 두려움 속에 있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던 시리아인들은 유대인을 박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대부분을 모여서 나르다와 니시비스로 이주하여가서 안전을 얻고 전사들이 되었다.’²⁴

니시빈으로부터 예수는 페르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여행을 하고 편잡을 통하여 카슈미르로 들어갔다. 그가 티벳과 다른 인도 지역을 방문했다는 전설이 있고 그가 카슈미르에서 살다가 사망했다는 것을 확실하다.

예수가 마시로 불린 여러 많은 이유 중에서 약속된 메시아는 위대한 여행가이다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슬람교의 성인인 아부 바크르 무하메드 마타르투쉬는 그의 책 가라즈-울-말룩에서 예수를 ‘여행가의 대장’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믿을만한 아랍어 사전인 리산-울-아랍에서 ‘예수는 마시로 불렸으며 그는 여기저기 방랑하고 한 곳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있다.

24. <플라비우스 조세퍼스의 작품>, 윌슨 번역, 윌슨의 주석 3집 p.324, 런던 1889

이슬람의 성스러운 예언자들의 말의 집대성한 칸줄-움말에 서는 아부 후라이라는 말하기를 신은 예수에게 다음과 같이 계시하였다고 했다. ‘오 예수여,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서 네가 발각되고 처형되지 않도록 하라.’

같은 책에서 자비르가 쓴 보고서에서 예수는 계속적으로 움직였다고 했다. 그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고 밤 동안에 어이던지 정글의 채소와 물을 마셨다고 했다.

다시 같은 책에서 오마르의 아들 압둘라는 이렇게 말한다.

신성한 예언자는 알라의 시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리브’라고 하였다. 가리브가 무엇인지를 물으니 그는 대답하기를 예수인 메시아와 같이 그의 믿음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떠난 사람이다.

예수에 대한 보고서는 오래되기도 했지만 이슬람교 전통을 담고 있는 신뢰할 만한 책에서 근거된 것이다. 예수가 그의 일생을 팔레스타인에 있었다면 그는 ‘여행가의 대장’이라고 정당하게 불리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보고서의 관점에서 다양한 독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가 팔레스타인에서 도망쳐 이나라 저나라를 전전하면서 결국 인도에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는 ‘여행가의 대장’이란 칭호를 받을 만 한다.

12 장 알려지지 않은 예수의 인생

불교도들과 예수

예수가 인도로 갔다는 다른 증거는 고대의 불교도들의 문헌에서 나타나는데 예수가 인도로 가서 여기 저기서 신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한다. 존 핀커톤은 1811년에 발간된 여행에 관한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몇 선교사들은 라마의 고대 책에서 기독교의 몇몇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사도들의 시대에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것이다.¹

터키와 러시아 전쟁 (1877-1878)의 막바지에 러시아의 여행가인 니콜라스 노코비치가 많은 국가를 방문하고 1887년 인도에 도착했

1. 핀커톤, <세계의 가장 흥미로운 여행 집대성>, 7집, p.554 런던 1811

다. 그가 불교의 회의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라마의 승으로부터 라싸의 도서 책에 매우 오래된 논문으로 예수의 생애와 서구의 국가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다. 유럽으로 돌아오는 중에 예수의 생애에 관한 것을 정리하였다. 그는 키에브의 유명한 주교 플라톤에게 개정을 위하여 그 논문 내용을 제출하였다. 그가 이런 논문을 공개적으로 출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믿었음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왜?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1년 뒤 그는 우연히 로마로 가게 되어서 추기경에게 그의 원고를 제출하고 신의 축복을 구했다. ‘당신은 이것을 왜 출판해야 하는가?’ 그는 ‘아무도 그것에 중요성을 모른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대한 수많은 적들을 안다. 당신이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 물론 그는 이런 제안을 거부하였다. 부분적으로 그는 그의 계획을 콘스탄티노플에서 만난 로텔리 추기경에 하였다. 그 역시 이 책의 발간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교회가 새로운 무신론에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그러한 책은 복음 원리의 반대자에게 새로운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그는 그의 책을 ‘알려지지 않은 예수의 생애’^(a)라는 제목과 ‘내 책을 비난하기 전에 과학적인 사회는 많은 값을 들이지 않고도 역사적 사실로 성립되고 역사적 가치가 확인될 수 있는 그러한 원고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² 그의 책에서 작가는 다음과 같이 썼다.

(a). 영국 박물관에서 이 책의 번역본을 보았다. 원래는 프랑스 본으로 발간되었다. 그중 하나는 알렉시나 로랑저의 것으로 랜드 맥넬리 출판사에서 1894년 발간되었다. 다른 것은 비올레 크리스프에서 출판되었다. 나의 참고는 첫 번째 번역본을 참조하였다.

2. 로랑저 번역, <예수의 알려지지 않은 생애>, p. 8, 9, 12 뉴욕 1895

최근의 그노파스 중의 하나를 방문하였고 한 라마 승이 나에게 예언자 혹은 그들이 부르는 이사라는 이름의 부처를 소개하였다. 나는 그에게 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줄 것을 청하고 그는 말하기를 ‘이사라는 이름은 불교도 중에 가장 존경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라마 대승을 제외하고 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으며 그는 예수의 생애에 관한 양피지 원고를 읽었다’고 하였다. (p.90)

우리의 그노파스는 이미 수많은 원고를 가지고 있는 데 나는 많은 시간 그것을 읽었다. 그 내용 중에 나는 이사의 생애와 행적을 읽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인도에서 전파를 하였다. (p.91)

‘이사의 생애에 관계되는 주요한 내용은 어떤 언어로 쓰였는가?’ 라고 내가 물었다.

‘이사의 생애를 쓴 내용은 인도에서 네팔로 다시 네팔에서 티베트로 가서 팔리 언어로 쓰였고 지금은 라싸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언어로 된 한 개의 판을 가지고 그것은 티베트 언어로 되어있다.’(p.93)

결국 나의 진지한 설득에 따라 그는 시간의 흐름으로 누렇게 변한 두꺼운 양장지로 된 큰 책을 가져와서 이사의 생애를 읽었다. 나는 주의 깊게 나의 번역가의 말을 베껴 써 내려갔다. 이 특이한 서류는 서로 연관이 없는 독립된 시귀의 형식으로 쓰여있었다. (p.96)

이 고대의 원고에 따라서 이사 (예수)는 이스라엘인들이 부인을 맞는 13세에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몇몇 상인들을 따라서 신드로 여행을 하였으며 그

는 신의 말을 터득하였고 위대한 부처의 법을 연구하였다.
(p.107)

14살 때 어린 이사 (신의 축복을 받은) 신드를 넘어서 많은 여행을 하고 아리아스인들이 사는 것에 정착하였다. 그의 명성은 북부 신드를 따라 퍼져갔다. 그가 라지푸타다와 5개의 강의 국가를 지나갈 때 자니 신의 숭배자들은 그가 그들과 머물도록 간청하였다’(p.107)

거기서 그는 오르시스의 지방인 주거나우트를 방문하였다. 브라마의 백인의 사제는 그에게 베다를 읽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기도자로서 고치고 성서를 가르치고 설명하였고 사람의 몸에서 악귀를 배척하는 것과 그에게 인간의 모습을 돌려주는 것을 배웠다 그는 주거나우트, 라제그리하, 베나레스와 다른 성스런 도시에서 에서 6년을 지냈다. 모든 사람이 베이샤스와 수드라등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사를 사랑했으나 브라만과 크샤트리아는 그를 반대하였다. (p.108)

나는 아래에 이 고대의 서적에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가 인도에서 사람에게 설교한 것을 언급한다.

1. 아버지 신은 그의 자식에게 차별을 하지 않으며 그에 대하여 모두 동등하다. (p.109)
2. 너의 신을 두려워하라. 무릎을 꿇고 그에게만 단지 그에게만 제물을 바쳐라.
3. 이사는 티무르티를 거부하고 시바, 비쉬누와 다른 신에 있어 파라-브라마의 화신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판단

자이며 불멸의 영혼은 우주의 나뉘어 지지 않는 하나의 영혼으로 되며 단지 창조되고 전체를 포함하고 발현한다라고 말하였다. 신은 혼자 의지하고 창조하였다. 신만이 불멸로부터 존재하며 그는 끝없이 존재한다. 그는 천상과 지상에서 동등하며 위대한 창조자는 그의 힘을 아무와 공유하지 않으며 너희들이 배운 것과 같도다. 신만이 전능한 힘을 갖고 있다. (p.110)

그는 그것을 원하는 대로 세상을 나타내게 하였다. 신은 사람, 바다 동물과 그가 창조한 모든 것을 관리하였고 그는 각각의 생명을 고정함으로써 변할 수 없는 질서를 유지하였다. 신의 분노가 곧 창조자를 잊고 그의 사원을 증오로 가득채운 사람들에게 떨어졌으며 신은 그들을 굴복시켰다. (p.111)

백인의 사제와 전사들은 수드라 층에게 이사가 하였던 이 연설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며 이 젊은 예언자를 찾으려고 하인들을 보냈다. (p.112) 그러나 이사는 수드라 들의 위협의 경고를 받고 밤에 쥬거나우트로부터 빠져 나와 위대한 부처의 출생지로 도망갔다. 6년 뒤 그는 네팔을 떠나 히말라야 산으로 가서 라즈푸타나 계곡으로 내려가서 서쪽으로 향하고 많은 위대하게 완성된 인간을 위한 설교를 하였다. (p.113)

이사의 설교의 명성은 이웃 국가로 퍼지고 페르시아에 까지 도달했으며 사제들은 이를 두려워하여 주민들에게 그의 말을 듣는 것을 금하였다. (p.119)

이사가 팔레스타인에 도착하여 이곳 저곳의 불행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인을 고무하기 위하여 신의 말씀을 전파하자 수천명

이 그를 따랐다. (p.126)

그러나 도시의 지배자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빌라도에게 고하였고 예루살렘의 통치자 빌라도는 설교자 이사를 체포하고 재판관을 받게 하였다. 그는 사제와 학자들과 히브리의 노인들에게 그를 재판하도록 하였다. (p.127)

이사의 말을 들은 히브리인들은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민족을 반역으로 이끌게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니 그는 우리의 민족임을 알게 되었다.’ (p.131)

‘빌라도는 그의 첩자를 보내서 결국 이사를 체포하고 판사, 사제자, 원로와 입법자들에게 그를 재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사는 감옥에 수감되었고 두 명의 도둑과 함께 통치자 앞에 끌려 나왔다. (p.140)

그들은 빌라도에게 말했다. ‘법을 어긴 두 도적을 방면하고 무죄한 자를 처형하도록 하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두었다.’ 이렇게 말한 사제들과 현명한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그들의 손을 성수에 닦고 우리는 올바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 무지하다’고 하였다. (p.143) 그들의 통치자의 명령으로 예수와 두 도적의 손에 못을 박아 십자가형을 집행하였다. 그는 하루 종일 십자가에 매달려있다가 저녁에 죽었다. 3일 후에 통치자가 그의 군인을 보내 이사의 시체를 내려 어딘가에 매장하라고 하였고 사람들의 보기를 두려워하였다. 그 다음 날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비어있는 것이 발견되어 곧 대 재판관이 그의 천사를 보내 성인의 죽음을 거두어 갔다는 소문이 퍼졌다. (p.145)

〈인도의 기독교인〉이란 책에서 플라트너는 다음과 같이 썼다.

레 지방에서 우리는 다시 이 부분의 그리스도의 전설을 만나게 된다. 레의 힌두 우두머리와 몇몇의 라다키 불교도들은 바자르에서 멀지 않은 레 에서 오래된 나무 한그루가 서있는 연못이 아직도 있는데 이 나무 밑에서 그리스도가 팔레스타인으로 떠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다고 한다. 또한 다른 전설로 젊었을 때 그리스도는 인도에 상인의 대열과 도착하였고 어떻게 히말라야에서 높은 지혜를 연마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 전설의 여러 버전은 그의 설교가 라다크, 신키안과 몽골리아에 널리 퍼졌으나 모든 버전은 그의 부재의 기간에는 일치한다. 그리스도는 인도와 아시아에 있었다. 어찌 되었든 어떤 근원이든 이 이야기가 전래 된다. 아마도 네스토리안의 것일 수 있다. 그 전설이 확실하게 진지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귀중한 것이다. (p.29)

이러한 행적에 따라 이사가 29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땅에 도착하였다 이 설명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이 예수를 반대하지 않고 그를 환영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편이 되었다 로마의 통치자 빌라도는 그들의 뜻과 반대되게 그를 부당하게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분명히 이 설명은 네 명의 복음 저자들의 설명과는 모순이 된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의 유사한 경우를 조사하게 되면 우리는 진실을 발견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 분명히 십자가형에 대한 설명은 목격자의 것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 중의 한 사람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풍문일 뿐이었다. 사실은 원래의 저자들에 의하여 혼동되었거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가 들은 풍문에 근거하여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이다.

책의 저자는 자신이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그 시대에는 지금의 시대처럼 동양의 공동 생활이란 것은 시장을 중심으로 되어있고 하루와 외국 나라의 뉴스와 같은 사건들이 여행자가 본 것들에 의하여 풍문으로 말하여지고 있었다. 이것이 그 실체를 아는 수단이었다.(p.150)

히미스 사원의 라마승에 의하여 읽어진 두 개의 원고는 티벳 언어로 여러 본으로 번역되었고 이것은 라싸의 도서관에 원본을 번역한 것이며 예수가 죽은 후 인도, 네팔과 마가다로 온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는 이상하게 혼합되어 있으며 그 당시의 다른 사건들과 관계나 일관성이 없다.(p.151)

불교의 사제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관습에 비추어 우리는 그들의 글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십자가형의 경우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믿을 수 없는지? 다른 한편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의 예언은 예수를 박해하였던 유대인의 미래가 하늘의 왕국으로부터 쫓겨날 것이라고 했다. 즉 어떠한 예언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완수되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나온 설명들이 진짜이며 전적으로 복음서의 설명의 관점에서 사실로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조금의 주저도 없다. 단지 이 고전에서 도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론은 예수가 인도로 가서 오랫동안

안 거기서 살면서 인도의 민중에게 신의 말씀을 전파하였다는 것이고 그에게 기독교인한 가르침 중 내가 언급한 몇몇은 아주 우수한 것이고 예언가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예수가 인도로 가지 않았다면 불교의 연대기가 인도에서의 그의 설교를 수록할 필요가 없다. 한편 그들은 그의 설교를 부인할 수가 없지만 다른 한편 그들은 그의 가르침이 불교나 브라만의 것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고타마 부처의 위대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사건을 혼란 시키고 예수가 예언자로서 인도에 갔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그의 가르침을 독창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그들은 그것을 부처의 말로 다 돌리고 예수가 그의 어린 시절 결혼을 피하기 위하여 인도로 와서 부처의 법을 공부하였다고 했다. 예수의 시대에 팔레스타인에서 부처의 교리가 결코 전파된 적이 없음은 사실이다.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 뿌리 깊기 때문에 누구다 혈연으로 맺은 것을 끊어낼 수 없다.’ 이런 종류의 필요성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부터 가까스로 모면한 때를 제외하고 예수의 전생애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에서의 그의 생활은 항상 파멸로 가는 계속적인 위험 속에 있었던 것이다.

내가 논의하기를 원하는 다른 점도 있다. 부처의 생애와 가르침이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과 너무 흡사한 면이 많기 때문에 몇몇 사상가들은 기독교는 단지 불교의 복사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맥도날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듀트 씨는 고대 인도의 불교와 기독교라는 장에서 ‘불교의 도덕적 인식과 가르침과 기독교의 그것과 아주 흡사하고 종교의 두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연관성이 오랫동안 의심되어왔다.’³

어니스트 에이텔 박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주의 깊은 독자들은 부처의 일생에 대한 대강의 스케치에서 상세한 부분이 복음서에 보고되는 구원자의 생애와 우연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는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천사들에 의하여 환영을 받고 예언적인 시각으로 오래된 성신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사원에 소개되었으며 물과 불로 세례를 받았으며 모든 학식 있는 박사들을 이해와 응답을 받았으며 황야로 귀신들에 의하여 몰려나갔으며 악마의 유혹을 받고 부란당, 죄인들의 친구로 산 위에서 변화를 하였으며 지옥으로 갔다고 천상으로 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특징적인 사건은 예수의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부처는 그리스도 보다 275년 혹은 543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어떤 회의론자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18년 동안 인도에 갔다가 30살에 귀국하였고 석가모니 부처의 생애와 행적을 모방하였다고 한다. 혹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독창성이 제수이트 파의 신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참한 험잡이라고 하며 악마는 약속된 메시아의 생애를 미리 알고 모든 그의 행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였다.⁴

예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의 사건이 실제로 불교에서 빌려오거나

3. 맥도날드, <발람과 요셉의 이야기>, 서문, p.xivii, 켈커타 1895

4. 에이텔 <부다 강의>, 3판, 런던 1884

아니면 에이텔 박사가 말한 것처럼 우연한 일치인지? 혹은 그가 어렸을 때 인도로 갔거나 혹은 제수이트 신부들처럼 악마의 작용인지? 여기에 복잡한 질문에 답이 있다. 이 시대의 예언자인 아마드는 ‘인도의 예수’[〈Masih Hindustan Mein〉]라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부처와 예수 사이에 왜 그렇게 많은 닮은 점이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아리아스는 이 점에서 예수가 인도의 여행 중 불교를 알게 되고 부처의 생애를 알게 되서 그것으로부터 그의 복음서를 만들어 그의 고국에 전파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리아스의 부정직한 실수이다. 십자가형을 지기 전에 예수가 인도로 갔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는 그러한 여행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시리아의 유대인이 그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로 보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있었다. 유대인에 대한 그의 동정을 소진하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였지만 유대인은 그들의 사악한 성격상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을 찾으라는 계시를 받은 예수는 인도로 향하고 그들을 만났다. 그리고 유대인의 무리들은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 불교 추종자들은 진정한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대안 외에는 없었다. 불교도들은 메시아인 부처가 출현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의 명칭은 도덕적 가르침 (적을 사랑하라, 악을 물리치라) 과 함께 고타마 부처가 예언한대로 백색 인종의 마시아 (메시아)로서 부처로 장 된다. 또한 그의 메시아라는 명칭과 도덕적 가르침과 예수의 생애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부처에 속한 시대로

올라가는 것은 힌두인들이 결코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 어떤 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처의 생애의 사건은 예수의 시대까지 기록되어있지 않았다.^(a)

불교의 사제들은 부처에 대한 그러한 사실을 기록할 굉장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도덕적인 가르침의 예를 따라 약속된 메시아는 다음과 같이 썼다.

‘생각해 보건 데 이 도덕적 가르침과 이 설교 방법은 즉 우화를 이용하여 말하는 것은 (예수의 방법으로) 한때 다른 상황과 결합하여 예수의 가르침을 모방한 것이다. 예수가 인도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설교를 하고 나자 불교도들은 그를 만나고 그가 성인이며 축복 받은 인간임을 그들의 책에 기록하였다. 그들은 그를 부처로 선언하였다 그것은 그의 인간성이 선한 것을 찾으려 하였기 때문이며 이전에 그들 누구보다도 현명한 것을 이야기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불교의 추종자들의 믿음이 그들의 책에서 복음서를 모방한 것이다. 예수의 인도의 방문으로부터 야기된 모든 그러한 유사점은 불교 추종자들에게는 상당한 시간동안 믿음으로 남아있었다.

(a) 에티엘 박사는 ‘부처의 생애에 대한 부처의 행적을 기독교적으로 색채화 하였다는 것은 비교적 근대의 일이다. 고대에는 틀림없이 복음서의 가장 오래된 복사본이 있었던 때 부처의 기록은 없었다’고 했다. (에티엘, <부다 강의>, 3판 p.16, 1884, 런던

허만 올텐버그는 “주교의 성명서에 전제되어야만 하듯이 부처의 자서전을 고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팔리 구문의 시대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그의 자서전이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올텐버그, <부처, 그의 인생, 주의, 종단>, p.78, 윌리엄 & 노게이트, 1882)

내 의견으로 예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이 불교의 문헌에 삽입되고 고타마 부다에게 어떻게 속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며 만족스러운 대답이 된다.

13 장 유스 아사프와 예수

예수의 인도 방문에 관련된 마지막이면서 중요한 사항이다 나는 이미 전 페이지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않고 그의 육신은 무덤에서 빠져 나와 비밀리에 팔레스타인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시빈으로 갔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편잡을 지나 카슈미르에 도착하였다.

신이 ‘메시아이며 마리아의 아들이 죽다’ 라고 계시한 약속된 메시아는 칸야르 거리 스리나가에 있는 카슈미르의 주민들에게 이를 말하였고 그 무덤은 나비 사이브 (예언자)의 것이라 했다. 나비라는 단어는 두 언어 히브리와 아랍어로는 썸족의 예언자라는 결론을 갖지만 히브리의 예언자로서 나타내기도 하는데 신성한 예언자인 무하메드를 이후에 이슬람교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들은 신의 예언자로서 알라의 평화와 축복을 받은 자이며 그의 무덤은 메디나에 있다. 따라서 히브리의 예언자라는 의미는 이러한 관점은 자세한 조사로 확인되는데 그가 예언자였고 유스 아사프로 알려진 이방인으로 1900

년 전 카슈미르에 살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스리나가에 묻힌 예언자는 바로 인도의 북부 지방으로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온 나자렛 예수일 뿐이다.

여기에 이 관점을 지지해주는 관점을 기술한다.

1. 문제의 무덤이 1900년 전에 카슈미르로 온 왕자라고 불렀던 예언자 유스 아사프였다는 것은 스리나가의 저명한 학자들의 구술 또는 서면의 증거가 있다. 이것의 긴 증언 목록은 1902년에 카디안에서 발간된 약속된 메시아에 의한 아랍어 책 알후다의 마지막 장에 있다.
2. 무덤이 예언자 유스 아사프의 것이었다는 것을 이 국가의 연대기가 증언한다. 타리크-이-아자미 (카슈미르에서 200년 전에 쓰여졌다) 의 작가는 p.82에서 이 무덤을 언급하였다. 사이드 나스르-우드-딘의 무덤 옆의 무덤은 일반적으로 카슈미르 주민에게 보내진 예언자의 무덤이다.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외국으로부터 카슈미르에 왔다. 그는 완전한 동정심과 올바름과 헌신의 사람으로 신에 의하여 예언을 하고 카슈미르에서 전파를 하였다. 그의 이름은 유스 아사프이다.
3. 바이트브레흐트 목사는 기독교 선교사로서 약속된 메시아의 반대자로서 편잡 지방에서 수년간 직무를 하고 1903년 무덤을 방문한 후에 기독 신문 에피파니에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여기에는 두 개의 비문이 있는데 무

덤을 지키는 수호 노인은 커다란 것은 북쪽에 있는 것으로 유스 아사프의 것이고 작은 것은 나스르-우드-딘의 것이라고 하였다.^(a)

4. 종교 리뷰의 논설자는 1909년 10월 판에 다음과 같이 썼다. 무덤에 대하여 가장 놀라운 것은 나비 사이브의 무덤으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이사 사이브(예수)라고 알려져 있다. 미르자 바시르-우드-딘 무하무드 아마드는 약속된 메시아의 아들이며 지난 7월에 무덤을 방문하였다. 그는 대대로 무덤을 지키는 사람에게 누구의 무덤인가를 물었는데 그녀는 그것은 이사 사이브의 무덤이라고 하였다. 왜 그렇게 부르는가의 질문에 몰비 족들이 이사(예수)가 천상의 사람으로 이 무덤의 주인이라고 믿기 때문이며 그들의 의지대로 믿는다고 하였다. 이사라는 이름은 그들의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름이라고 하였다.

5. 우리는 아크말-우드-딘 (1,000년 전에 아랍어로된 책)의 p. 359에서 다음과 같음을 본다.

그[유스 아사프]는 여러 나라와 도시를 방황하다 카슈미르라는 국가에 도착한다. 그곳을 방랑하며 그곳에서 죽

(a) 바이브리트 목사가 편지에서 몇 가지 사실을 잘못 말해서 약속된 메시아의독실한 동지인 마울비 셰르 알리와 논란이 있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종교의 관점> 참고.(1903년판 제 2권, 11, 12, 1904년 5월판 3권 5번)

음을 맞이할 때까지 지냈다. 그는 그의 육신을 남겨놓고 빛으로 승천하였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를 모시고 그를 보살피고 모든 문제에 완벽하였던 제자 야비드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출발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너는 너의 의무를 다하고 진실을 보살피며 모든 의식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제자들에게 그를 위한 무덤을 만들 것을 명하고 다리를 뺀고 그의 머리를 서쪽으로 돌리고 그의 얼굴을 동쪽에 두면서 숨을 거두었다.’

이책에서 유스 아사프는 〈부쉬라〉(아랍어와 히브리어로 복음서)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그는 부쉬라 (복음서)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지혜의 샘물을 퍼내고 그가 가진 지식을 그와 그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6. 프랑시스 영허스밴드 경은 카슈미르의 영국 총독으로 1909-11년까지 거주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썼다. ‘1900년 전에 카슈미르 지방에 살았던 유스 아사프라는 성인은 우화를 비유 삼아 설교를 하였으며 이는 그리스도가 사용하던 많은 우화였다. 그의 무덤은 스리나가에 있으며 카디아니 파의 창시자의 이론은 유스 아사프와 예수는 한 사람이며 동일이라는 것이다.’¹

7. 프랑스와 베니에가 그의 책 여행에서 언급하였던 점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 카슈미르에 살았다는 것은 ‘모세가 카슈미르의 도시에서 죽었다는 믿음과 그의 무덤이 그 지역에 있다는 것’으로 베니에가 말하듯이 거주인은 이슬람교도였다는 것이 분명하고 모세가 카슈미르에서 죽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신성한 예언자는 그의 무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다. 메시지에는 아마 이사를 모세로 오해한 것 같다. 그러나 이점은 틀림없이 17세기의 카슈미르 주민들은 무덤의 주인이 히브리의 예언자이며 모세 만큼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점이.²
8. 아마드 이슬람은 1939년 카슈미르를 방문하고 나서 더 선라이즈의 논설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나는 내 영역에서 좀 벗어나려한다. 나는 통가왈라에게 카나르를 언급하였다. 영혼이 들린 자는 대답을 하였다. ‘당신은 나이비 사이브의 무덤을 보기를 원하는가? 내 대답은 ‘그렇다’이고, 우리가 그곳으로 갈 것이며 무덤에 도착하자 인도와 다른 국가의 방문객들이 무덤을 보러 방문하고 있었다. ‘총독도 왔었다’라고 하였다. 나는 이것을 듣고 ‘어느 총독이 왔는가’하고 물었다. ‘모른다고 대답하였지만 나는 총독의 무기를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분

1. 카슈미르 - 프랑시스 영허스밴드 설명 pp2129-130, 런던 1811

2. 베니에: 모굴제국으로의 여행, p.430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

명히 거기에는 헬리팍스 경이 있었다. 그는 영국의 외무성 서기였다. 헬리팍스 경은 결코 종이에 서명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그것에 대한 것을 읽은 적이 없다. 아직도 헬리팍스가 그의 호기심을 잘 충족시켰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총독에 의한 방문은 공표되지 않았으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 무덤은 얼마나 되었는가?’하고 물었더니 ‘매우 오래 되었다’고 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가?’하고 물었더니 그 원주민 세 명 중에 서로를 쳐다보더니 ‘1900년’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온 예언자라고 하였다. 무덤은 수백 년 동안 경배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다.³

무덤에 대한 이 언급은 그 무덤의 주인공이

- (1) 왕자였고
- (2) 나비, 즉 신의 예언자로서 카슈미르에 왔고
- (3) 우화를 사용하여 이야기 하였으며
- (4) 1900년 전에 서부로부터 온 이방인이었고
- (5) 그의 이름은 수프이고 ‘이사’로도 불렸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무덤의 주인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다. 무엇인가 특출난 사람에 대해 과거에는 다비드의 아들인 왕자 예수라고 불렀을 것이다.

3. <더 선라이즈>, 10집, 16, 1939년 4월 22일, 인도 라호르 (현재 파키스탄)

- (1) 예수는 왕자였다. 다비드의 아들⁴이라고 불렸으니까. 다비드는 신이 왕자로 칭송하였고⁵ 지상의 왕의 아들이었다.⁶
- (2) 예수는 나비였고 즉 신의 예언자로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을 위한 자였다. 이를 위해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카슈미르로 여행을 하였다.
- (3) 예수는 우화로 이야기 하였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는 그의 제자를 새들로 비교하였다. 씨 뿌리는 사람의 우화도 마태복음에 언급되어있었는데 이 우화를 사용하였다.⁷
- (4)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카슈미르로 1900년 전에 여행하였고 그 시간은 동일하다.
- (5) 코란에 예수의 이름은 이사이며 히브리어로 이슈의 약어이다.

유스 아사프

그는 유스 아사프라고 불렸고 이는 히브리 이름이다. 유스라는 단어는 유유라는 다른 형식으로 '예수'라는 페르시아 고어이거나 야수는 페르시아와 아랍의 신약에 나온다. 유스라는 단어는 따라서 '예수'를 의미한다. 아사프는 성경의 이름으로 집성자라는 의미를 갖는다.^(b)

4. 마태복음 9:27, 20:30

5. 사도행전 5:31

6. 계시록 1:5

7. 마태복음 13:34

(b). 백스터의 다국어 성경 팩시밀리 시리즈 부록 33쪽, 의미를 가진 적절한 명칭에 관한 색인 참조.

연대기에서 아사프가 사용되었으며 다비드의 찬송가를 지키는 사람을 지칭하였다.

예수의 의무는 흩어진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을 모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말하였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 하여야 할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⁸

이런 이유로 예수는 아사프로 불렸다.

그가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과 카슈미르의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에게 설교하러 왔을 때 그는 유스 아사프 즉 예수 아사프로 불렸다. 미국의 작가들은 약속된 메시아에 의한 발견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발람과 죠사파트 혹은 조아사프의 이야기의 의견에 근거하고 특히 기독교 선교인들에 의하여 예수를 다른 예언자와 같이 매장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바이트 브레흐트 목사는 예를 들어 위에 언급된 편지에서 유스 아사프에 대한 사건은 발람과 죠사파트의 소설과 같은 것으로 부처의 생애와 유스 아사프의 것을 유사하다고 하였다. 또한 맥도날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이야기에 나오는 조아사프 혹은 죠사파트가 부처였다 는 사실은 동시에 또한 다른 시간에 프랑스 독일 영국 학자에 의하여 밝혀졌다. 작가 자신은 그 이야기가 인도로부터 전래

8. 요한복음 10:16

된 것을 인정하였다. 누구나 그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인정한다.⁹

또한 ‘사실상 발람 그 자신은 부처의 다른 화신으로 조사파트이다.’¹⁰ 약속된 메시아의 무덤에 대한 정보의 원천은 발람이나 조사파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의 작가들이 조사파트를 부다로 정당히 취한다면 예수에 대하여서도 같아야 한다. 유스 아사프가 신의 예언자로서 단순한 성인이거나 예언자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두 가지에 놓여있다. 스리나가의 유스 아사프가 부처였는가 예수였는가. 그는 부처가 될 수 없다 먼저 부처는 스리나가에서 살지 않았다. 그의 육신은 매장되지 않고 화장되었다. 현대의 연구는 부처가 죽은 장소를 발견하였다. 그는 죽고 화장되었는데 기원543년에 80세의 나이로 쿠시나가라에서 였다. 그의 유물은 기념비적인 무덤에 보존되고 있다.¹¹

T. W. 데이비드 박사는 이렇게 적고 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영국과 네팔 영토 사이의 경계에 인접한 비르드푸르 지역에서의 윌리엄 페프 씨의 발견이다. 그것은 부처의 다비식에서 나온 재를 공유하는 사키아 부족이 세운 사리탑이다.¹²

9. 맥도날드, 〈발람과 조아사프의 이야기〉, 서문, p.iii, 캘커타 1985

10. 조셉 자콕, 〈발람과 조사파트〉, 서문, p.xiix, 런던 1895

11. 챔버스 백과사전, 개정판, 〈불교〉, 런던 1880

12. 브리 태니커 백과사전, 〈불교〉판

허먼 올텐버그 박사도 이렇게 쓰고 있다.

부처는 쿠시나라에서 죽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도시 성문 앞에서 쿠시나라의 귀족들이 우주의 군주가 남긴 유물을 향해 경배를 하며 부처의 시신을 불태웠다.¹³

따라서 쿠시나가라 혹은 쿠시나라에서 죽고 화장이 된 부처는 논의 중인 무덤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부처의 무덤이나 힌두의 라자, 왕자 혹은 성인의 무덤이라면 이슬람인이 아닌 힌두교도나 불교도들이 방문해야한다. 셋째 유스 아사프라는 이름은 위에서 논의 하였듯이 히브리의 이름으로 그것은 보디스타바의 형식으로 부르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부디스타바로 부르는 것보다 유스 아사프의 다른 형태로 부르는 것이 더 믿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카슈미르의 유스 아사프가 고트마 부처가 아니며 우리는 이것을 나자렛의 예수라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약속된 메시아에 의한 발견의 천재성은 스리나가의 유스 아사프의 무덤이 바로 예수라는 것으로 모든 가능한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증명될 수 있는 것으로 사이크 아시드 리드하 (이집트의 카이로)가 그의 전인생 동안 약속된 메시아를 반대하고 돕지 않았으며 이 무덤에 관하여 계속 논쟁을 벌였다. <타프시르-울-마나르> 6집에서 알-후다(아랍어로 약속된 메시아의 작업)는 ‘예수의 인도 여행과 카슈미르에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한다.

13. 올텐버그의 <부처>, p.203

따라서 예수가 인도로 여행하고 카슈미르에서 죽었다는 것은 합리적이거나 역사적 진실이다.

도커 판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여기서 내가 전에 언급했던 오래된 전설을 주목해야한다. 그것의 현대 버전은 몇 년 전에 계간지인 동과서에 나와 있다. 간략하게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않았으며 기적적인 연고의 치료로 상처를 치료하고 40일만에 다 회복하였으며 인도로 여행을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을 위하여 전파를 하고 스리나가에서 죽었고 그의 무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었다. 비록 내가 이 설명에 대한 실제적인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한 부적절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는 다른 근원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과 박트리아의 현대와 고대 부족이 히브리족으로 알려졌다는 것을 신약 성서의 많은 부분이 이야기를 적어도 날조하지 않았다면 그러함을 보여준다. 예수가 유대아와 갈릴리에서 40일 이상 머물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왕의 왕국에 대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지도를 하고 왕국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에게 가지고 떠날 것을 호소하였다.

다시 p.77에서 이렇게 쓴다.

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반복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에 대한 전파 뒤에 스리나가에서 예수는 죽었고 그의 이름을 묘비에 세우고 무덤에 묻혔다.¹⁴

존 노엘은 <아시아>(1930년 10월호, 미국)라는 월간지에 실린 ‘카슈미르의 하늘 같이 높은 눈의 정상’이라는 기사에 이렇게 썼다.

거대하게 강한 그림같이 넓은 카슈미르의 농부들은 순종적인 기질이다. 그들에 대하여 놀라운 것은 거대한 얼굴이다. 그들은 완전히 유대인의 모습이였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의복과 합치되는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유대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였는가 즉 카슈미르의 강한 전통과 유대인의 것이다. 수 많은 시간 동안 이 나라에 떠도는 소문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나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카슈미르 라다크에 왔고 스리나가에서 죽고 매장됐다는 것이다. 여기서 살았던 예언자에 대한 언급이 바로 우화를 사용하여 발하던 예수였고 카슈미르에서는 오늘 날까지 그것이 말하여지고 있다.

판디트 자와하르 랄 네루 인도 수상은 그의 책 <세계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중앙아시아, 카슈미르 라다크와 티벳과 더 북쪽을 걸쳐 아

14. 도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p.71, 런던, 1920

직도 예수 혹은 이사가 거리를 여행하였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 (p.84)

그러므로 이성과 지혜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예수가 무덤에서 죽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나와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살았다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카슈미르의 스리나가의 칸 야르 가에 있는 무덤속의 인물이란 결론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않았으면 그는 어디로 가서 어디서 죽었는가?’ 이러한 점에 예수의 알려지지 않은 생애에 대한 복잡한 질문의 해결책이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어떤 더 믿을 수 있고 적합한 해결 안을 내놓는다면 그는 앞으로 가서 그 자체에 대하여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무덤을 열고 그것을 조사할 고고학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들은 앞에 발견한 사실을 지원하는 돌이나 다른 기호등에 대한 묘비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단지 신으로 경배되기 위하여 사람을 불러내는 사람을 경배하는 수백만의 동료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된다.

14 장 최고의 예언

신의 평화와 축복을 받은 신성한 예언자 무하메드는 메시아가 이슬람교도에게서 인도 즉 다마스쿠스의 동부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그는 십자가 즉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 바로 정통적인 기독교의 신앙의 근거인 기독교의 허위의 교조를 증명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기독교 독자들이 이 예언의 위대성을 인식하지 못함에도 나는 그들을 위하여 이점에 더 공을 드릴 것이다.

신의 평화와 축복을 받은 신성한 예언자 무하메드의 출현 이전에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였다. 유대인은 그가 허위의 예언자라고 판명하고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여 십자가형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 희생시키고 그가 3일째 다시 부활하여 40일간 지상에 살다가 승천하였다고 하였다. 이 믿음에 반대하여 신은 코란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않았다고 하였으며 신성한 예언자는 분명히 예수는 120살의 나이에 죽었다고 하였다.¹ 게다가 신성한 예언자의 죽음에 모든 이슬람교도는 그를 앞서서 나온 예언

자들도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신성한 예언자의 한 동반자는 의심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무하메드가 신의 예언자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크라 아부 바크르는 코란을 인용하였다.

무하메드는 단지 사자일 뿐이다. 그 앞에 나왔던 모든 사자들은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가 죽지 않는다면 당신도 죽지 않을 것인가?²

이 글을 읽고 신성한 예언자에 대한 죽음에 대한 모든 의심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모든 이전의 예언자들도 그와 같이 죽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다시 우리는 예언자들의 잘 알려진 이야기와 아부 라파르 무하메드 아브 자리르 알 타바리의 왕들에 대해서 신성한 예언자의 죽음에 대해 바레인의 이슬람교도들은 신성한 예언자의 진실을 의심하고 초기의 믿음을 포기하면서 ‘무하메드가 예언자였다면 그는 죽지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무알라의 아들 자루드는 압둘-카이스 종족에 속하는데 메디나에 머무는 동안 적절한 종교적 지식을 얻게 되고 그의 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과거에는 신의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아느냐’ 그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다시 ‘너희들은 단지 추측하느냐 그것을 아느냐’라고 불으니 그들은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
1. <이사바 피셔-히즈-사하바드>, 5집, p.54, <간줄 대학> 7집 이븐 오마르와 하자라트 파니마로 부터의 타바라니 보고서
 2. <부카리> 3집 p.63, 오사마니아 미스리아 프레스, 1932

모르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말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다시 그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들은 대답하기를 ‘그 예언자들은 죽었다’라고 하였다. 그는 ‘무하메드 역시 죽었으며 숭배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였으나 알라와 무하메드는 신의 사자이다’ ‘그의 예를 들어 그들은 똑 같이 그의 수장인 자루드를 환영하였다’³ 이와 같이 그들은 확신하였고 이슬람에 충실하였다. 우리는 신성한 예언자의 죽음에서 이슬람교도들은 그의 죽음에 특별한 것이 없었으며 이전의 예언자들처럼 그도 죽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의 평화와 축복을 받은 신성한 예언자 무하메드의 모든 동료들에게서 인정되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국가들의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로 들어온다. 불행히도 코란이나 이슬람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러한 개종은 이슬람 사이에 퍼져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이나 기독교 정신에 머물러있다. 공동 종교로서 의존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전설에 따라 코란을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수의 자연사는 모든 성스러운 예언자가 동의하듯이 이슬람교도에서는 부인되고 예수가 그의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믿음과 나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라는 믿음이 이슬람교도들에 퍼져 있으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을 이교도로 간주한다.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은 거부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분명히 우리는 메시아, 예수, 마리아의 아들이며 알라의 사자를 죽였다. 반면 그들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3. <타리쿠-우르-루살 왈 무룩>, 아부 야파 무하마드 이븐

사실이지만 그것을 의심한다. 즉 그는 그들에게 죽은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확실히 그들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알라 신은 그를 찬양하였고 그에게 그와 비슷한 재능을 주었다. 알라는 전능하다. 현명함과 함께'⁴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는 이 분명한 설명에서 어떤 이슬람교도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슬람교도는 한편으로 그들의 기독교와의 공통 종교자로 개종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있다. 그들은 예수가 유대인에 의하여 압류 당하고 있었고 신은 그의 천사를 보내 빛을 통해 하늘로 데리고 갔다고 하며 호위병들은 예수와 같은 사람을 환영으로 보고 그 환영을 십자가 매달았다고 한다. 어떤 이슬람교도 주석가들은 더 멀리 가서 3일 동안 예수가 자연사를 하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어떤 다른 사람이 예수를 닮아서 예수 대신 죽었다는 말은 코란에 없으며 신성한 예언자에 의해서도 말해지지 않았다. 그것에 대한 모든 전설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와 닮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신이 예수를 하늘로 데려갔다면 유대인에게 대체되었다는 사람이 왜 필요하겠는가? 다시 어디서도 그 대체된 사람이 예수임을 부인하려고 한 적이 없다. 그는 쉽게 이것을 증명하고 모면했다. 적어도 그의 친구 혹은 친척들이 그가 사라진 것을 보고 그를 찾아 나섰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그리고 유대인이 정당하게 예수가 즉흥자요 허위의 예언자라는 것을 정당하게 비난할 수 없다. 그들은 그가 하늘로 올

4. 자리르, <옛-타바리>, p. 1058-59, 브릴 1890

라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대체자가 예수로서 나타났다면 메시아임을 부인하였을 것이고 유대인은 그가 예수임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지게 했을 것이다. 유대인은 이런 경우에 예수를 거부하기 위하여 신의 눈으로 보아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변화된 것으로서 유대인은 신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데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구문 외에 코란에는 예수가 자연사를 하였다는 많은 구문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코란에서 알라가 예수에게 ‘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너를 너의 엄마를 너의 신을 위하여 가둘 것이라고 말하였는가’라고 질문하였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영광이여 당신과 있으라 내가 말할 권리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을 적당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나 당신이 나에게 명령하였다. 알라를 너의 주로 모시고 내가 그들 중에 있는 한 내가 그들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너가 나를 죽게 한다면 너는 그들을 위한 감시자가 되고 너는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라고 하였다.⁵

이 구문으로부터 예수는 그가 신에 대하여 부활의 날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때 그는 그 당시 자연사를 하였고 기독교인들에 있는 그의 ‘신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예수가 아직도 하늘에 살아있다는 대중의 믿음과 그가 다시 지구로 내려 온다는 것은 이런 구문과 직접적인 모순이다. 왜냐하면 그가 지구로 다시 오게 된다면 그는 그를 신으로 여기는 수백만의 기독교인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는 그가 기독교인이 믿는 그의 ‘신성’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할 입장도 아니다.

5. 코란, 5장 116-117절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음에도 그 위에서 죽지 않고 수세기 동안 이슬람교도로부터 숨겨진 자연사를 했다는 것은 약속된 메시아가 그 진실을 밝힐 때까지 였다. 약속된 메시아의 책 <마시 힌두스탄 마인> (2장)에서 약속된 메시아는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부인하는 구절에 주석을 달았다.

전능하신 신은 말하였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수도 십자가형을 취할 수도 없다.^(a) (즉 그를 십자가에서 죽일 수가 없다) 또한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심할 뿐이다. 또한 그들은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납득하고 만족하는 증거가 없다. 이 구문에서 전능하신 신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들은 그를 죽일 수 없었으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틀린 것이다. 또한 신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 사람이 옳다면 그 사람은 코란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사실이라고 판명된 것을 믿는 것에 반대로 쓰여졌다고 할 것이다. 현대의 훌륭한 연구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면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많은 연구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예수가 뼈도 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2-3시간 안에 어떻게 죽을 수가

(a) 무슬림 논평자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고정하지 않았으며 그가 십자가에 놓여졌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코란의 ‘마스라부호(Masalabooho)’라는 말을 잘못 이해했다. 아랍어의 ‘sulb’는 손과 발을 십자가에 고정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영어의 ‘십자가 처형crucify’와 정확하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웹버스 20세기 사전>) ‘살라부후Salabuhu’는 어떤 잘 알려진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레인의 아랍어-영어 어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유대인이 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유대인이 날조하고 예수를 검으로 죽였다는 것이다. 반면 유대인의 고대의 이야기는 예수가 검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신의 전능한 권력에 의한 것으로 날씨가 어두워 지고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빌라도의 부인이 환각을 보고 안식일 밤이 되었었다 그리고 그때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가 십자가에 불법적으로 매달려 있고 그의 부인의 꿈대로 예수를 풀어주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를 구하려는 신에 의한 것이다. 또한 예수는 졸도의 상태로 죽은 것으로 여겨졌다.

지진이나 엄청난 신호등은 유대인에게 하늘의 징벌의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게다가 안식일 밤 동안 시체가 적어도 십자가에 매달려있지 않도록 걱정을 해야 했다. 유대인은 졸도한 예수를 보고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날은 어두워졌고 지진이 있었으며 굉장한 동요가 있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가정을 걱정했다. 어둡고 지진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겠는가?

그들의 가슴에는 무시무시한 공포가 있었고 이 사람이 거짓말이거나 이교도라면 왜 그러한 무서운 징조가 그의 고통의 시간에 재현되는가? 전에는 한번도 본적이 없는 징조였는데, 그들은 너무 당황하여 더 이상 예수가 사실상 죽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살펴볼 입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어났던 것은 예수를 구하기 위한 신의 작정이었다. 이것은 왈라 킨 셔비나 리훅 즉 유대인이 예수를 죽지 않았다는 시구에 나타나있으며 신은 그들이 그를 죽이게 했다고 믿

게 하였다. 상황은 정직한 사람들을 신의 편으로 데리고 가게 한다.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종을 데리고 간다.

다시 약속된 메시아는 같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러나 나는 유럽의 조사자들이 이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방법이나 불교도들의 원리가 예수의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예수의 이름이 불교의 고대 책에서 언급되고 조사자들이 팔레스타인에서 부처의 믿음의 흔적을 채택하였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네팔, 티벳, 카슈미르의 바위의 흙에서 예수의 축복 받은 발신자취를 찾지 않는가?

이 조사자들은 진실을 밝히기를 기대할 수 없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그것은 인간-우상이 세상에 퍼져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용이고 십자가의 우상과 인간의 희생으로 또한 나사렛의 예수의 이름으로 신의 하인으로 보내진 진정한 신으로부터 수백만의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의 약속에 따라서 그는 약속된 메시아로 나타났다. 그리고 십자가를 깨뜨리는 시점에서 십자가의 믿음의 잘못이 명백하게 된 것이다. 예수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생각은 그것이 실수였음에도 비밀이었다. 메시아적인 진실은 잊혀지고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마치 시체가 무덤의 흙 속에서 썩어가듯이

이 메시아에 대한 현실은 인간의 존재로부터 육체적인 것에서 천상의 존재로 믿어진다. 따라서 이 현실은 이후에 지상에 내려와야 된다

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으로 이 시대에 지상에 내려왔다. 그 사실은 십자가의 상징을 깨버렸다.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라 나는 칼을 들고 왔다. 아니다 나는 모든 칼들은 칼집에 넣어 버렸다. 세상은 어둠 속에서 많은 것을 투쟁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진실한 바람을 공격하고 동족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자신을 해를 입힌다. 그러나 지금은 어둠이 더 이상 없다. 밤은 갔고 날은 왔으며 축복을 받은 것은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신의 평화와 축복을 받은 신성한 예언자 무하메드에 의하여 예언된 것이 1,350년 전에 완성되었고 약속된 메시아는 십자가의 상징을 깨고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신념의 허위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예수 자신에 의하여 말한 것을 그의 두 번째 출현 시점에서 성취되었다. ‘지구의 모든 부족이 한탄하리라’⁶ 그것의 의미는 기독교인 유대인 이슬람교도인 등 지구(팔레스타인)의 거주자들이 그들의 예수에 대한 믿음이 허위라는 것을 알 때가 된 것이다.

서기 3세기 콘스탄틴 대제 시대에 십자가는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상징으로 채택되었고 이와 같이 모든 십자⁷는 기독교인이 그들의 믿음의 허위성을 깨달을 때 약속된 메시아의 입으로 예언되었던 것처럼 부서져버린다.

‘오늘로부터 3세기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예수를 찾는 모든 사람들 기독교인 혹은 이슬람교도인들이 그것에 대해 절망하고 지금까지 그들에 의하여 귀중하게 여겨왔던 허위의 믿음

6. 마태복음 24:30

7. 영국 백과사전 II “십자가”

을 저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계는 하나의 종교와 하나의 지도자로 될 것이다. 나는 씨를 뿌리러 왔고 나는 씨를 뿌렸다. 그것은 지금 자라고 있으며 꽃을 피우고 적절한 계절이 되면 과일을 맺을 것이다. 아무도 그 뿌리를 건들지 못하리라'⁸

내가 끝내기 전에 나는 약속된 메시아, 이 시대의 예언자의 말로써 기도해야 한다. 그는 모든 국가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도록 신에 의해 보내진 사람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의 전능하신 알라는 인간을 신으로써 숭배하는 기독교인을 구하고 이 시대의 예언자들의 약속을 완성하였다. 가시에 박힌 상처 받은 사람을 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샘물을 주고 사랑과 지식으로 가득차리라. 인간의 피에서는 구원은 없다. 자비로운 신은 오랫동안 인간을 숭배하여왔으나 이제 그들에 대한 자비를 보고 그들의 눈을 떴다. 전능하고 자비로운 신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예수의 피라는 허위의 도그마에서 빨리 해방하라. 전능하신 신은 그들의 축복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정신을 하늘의 빛으로 밝혀주어 그들이 당신을 보게 하리라. 그들이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 인간을 숭배하는 것을 그치게 되면 그들의 마음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들겠는가? 오 신이여 모든 것은 당신에게는 다 가능합니다.

8. 아마드, 약속된 메시아, <타즈크리아-투쉬-사하다타인> p.65 카디안 1903

그래서 당신이 노아의 시대에 하였던 것처럼 그들을 파괴하지 마소서. 결국 그들 모두가 당신의 창조물이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들의 가슴을 열게 하시고 그들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1945년 3월 14일 런던
제이 디 샴즈, 런던 모스크의 이맘

제6판 부록

(〈더 선데이 타임즈〉에서 발췌, 1965년 1월 24일자 런던)

1955년 성 토마스 병원과 살리스버리 병원 그룹의 수석 마취사인 부른느 박사는 치과 시술 중 일반 마취 하에서 의식을 잃은 환자의 경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서서 있는 경우 피 공급이 두뇌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른느 박사는 1957년 이 원래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후에 그의 발견에 대한 생각이 바뀌자 그는 십자가형과 부활에 대한 사실적인 면을 말하였다. 무엇인가 놀라운 이론이었으나 부른느 박사는 강한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부활의 초자연적인 설명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더 관심을 끌을 수 있다고 느꼈다. 그는 캔터베리 대주교의 부활에 대한 사항을 인용하였다. ‘가능한 역사적인 증명에 가장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은 부른느 박사의 그의 이론에 대한 요약 편이며 그것은 좀더 기술적인 형식으로 어딘가에 발표되었다.

‘정상적으로 부활에 대한 논의는 예수의 후속적인 지상의 출현에 대한 역사적인 증명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에 중점이 된다. 그의 실제적인 죽음의 문제는 이단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의식을 잃은 것이 죽은 것으로 믿어지고 의식 불명 상태에서 살아난 것이다.’

뉴욕에서 1908년 ‘의학 기록’을 썼던 클라크 박사는 예수의 명백한 죽음은 의식불명의 마비였었다고 주장하였다. 1935년 의식 불명에 대한 미국 권위자인 와이스 교수는 의식을 잃는 것은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죽음을 야기할 수 있고 의사들에게 지금 받아들여진다.

‘의식 불명의 근본적인 특성은 동맥 혈압의 저하이며 이것은 신체의 주로 근육에서의 더 작은 동맥을 실제로 이완에 의해서 야기 된다. 그러면 혈액은 아주 저하된 힘을 가지고 혈액 순환의 동맥 쪽으로부터 없어지게 된다. 동시에 심장이 완만해지고 몇 초 동안 멈출 수 있다. 보통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항 없이 발작이 오고 이는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뇌의 산소 공급이 감소하고 의식을 잃고 환자는 기력을 잃는다. 호흡이 열어지며 동공이 이완되고 죽음과 같은 상태이다. 가장 깊은 의식 불명이라도 죽음과 같아 보인다.’

‘낙상의 상태를 야기하는 근육의 힘의 소멸은 산소 공급 부족에 의하여 손상을 입게 되는 뇌에 대하여 보호를 한다. 수평적인 위치에서 혈압이 회복되고 의식이 돌아온다. 그러나 죽음의 창백함은 한시간 이상 지속 된다. 왜냐하면 뇌하수체의 호르몬의 분비 반응 때문이다.’

‘환자가 똑바로 서있는 경우 (1) 혈압이 자발적으로 의식 불명의 수준으로 가고 (b) 환자는 순간적으로 회복되었다. 다시 의식 불명을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한다. (c) 그는 의식 불명 상태 속에 점차적으로 혈압이 내려가지만 아직 살아날 가망성은 있다. 그러나 그가 즉각적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은 심장이 발작으로 멈추면 다시 소생할 수 없다. 그러나 치명적인 경우 죽음은 일반적으로 산소 공급에 의한 뇌의 손상으로부터 오고 이것은 2-3분내에 그렇게 되거나 몇 주일 계속될 수 있다.’

회 복

혈압의 수준과 서 있는 시간에 따라 생존자는 인사불성이나 의식불명을 가진다. 몇 시간 혹은 며칠씩 있다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아니면 심각한 치매현상을 함께 하여 살아나고 죽음이 연기 된다. 그러한 경우는 의학적으로 일반적인 것이다.

몇 년 전에 치과 시술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에 관한 저자의 연구가 있었는데 환자들은 질산의 가벼운 마취 하에서 의식 불명의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부른느 박사는 이 연구를 그의 책 ‘치과의술의 질산’에서 발표하였다.] 일반적인 마취 하에서 이것은 아주 갑자기 환자가 죽은 상태로 보여지는 것 일 때까지 알 수 없다. 환자가 졸도를 하는 중요한 시점은 알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바닥의 의자가 들어 올릴 때 그는 창백하게 되어 넘어지고 의식이 서서히 돌아올 때까지 무기력상태에 있다. 많은 그러한 경우가 발견 된다 의식불명은 30분에서 몇 시간, 하루 이상 혹은 극한 상황에서 2주까지 가며 어떤 경우는 치명적이다.

치과 계통에서 100여 개 이상의 경우에 수집된 정보와 마취에 관계

되지 않은 사항은 십자가형과 부활과 같은 현상과 같다.

결 음

십자가형 (복음서와 레난의 ‘예수의 인생’)은 정오에 일어났는데 예수의 분명한 죽음은 오후 3시경 환경에 갑자기 발생했다. 그는 내려져서 무덤에 눕혀지고 일요일 새벽 그러니까 40시간 뒤에 더 이상 거기에 없었다 그 날 이후로 5일째부터 예수는 걸어 다니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다. 먼저 마리아 막달레나와 새벽에 그녀는 처음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서 있는 자세의 기간이 의식 불명의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몇 시간의 의식 불명 뒤의 의식의 회복은 얼마나 낮게 혈압이 떨어지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은 뇌의 산소 부족에 달려있다. 그의 경우의 수준은 추측할 수 없으나 십자가 위에서의 의식 불명의 간격은 아주 짧은 것으로 보인다. 의식 불명 상태에서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것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성 요한이 유대인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군인들은 예수와 같이 매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게서 가서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군인들 중의 하나가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곧 피와 진물이 흘러나왔다.

동 정

군인들은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아마도 곧 시체들을 끌어 내렸을 것이다. (예수에게 동적적이었던 백부장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였다고 본다) 레난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원한다고 하였을 때 그는 이미 끌어 내려져 있었다고 말한다. 군인들이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이것은 일종의 사망자에 대한 일종의 은혜를 베푸는 방식이었다.

다음, 상처로부터 피가 어떻게 흘러나왔을까? 죽은 시체에서는 피가 절단된 정맥으로부터 분비된다. 그러나 성 요한의 설명처럼 피가 흐르지는 않는다. (심장 발작의 환자를 수술하는 중에서 피가 흘러 내리는 것은 심장이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외과 의사들은 가슴을 절개하지 않는다). 의식 불명의 상태에서 작은 근육의 동맥들이 이완되면서 이러한 사항은 기대 된다. 창은 결코 근육을 뚫지 못한다. 상처는 아마도 심장 부근에 생긴 것이고 혈압이 의식 불명의 상태에서도 있는 것이다.

의식 불명과 죽음의 유사성과는 달리 죽음은 항상 쉽게 진단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많은 실수가 행해진다. 나는 개인적으로 의사에 의하여 죽음으로 판명된 두 사람을 알고 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검사를 하였는데 그들은 소생하였다. 하나는 그 후 13일 동안 병원에 남아있었다. 예수의 경우 죽음은 군인에 의하여 진단되었다. 이 굉장한 사건의 동요 중에 실수 외에는 더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

변화된 얼굴

가까운 협조자들이 예수를 그 이후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아픈 사람처럼 보이고 많이 변화했을 것이다. 십자가 형 기간 후 동안 그의 말은 약간 이전의 힘과 명민성을 곁여한다. 십자가에서 뇌의 산소 결핍이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실을 의심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의식 불명이 되었고 클라크 박사가 주장하듯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75년 전에 발표되었다. 레난에 의하여 십자가 형 뒤의 살아난 사람은 고대로부터 알려진 것이었다. 예수의 재출현에 관하여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장애가 되는가? 그의 인생은 실제적인 신화 없이도 웅장한 것이었고 아무도 영혼의 기적을 없애버릴 수 없다.

제7판 부록

추가 증거와 최신 이론

제6판은 1965년 당시 최근의 가능한 주석을 사용하여 업데이트 하였다. 비슷한 기회가 제7판에도 있었다. 1978년 튜린에서 발견된 성 수의에 대한 연구는 말할 것도 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확고하게 이 주제를 연구하는 신선한 길을 열게 되었다.

삐에르 바르베 박사

1931년 프랑스의 외과의며 해부학자인 삐에르 바르베 박사는 앙리에 의한 수의의 사진에 대한 아르마이악 신부의 자문을 위하여 접촉되었다. 1950년 바르베 박사는 ‘외과의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란 책을 발간하였다. 그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1. 상처로부터 흘러나온 혈액은 피부에 응고되어 있고 수의와 직접적인 접촉으로 묻어진 것이다.
2. 신체에 징별이나 체별을 심하게 당한 것에 의한 120개의 상처를 관찰하였다.
3. 흔적은 가시 면류관에 의한 것이었고 상처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생긴 것이고 왼쪽 어깨에 상처가 보이며 무릎에는 수의에 흔적이 없다.
4. 못은 손바닥을 통한 것이 아니라 손목의 뼈에 의하여 연결되는 부분을 통하여 박힌 것이다. 손목의 상처로부터 피가 흐른 것을 보아 신체가 십자가에서 다른 두 가지 자세를 취할 수 있는데 신체가 약간 올라가 있었고 발이 지렛대로 사용되었다.
5. 죽음이 질식과 강직성 경련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다. 의사에 의하면 창이 날이 여섯번째의 갈비 뼈를 관통하였고 늑막을 관통하고 오른쪽 폐와 심낭을 뚫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 자체의 오른쪽 심이를 뚫었다. 피는 하부의 대정맥으로부터 복부로 흘렀다. 시체가 수평적인 위치로 되었을 때 하부의 대정맥의 피는 오른쪽 심이로 거꾸로 흐르게 되고 창에 의하여 만들어진 터널을 통과하고 밖으로 흘러나왔다. 오른쪽 흉곽의 낮은 부위를 따라서 오른쪽 면으로 흘렀다.

이 의견은 기독교인이 친절한 성직자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심이 반드시 목표의 독립성에 있게 된다. 실험은 시체에 행하여졌고 죽음이 당연 시된 것이다. 십자가에서 수직의 자세로 있으면 피가 응

고되지 않아 자연히 복부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으며 요한에 의한 증명으로 피와 진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에 대답이 될 수 없다.

허트 교수는 이것을 반박하였는데 피는 단지 살아있는 육체에서만 흐르고 심장이 기능을 멈추는 경우에는 혈압이 없기 때문에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수의에 분비된 피의 진액의 증거가 있었고 머리 뒤 부분과 목 부분에 피 자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육체로부터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가 거부되면 사바는 추측하기를 창이 5-6번째 갈비뼈를 지나갔고 그래서 수의의 진액과 피의 흔적은 허파의 공동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피와 진물이 흐르게 되었다고 했다. 5-6번째의 갈비뼈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창이 깊게 삽입되지 않았을 것이다. 찌르는 각과 신체의 부위가 심장에서 벗어났다. (엑스레이 실험으로 보여졌음) 그리고 허파를 스크래치에 되었다. 몰약과 알로에의 치유 성격은 상처를 봉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2-3인치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다시 늑막의 동공 부위의 진액은 늑막 막에 의하여 보호되어졌고 지구 중력의 법칙으로 신체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니쿠 하스 박사

1968년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은 1968년 6월 사람의 뼈가 있는 매장지를 발굴하였다. 한 무덤 밖에 두 개의 비문이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만난 제호하난이란 사람의 것이었다. 하다쉬에 있는 히브리 의과 대학의 해부학과의 니쿠 하스 박사는 사체가 요골과 척골에 못 자국이

있으며 심한 고통 끝에 사망한 것으로 주장했다. 다리 아래 뼈가 골절되어 있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리를 부러뜨린 것으로 급격한 사망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발은 거의 평행으로 묶여져 있고 발목에 못과 교차되어있으며 다리가 그 인근에 있었다’ 이것은 튜린의 수의에서 나타난 십자형의 장면과 거의 유사하다. 발 버팀대는 특히 중요한 것으로 십자가에서 질식으로 사망하는 것을 연장해준다.

수의의 영상

(a) 베이포그래프 이론

폴 비농은 수의의 영상이 알로에를 흡수한 옷에서 암모니아의 증기에 의한 작용으로 생겼다고 말하였다. 폴 비농이 그 자신의 비평을 하였지만 그의 이론은 부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허트 교수는 그 자국들이 수의로 직접 혈액이 흘러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은 명백한 것으로 왜냐하면 혈액이 피부에서 응고되면 그 주위에 진액이 나오기 때문에 흐를 수가 없는 것이다.

(b) 직접 접촉 이론

1. 지오바니 주디카 코르디길라 박사는 그 영상을 네거티브로 만들어 냈는데 혈액과 함께 시체를 적시어 그것을 올리브 기름, 테레빈과 알로에를 결합하여 사체에 바르고 린넨으로 짠 사체를 빛에서 뜨거운 증기에 노출하였다.

2. 라마네즈 박사는 빛에 노출 하기 전에 린넨을 소금으로 절인 것을 사체를 감싸고 생리 식염수 용액에 담가서 유사한 원형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3. 스코티 박사는 올리브 기름에 알로에 에물전을 만들고 단 순히 알로에가 묻은 천을 공기와 접촉하여 태양에 노출된 뒤에 상당한 시간 암실작업을 하여 극히 희미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 그들은 깊은 것이 아니었고 시간으로 깊어진 것이므로 천에 나온 이미지를 요한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이 이론들은 화학 반응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제를 가지고 수의에 액체를 바르는 것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들에 유사한 조건이 필요하였고 수의가 진본이어야 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수를 쌓았던 것이라는 것은 거의 의심이 없다.

1897년에서 1902년 동안 알버트 게이어트는 132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에 의하여 이집트의 나일강에 세워진 도시 안티노에를 발굴하였다. 기독교인의 사체중의 하나가 그의 얼굴에 베일을 하고 네번으로 접어서 수의에 쌓여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죽은 사람의 얼굴에서 비틀림을 발견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네번으로 접은 것은 어떤 화학적인 과정에 의한다고 하였다.

저자는 이미 4장에서 한 에센 동지회의 목격자가 이집트의 동료에게 편지를 쓴 것을 인용하였다. 이 편지로 유사한 수의의 이집트에서의 발견에 따라 모든 좀더 진품이라는 것이 불가능할까?

수의의 진의성

튜린의 수의의 진의성은 다음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 (a) 막스 프리 박사는 형법학자이며 꽃가루 분석 전문가이다. 모든 식물의 꽃가루 확인되었다. 1973년 그는 10-12cm의 린넨 섬유에서 12개의 샘플을 취하여 유리히에서 현미경으로 조사를 하였다. 다른 지리학적인 지역으로부터 온 꽃가루를 연구하고 비교함으로써 그는 수의가 어떤 당시에 팔레스타인과 터키의 지역에 노출된 것으로 보였다. 노출이 된 장소의 시간은 알 수가 없다.
- (b) 기독교 역사가는 수의의 진의성을 의심하였는데 옷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슬람교의 역사가 알 마수디와 이브닐 아티르 는 그것을 기독교인의 손에 가기 전에 에데사의 아바가루스 왕에 연결되었다고 했다. (이슬람교 해럴드 18집, 1호 1978년 1월)
- (c) 미국 공군 아카데미의 존 잭슨과 엘릭 접퍼는 흔적의 명도의 강도를 연구하여 그래프로 그려 마이크로 밀도계로 옷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이미지 분석가에 의하여 복사를 하였다. 이 기술은 3차원의 부조가 얻어질 수 있는 공간 연구 프로그램에 의한 것과 유사하다. 이미지의 명확성은 수의가 위조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복음서의 그리스 원본은 단지 영혼이 떠나 가다로 되어있다. 죽음이란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 당시에 숨이 정지되는 것을 죽음으로

여겼다. 현대의 의학은 소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람이 호흡이 정지될 지라도 소생시킬 수 있고 의학적인 용어로 사망이 근본적으로 인정되었던 사람이 새롭게 깨어난 경우가 많다.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계시를 받은 신의 예언자였기 때문에 더 정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죽을 수 있는 인간인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서 구원되고 자연사를 했다는 것은 신의 위대한 기적이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역사가들을 만족시키고 예언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게 된다. 이것을 믿지 않지만 예수에 대해서 신과 같은 권능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 원래적이고 단순한 형식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는 진실을 찾는 평균적인 사람들에게 대한 요구를 더 많이 만족 시켜야 할 것이다.

신의 권능은 우리를 진실로 이끌게 되기를. 아멘

제12판 부록

나그 하마디 문헌

예언자 무하메드-무지로 악명 높던 나라에서 살았던 한 문맹인-
께서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의 학문적 명성과 의식, 권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그처럼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압도적인 다수가 예수의 험오스
러운 죽음을 자신 있게 주장할 때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을 돌렸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여겨질
뿐이라는(코란 3:158) 사실을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말한 것
이다. 신이 예수를 저주스러운 죽음에서 구원하여 그를 영적인 등급
중 자신과 같은 자리로 올렸지만 그의 적들은 그를 죽여 그가 거짓
된 예언자임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믿음으로써 스스로를 기만했
다.(코란 3:56) 예언자께서는 이렇게 약속된 구원자에 대한 예수의
예언을 실현했다.

…그는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요한복음16:13-14)

예수는 요나의 표징이 그의 세대의 유일한 표징이라고 말했을 때 코란의 동일한 메시지를 암시했다.(마태복음 16:4) 요나가 익사한 것처럼 보였듯이 예수 역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였으며, 요나가 ‘물에 빠진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 살아난 것처럼 예수 역시 ‘죽은자 가운데서 일어나’ 살아났다.

성스러운 예언자와 약속된 메시아의 초기 말씀이 전체적으로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은 예수가 십자가 처형에서 살아났다는 코란의 구절을 더 입증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증거를 보여 주실 것이다. 마우라나 자랄-우드-딘 샴즈의 연구에 덧붙여 최근에 나타난 증거 중 하나는 1945년에 발견된 나그 하마디 장서이다. 50개의 문헌으로 구성된 이 장서의 다수는 이 놀라운 발견 이전에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프린스턴 대학 교수인 일레인 페이젤에 따르면 이 문헌들은 역사가 기독교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기독교가 신앙의 정통성이 형성된 과정을 규명해온 만큼 광범위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 문헌들은-1500년 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채 보존된-1970년대에 번역되었고, 오늘날의 정통 교단이 그 저자들을 쉽게 이단으로 내몰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의 기독교 신앙을 교차연구하기 위한 풍부한 근거가 되고 있다.

2006년에 뉴시드북스(메사추세츠, 보스턴)가 발간하고 윌리스 번스톤과 마빈 메이어가 편집한 <지식 성경The Gnostic Bible>에서 우

리는 약속된 메시아의 믿음과 일치하는 내용을 몇가지 찾을 수 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며 나중에 다른 나라로 보내졌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그런 내용의 일부이며 저자 자신이 예수인 것처럼 1인칭 시점으로 쓰였다.

그들이 미친 개처럼 나를 에워싸고
 어리석게도 그들의 주인을 공격했다.
 나는 멸망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의 시신을 찾았지만 실패했다.
 그들은 나의 운명을 점쳤지만 실패했다.

[솔로몬의 노래, 28편에 대한 답가]

나는 손을 뺀어 나의 주인 곁에 다가갔다.
 나무에서 가지를 뺀듯이 내 손을 뺀는 것은 나의 표징이다.
 좋은 것으로 올라가기 위한 나의 방식이었다.
 나는 나를 붙잡지 못한 자들에게는 쓸모가 없어졌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나 함께 있을 때는 나를 사랑하는 자
 들로부터 숨었다.
 나의 박해자들은 죽었다.
 그들은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았다.
 나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의 입을 통해 말한다.
 그들은 내가 버림받았고 파괴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솔로몬의 노래, 42편에 대한 답가]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 속에 있다. 그들이 자기들의 실수와 어리석음으로 만들어낸 계획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 거기서 그들이 나를 처벌하였지만 나는 실제로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들은 나의 친족들이므로 그들에 의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나는 그들의 눈 앞에서 고통을 받았고 그렇게 생각되었으며, 그들에 대해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나에게 일어난 죽음이 그들의 실수와 무지에 의해 그들 자신에게 일어났다. 자신의 사람을 못박고 스스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은 나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귀머거리요 장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비난한다.

[위대한 세스의 두 번째 논문]

누군가는 주께서 맨 먼저 죽어서 승천했다고 한다.

그들은 틀렸다. 그는 맨 먼저 일어났고 그런 뒤에 죽었다.

[필립보 복음서]

위의 문헌 중 몇 가지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 예수 대신 다른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히브리어, 아랍어, 시리아어의 깊이 있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읽으면 단순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끔찍하게 죽음에 이르렀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고 그런 오해가 자기들이 처형한 사람으로 형상화되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그런 잘못된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고 수치스러운 죽음에서

모두가 무죄이고 영광을 받았다. 다시 말해 두 명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에 대한 두 가지의 다른 믿음이 있었고, 말하자면 각각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문헌은 예수가 제자들과 다른 가까운 추종자들을 떠나기 전에 아주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는 사도행전 1장3절에 언급된 것처럼 40일만 함께 지냈다는 내용과 반대가 된다.

그가 죽음에서 일어난 이후로 550일이 지나 우리가 물었다.
‘우리를 떠나실 겁니까?’

[제임스의 비밀의 서]

사제들이 예수에게 말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떠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 될까요?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야곱을 찾아라.

[도마의 복음서, 12장]

나는 전에도 지금처럼 영광을 누렸으므로 내가 가고자 할 때 나를 잡지 말아라. 나의 노력에도 우화로 인해 너희가 18일 (편집자의 제안에 따라 ‘달’로 수정)을 더 머물게 하였다.
보아라, 나는 너희에게서 떠날 것이다. 더는 너희와 머물고 싶지 않다. 너희들 자신이 이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임스의 비밀의 서)

다시 말하지만, 위의 문헌들-수 세기 동안 머무르던 정통성에서 성서가 보전되면서도-이 코란의 가르침과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들이 놀라울 뿐이다.

반면에 정통 기독교의 성경은 십자가 사건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십자가 사건 이후 40일 동안(사도행전 1:3) 예수의 행동에 관한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다. 예수 주변의 목격자들이 기적적인 부활에 너무도 놀라서 그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건 전의 행동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사건 후의 행동을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

이런 실망감에 덧붙여 네 편의 복음서 중 두 편만이 '실제로 본' 목격자(마르크와 누가)가 아버지 오른편으로 올라가는 예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적인 증거는 그런 사실들을 보간법으로 증명했다. 콘스탄틴 폰 티센도르프(1815-1874)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격적인 발견의 하나인 코텍스 시나이티쿠스로 유명한 독일의 성경 학자이다. 티센도르프는 시나이 반도의 성 캐서린 수도원에서 코텍스 시나이티쿠스를 발견했다. 이 성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약성서이다. 흥미롭게도 코텍스 시나이티쿠스에 나타난 마르크와 누가의 복음서를 보면 모두 승천 이전에 끝이 나므로 승천은 후에 보간되거나 조직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참고문헌

1. 코란
2. 사히-울-부카리, 신성한 예언자의 말씀집, 이집트의 오스마니야 미스리야 출판사 1932
3. 셰이크 알라-우드-빈의 칸줄 움말, (히테라바드 1214H)
4. 약속된 메시아 아마드의 마시 힌두스탄 메인 (인도의 예수), (카디안 1889)
5. 약속된 메시아 아마드의 타즈키라-투쉬-사하다타인, (카디안 1908)
6. 이사바 피 수르-히스-사하바
7. 아부 자파르 무하메드 이븐 자리르-앗-타바리의 타리크-우르-루설 왈 물룩, (브릴 1890)
8. 성경
9. 윌리엄 스미스와 폴러 목사의 성경 사전 (런던 1890)

10. 알버트 슈바이처의 '역사상의 예수의 의문' (몽고메리 번역, 런던, 블랙 1911)
11.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어네스트 브루햄 도커, 시드니 지방 판사의 증거에 대한 논문 (런던, 로버트 스코트 1920)
12.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11판과 14판
13. 유대 백과사전
14. 체임버 백과사전, 개정판 (런던, 체임버, 하이스트리트, 에딘버러 1880)
15. 토마스 패인의 이성의 시대, 다니엘 이삭 이톤의 1794년 1796년 판에 기초 (런던, 와트 앤 컴퍼니 1938)
16. 아서 위갈의 기독교의 이단 (허친슨 앤 컴퍼니, 런던)
17. 아도니스, 아티스와 오시리스 (2판), 제임스 프레이저 작 (맥밀런 앤 컴퍼니, 런던 1907)
18. 황금 가지, (6부), 제임스 프레이저 작 (런던 1913)
19. 와치맨 잡지 (런던, 1940년 3월호)
20. 보통 기도자의 책
21. 필립 샤프의 성스런 땅을 통하여 (런던, 제임스 니스벳 1888)
22. 알렉산더 크루덴의 성서의 완전한 조화
23. 알프레드 에드샤임의 메시아 예수의 인생과 시간, 런던 룽만 그린 앤 컴퍼니 1886

24. 서전 메이저 벨뤼스의 아프가니스탄의 인종 (캘커타, 대커, 스피크 앤 컴퍼니 1886)
25. 서전 메이저 벨뤼스의 새로운 아프간의 문제점 혹은 아프간 이슬라엘인? (카라독 앤 컴퍼니, 심라, 1880)
26. 제임스 휴그 목사의 기독교 시대의 시작으로부터 인도의 기독교 역사, 2집 (실리와 번사이드에 의하여 출간되어 실리에 의하여 판매, 새프츠베리 매브뉴, 런던 1839)
27. 케이스 존스톤의 지리 사전 (런던, 롱만 그린 1867)
28. 모굴 제국으로의 여행, 1656-1668, 프랑스와 베르니에, 아키발드 콘스타블 번역 (1891) 2판, 스미스에 의하여 개정 (헵프리 밀포드, 옥스포드 대학 출판, 1941)
29. 카슈미르- 프랑시스 영허스밴드에 의하여 설명 물리뉴에 의하여 인쇄 (런던 앤 블랙 1909)
30. 힘 사무엘 케임카르의 인도의 이스라엘의 아들의 역사 (다야그 출판, 텔아비브 1937, 영국에서는 죠지 사블비)
31. 스펙테이터 5634권 1936년 19판 (런던)
32. 영국과 동양, 런던 1936년 12월 3판
33. 플라비우스 죠세퍼스의 작품, 위스톤의 윌슨에 의해서 번역
34. 존 핀커튼의 세계의 모든 구석의 최고의 최대의 여행집 (핀커튼, 런던 1811, 7집)

35. 니콜라스 노트비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알려지지 않은 인생 알렉시나 로랜저에 의하여 프랑스로부터 번역.(랜드 넥널리 앤 컴퍼니, 시카고와 뉴욕 1894)
36. 바랄람과 조아사프의 이야기, 불교와 기독교, 맥도날드 편집(캘커타, 대커, 스팅크 앤 컴퍼니, 1895)
37. 불교 강독 (3편) 어네스트 A텔 (런던 1884)
38. 부처, 그의 인생, 교리, 그의 질서 - 헤르만 올덴버그, 베를린 대학 교수, 윌리엄 호이 번역 (북 컴퍼니 출판, 캘커타 1927, 일리엄 앤 노르게이트 1882)
39. 더 선라이즈 (주간지, 라호르)
40. 아시아 (월간지, 미국)
41. 야곱에 의한 발람과 자세프타 (데비드 넷, 샤프츠베리 애브뉴, 런던 1897)
42. 종교리뷰 (월간지, 카디나), 나는 몇 구문을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인용하였다.

편집자 노트

예언자들과 성자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존경의 뜻이 담긴 인사를 넣었다. 이 인사는 본문 속 적절한 위치에 축약해서 삽입했다. 독자들은 다음 약자가 나오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경배의 인사를 소리 내어 말하기 바란다.

saw Sallallaahu ‘alaihi wa sallam: ‘알라의 평화와 축복을’은 예언자 무하메드의 이름 뒤에 쓰인다.

as Alaihis-salaam/ Alaihas-salaam: ‘평화를 내리소서’는 예언자 무하메드 외의 다른 예언자들의 이름 뒤에 쓰였다.

ra Radiyallaahu ‘anhu/ ‘anhaa/ ‘anhum: ‘알라와 함께’는 예언자 무하메드나 약속된 메시아의 동행자 이름 뒤에 쓰였다.

rta Rahmatullaah ‘alaihi/ ‘alaihi/ ‘alaihim: ‘알라의 자비를 내리소서’는 예언자 무하메드나 약속된 메시아의 동료가 아닌 사망한 독실한 무슬림들의 이름 뒤에 쓰였다.

아마디야 무슬림 커뮤니티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2-85번지

Phone / Fax. 02. 373. 5283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63-2번지 2층

Phone / Fax. 053. 294. 2234

E-mail. info.ahmadiyya.korea@gmail.com

www.alislam.org / www.mta.tv